

시 정 연
2002-R-30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ulture network in seoul

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자 도삼 • 도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연구원 박은철 •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원
김수현 • 도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문제의 제기

- 국내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
 - 디지털 콘텐츠가 점점 중시되며 이는 콘텐츠 산업을 발달시킴.
 -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의 구성과 상호작용이 증시됨.
- 서울시민의 생활문화거점인 문화복지시설의 내실화가 요구됨.
 - 지역균형적인 문화진흥을 위해 시설확충정책에 주력하고 있지만,
 - 현재 문화복지시설의 문화정보제공서비스와 문화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민에게 평가받고 있음.
 -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과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문화복지시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임.

II.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효과

1. 문화네트워크의 정의

- 각 단위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도 서로 연결되는 관계의 연결세트
- 문화네트워크란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시설과 문화인력, 문화활동 등 문화자원들을 시민과 연결하는 연결세트 혹은 시스템.

2. 네트워크 구성목적

- 문화정보제공
 -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의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유발
 - 현재 공공문화복지시설 문화프로그램 참여율이 매우 낮고 이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로 정보부족을 들고 있어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정보제공노력이 더욱 더 필요한 실정임.
- 다양한 문화시설의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성 제고
 - 공공문화복지시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

- 문화자원 공유 및 시설공간/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공공문화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동체 구성 및 지역공동체 구성
 - 각각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과 시설, 문화생산자를 연결하는 문화공동체 구성
 - 문화공동체를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활동 촉진
 - 장·단기적인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성
- 문화자원의 콘텐츠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 지역 문화활동 디지털 콘텐츠화
 - 탈장소성에 기초한 다양한 참여와 개방성 제고
 - 다양한 문화정보 및 문화컨텐츠 서비스 제공

3. 네트워크 구성방법

<표 1> 네트워크 구성방법

분 류	내 용
인프라	온라인 형, 오프라인 형
서비스	정보서비스제공형(정보공유형), 콘텐츠 중심형, 커뮤니티 중심형
구성대상	시설 중심형, 프로그램 중심형, 커뮤니티 중심형
구성단계	위로부터의 구성, 아래로부터의 구성

Ⅲ.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 실태조사

1. 조사개요

<표 2> 조사설계(Research Design)

구분	내용
① 조사대상	서울시 지역문화복지시설(101개) 운영자(정보관련 및 문화프로그램운영담당) ① 구민회관 ② 문화예술회관 ③ 문화원 ④ 문화의 집 ⑤ 공공도서관(구립·시립 도서관, 평생학습관, 문화정보센터)
②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기관방문 조사
③ 조사기간	① 사전 면접조사(40개 기관) 2002. 5. 2~ 5. 15 ② 본 조사:설문조사(101개 기관) 2002. 7. 2~ 7. 11
④ 분석방법	raw data를 검증하여 SPSS로 전산처리 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ANOVA 분석을 사용

2. 조사결과

1)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 실태 평가

○ 오프라인 네트워크 평가

- 동종기관 오프라인 교류정도: 문화원과 도서관은 적극적, 문화의집과 구민회관은 소극적
- 주로 이용하는 매체 : '전화'(54.4%), '홈페이지·이메일'(32.2%)
-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교류의 구심체가 없어서 38.9%

○ 오프라인 네트워크 평가

-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의 활용정도 : 구민회관을 제외한 문화복지시설은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를 갖고 있음.

※동종기관 웹사이트 운영현황

- 도서관 : 서울시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통합홈페이지(www.lib.seoul.kr) 구축
문화교실, 행사정보, 도서관 소식 등 여러 가지 정보 제공
모든 서울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놓는 등 온라인 네트워크 기초 구축
- 문화원과 문화의 집 : 전국단위의 협의회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음.
문화원의 경우 비교적 잘 이용하고 있지만, 문화의 집 경우는 거의 이용하지 않아.
2~3명이 근무하는 문화의 집 경우 웹사이트를 살펴볼 여유조차 없다고 답변

-
- 활용정도는 도서관이 제일 높아 : 도서관 4.06점, 문화원 3.67점, 문화의 집 2.21점
 - 시설별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55.0%

2) 자치구내 이종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 현황 평가

- 교류정도는 매우 낮음. 다만, 성동구(4.67점)나 은평구(3.75점)의 경우 다른 구에 비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 이용매체: 자치구내 교류 또한 전화(50.5%)나 홈페이지·이메일(25.3%) 이용
-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 교류의 필요성: 필요성은 강하게 느껴 '교류가 필요하다'가 5점 만점에 3.81점이었음.

※ 광진구, 송파구, 서초구의 경우 모든 시설에서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가 매우 필요하다(5.00점)고 응답, 교류의 중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자치구내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교류의 구심체가 없어서가 제일 높아, '교류의 구심체가 없어서'(52.7%), '교류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18.3%), '업무가 바빠서'(10.8%) 등으로 나타남.

3) 문화복지시설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현황 평가

○ 오프라인 네트워크 평가

- 주민과 시설간의 커뮤니케이션정도 : 다소 활발한 편으로 평가됨.
 - 주민과 시설간의 커뮤니케이션정도는 3.63점(도서관 4.10점, 구민회관 3.48점, 문화의 집 3.37점, 문화원 3.33점)
- 정기적인 주민의견 경청 : 67% 기관이 설문조사나 주민회의 실시

○ 온라인 네트워크 평가

- 자체홈페이지 주민게시판의 유무 : 대부분은 가지고 있거나(90.7%), 홈페이지 없는 경우는 구청 홈페이지 이용(67.4%)
- 주민게시판의 활성화정도 : 도서관(4.33), 구민회관(4.33)이 높고, 문화원(3.10점), 문화의 집(2.83점)이 낮아.
- 온라인상 정보제공 및 교류가 주민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주민참여도가 높아졌음(3.67점)

4)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현황평가

- 주민의 적극적인 문화예술동아리활동 현황 : 대체로 활발하지 않은 편임.(2.79점)
- 주민의 문화예술동아리에 대한 지원 : 지원은 거의 없어
 - 대부분 문화복지시설은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있을 뿐, 주민활동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온라인 문화예술동호회활동 정도: 문화동호회코너를 개설하고 있는 기관은 3개밖에 없어

5)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1)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 정보화 및 홈페이지 구축현황

- 정보화 능력 : 정보화 기본 현황은 잘 갖추어져 있음.(인터넷 환경 4.43점, 이메일 4.67점, 컴퓨터 업무활용 4.49점, 컴퓨터 보급 4.24점)
- 웹사이트 구축 정도 : 도서관 100%, 문화원 57.1%, 문화의 집 36.8%, 구민회관 17.4% 수준
- 웹사이트 관리운영 : 도서관의 경우 직접 관리/ 문화의 집, 구민회관 등은 구청에서 관리 / 문화원은 외주운영
- 홈페이지 운영의 어려움 : '다른 업무와 겹하고 있어서(37.8%)',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26.7%, ‘담당인력이 부족해서’ 17.8% 순

-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 : 홈페이지 관련 교육 및 예산, 서버지원 등 모든 지원 필요
- ‘홈페이지나 디지털 기술에 관한 교육(4.66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화예산의 증액필요(4.60점)’, ‘홈페이지 서버관리·운영카운셀링 및 기술적 지원기관이 시나 구에 있었으면 함(4.33점) 등 모든 항목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 문화정보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참여여부 : 필요하다 (4.40점), 이용하겠다 (4.40점), 정보 제공하겠다(4.23점)
-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방향 :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야(43.6%), 문화시설협회가 중심이 되어야 (31.9%),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야 (21.3%), 기타 (3.2%)

<표 3>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 중심기관

문 항	응 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서울시 문화 정보네트워크 구축중심기관	서울시	12(52.2)	7(33.3)	7(36.8)	15(48.4)	41(43.6)
	자치구	6(26.1)	1(4.8)	8(42.1)	5(16.1)	20(21.3)
	문화시설 협회	4(17.4)	12(57.1)	4(21.1)	10(32.3)	30(31.9)
	기 타	1(4.3)	1(4.8)	-	1(3.2)	3(3.2)
	전 체	23(100.0)	21(100.0)	19(100.0)	31(100.0)	94(100.0)

$\chi^2 = 15.736$ sig. = .073

- 구축 순서 : 서울시가 먼저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각의 시설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단, 문화원은 자체 네트워크 선호)

<표 4>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 우선순위

응 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서울시에서 온라인상 문화정보네트워크를 먼저구축	9(39.1)	6(28.6)	4(21.1)	14(45.2)	33(35.1)
문화시설단위별로 홈페이지를 구축 및 정보화환경마련	5(21.7)	11(52.4)	7(36.8)	12(38.7)	35(37.2)
구단위에서 온라인상 문화정보네트워크를 먼저구축	8(34.8)	4(19.0)	8(42.1)	5(16.1)	25(26.6)
기 타	1(4.3)	-	-	-	1(1.1)
전 체	23(100.0)	21(100.0)	19(100.0)	31(100.0)	94(100.0)

$\chi^2 = 12.231$ sig. = .201

○ 문화시설단위의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 온라인 문화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홍보’(3.95점), ‘문화예술동호회 육성’(3.67점), ‘인터넷상의 동영상강좌를 실시’(3.76점), ‘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 도입’(3.90점) 등 순

(2) 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 프로그램 질 제고와 접근성 확대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4.46점) 및 인력지원(4.18점), 프로그램 기획 전문교육(4.08점)이 필요(특히 도서관에서의 요구가 강해)
- 주민이용확대를 위해서는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나,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으며, 교통의 편리함(3.37) 및 주변지역 주민 거주정도(3.79)도 낮은 편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지역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 다른 기관과 프로그램 공동기획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고 다수이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

<표 5> 다른 기관과 문화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한 적 있는지 여부

문 항	응 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다른 기관과 문화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한적 있는지 여부	있다	-	9(42.9)	2(11.1)	4(14.3)	15(17.9)
	없다	17(100.0)	12(57.1)	16(88.9)	24(85.7)	69(82.1)
	전 체	17(100.0)	21(100.0)	18(100.0)	28(100.0)	84(100.0)

$\chi^2 = 13.445$ Sig. = .004

<표 6> 우수한 문화프로그램의 공동기획 및 순회공연의 필요성

응 답	구민 회관	문화 원	문화의 집	도서 관	전체	F	Sig.
우수한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순회공연의 필요성	3.30 (1.17)	3.67 (.97)	3.05 (.97)	3.87 (1.07)	3.52 (1.08)	2.760	.047

IV.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현 단계 평가

- 서울시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단계는 네트워크 초보적 단계인 웹사이트구성단계
 - 웹사이트 구축정도: 도서관 100%, 문화원 57.1%, 문화의 집 36.8%, 구민회관 17.4%수준
 - 온라인 프로그램 및 온라인 공동체, 멀티미디어 정보 등 온라인 네트워크 정보 부재

○ 시설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섬’으로 구성

- 낮은 수준의 상호정보교류 : 전화나 이메일에 의존하고, 형태 또한 단순한 연락이나 협회 모임 정도임.
-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자원의 활용, 공동프로그램 기획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네트워크화는 초보 이하의 단계임.

○ 주민 서비스는 찾아오는 시민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참여에만

- 강좌프로그램을 통해 찾아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 대 주민 정보제공서비스 및 (온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부재
- 문화의 연결자이자 유통의 거점으로서 문화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참여자를 연결하려는 노력 부족

○ 시급한 추진보다는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1 단계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구축 - 관련 정보 DB 및 웹사이트 제작
- 2 단계 : 네트워크 구성 - 상호작용적인 정보제공 및 정보공유
- 3 단계 : 활동 촉진 - (온라인) 공동체 및 다양한 문화활동 창출
- 4 단계 : 네트워크 단계 - 지역 공동체 및 문화적 공동체로 발전

○ 시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였을 경우, 서울시가 나서서 서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인력과 예산부족의 한계로 인해, 각 시설에서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서울시가 서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각 시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과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설간 네트워크와 문화생산자 및 소비자를 결합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문화네트워크의 결절점(node)이나 실질적인 문화활동촉진기관으로서 거듭나야.
- 향후 각 자치구는 시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로 나아가야.

<표 7> 구성주체별 기본역할 및 사업내용

	서울시	자치구	각 시설
기본역할	· 문화네트워크 활동 지원	· 지역네트워크활동 지원	· 네트워크 구성 주체
주요역할	· DB 서버구축 · 종합적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	· 자치구 문화복지시설 및 공공시설과 연결 (지역공공문화서비스 네트워크)	· 지역문화활동의 거점으로서 역할
사업내용	· 통합적인 DB 구축 · 문화정보제공 · 중앙정부와 연동	· 자치구 단위의 종합적인 문화정보 제공 · 지역문화공동체 및 지역공동체 구성	· 시설의 문화정보서비스 제공 · (지역) 문화공동체 구성 · 문화예술돌아리 활동의 지원
구성효과	· 문화복지시설 운영의 효과적 지원 · 문화행사 및 문화관련 프로그램 활동의 활성화 · 서울의 삶의 질 및 문화복지 향상	· 행정-복지-문화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 지역문화활성화	· 대 주민서비스 제공능력 강화 ·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공동기획을 통한 프로그램 질 제고

○ 내실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문화정보망 구축 필요

-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공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여러 문화시설에서 공동으로 유치하고, 순환프로그램으로 구성함으로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고, 시설의 효용성 및 프로그램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서울시가 문화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각 시설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화함으로써 문화행사 및 예술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제고해야

V.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정책제언

1. 기본방향 설정

- 궁극적인 목표: 시민문화복지 증진
 - 시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활성화
- 기본방향 1 : 문화자원의 정보화 및 네트워크화
- 기본방향 2 :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공유
- 기본방향 3 : 지역문화복지시설을 거점으로 문화네트워크 구성
- 기본방향 4 : 온/오프라인 문화활동의 지원을 통한 문화공동체형성

2.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1)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 DB의 구성

- 기존사업의 활용 :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정보화사업’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 등 기존 DB 사업으로 인해 상당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기존 사업 영역에서 구축된 DB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기존 DB와 연동되도록 구성
 - 문화관광부가 구축한 컬처넷 21의 표준분류체계 적용하여, 상호연동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 컬처넷 21의 표준분류체계에 기초하여 상위폴더(대분류)와 하위디렉토리(중분류)를 구성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DB로 구축해야.
- 커뮤니티 서비스와 문화교육정보, 지역 문화관련시설 및 문화정보 등을 통합하는 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축

○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

- 정보서비스 제공의 장으로서 : 각종 문화정보 제공
- 상호작용의 창구로서 : 주민과의 대화 및 참여의 공간으로 구성
- 연계의 공간으로서 : 각 시설과의 연계성 확보
-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 문화전문가와 지역주민,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등 각종 커뮤니티 공간
- 콘텐츠 공간으로서 : 각종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공

○ 구성전략

- 대부분 문화시설이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운영을 외주로 맡기는 점을 고려,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해 주는 한편, 필요에 따라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 문화관광국 문화과 내의 <문화정보팀>을 (가칭)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으로 구성, 문화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을 관장토록 할 필요가 있어.
- 각 구 또한 구별 자체 서버에 문화복지시설 웹사이트를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기반 네트워크 구성에 조력해야 하며,

- 각 시설 운영진은 구성된 웹사이트를 실질적인 문화정보네트워크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토록 노력해야.

○ 구성단계

<표 8> 네트워크 구성단계

단계	주요사업	비고
1 단계	서울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서울시 주관) - 현 서울 문화관광사이트의 확대개편	· 통합적인 서버구축 · 문화정보 DB 구축
2 단계	자치구별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 - 자치구별 문화넷 구축 - 문화복지시설 홈페이지 구축 및 상담 (복지시설/자치구/서울시)	· 시설별 웹사이트 구축 · 문화정보화 사업 촉진 · 문화정보의 교류
3 단계	공공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민간시설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

2) 분야별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 대 시민 정보제공 서비스 구성방안

- 제언 1 : 서울문화관광사이트를 확대개편하여 종합적인 서울의 문화정보서비스 제공
- 제언 2 :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문화정보서비스 제공
 - 서울문화정보지 제작/배포
 - 지하철 역사, 지하철 내, 버스 등 대중적인 오픈스페이스 내에 문화정보서비스 제공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지하철 및 도시 내 멀티비전을 통한 문화정보서비스 제공

○ 주민과 문화복지시설간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 제언 1 : 우수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시상제 도입
 - 우수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시상제 도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수의 기회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시설의 사기 진작시켜야 함.
- 제언 2 : 야간·주말에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마련
 - 일요일·야간시간에도 자유로운 이용여건 마련
 - 자치구간 문화복지시설의 휴일조정

- 제언 3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및 장소적 접근성 제고
- 제언 4 : 문화복지시설간의 연합을 통해 사이버 문화예술교육실시
 - 현 서울문화관광광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 제언 5 :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성 수단을 개발 및 이용
 - 정례적인 설문조사와 회의를 통한 시민의 의견반영확대
 - 온라인상 주민의견게시판의 설치와 지속적인 관리
 - 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 도입
 - 회원제 및 회원할인제 도입

○ 시설과 시설간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 제언 1 : 동종 시설 및 자치구 내 문화복지시설협의체에 대한 설립 지원
 -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분류체계 재정립 및 유사시설 네트워크 구성
 - 동종시설간 문화복지시설협의체 설립지원
 -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협의체 설립지원
- 제언 2 : 시설간 웹사이트 구성을 통한 정보의 공유 및 자원공유
 - 시설운영정보 공유
 - 인력 및 장비공유를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공동홍보 및 소식지 발간
- 제언 3 : 우수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제작을 통한 문화복지시설에서 공동으로 운영
 - <전국문예회관연합회>사례에서 보듯, 공동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문화복지시설 순회공연
 - 고급문화예술교육과정의 공동추진
- 제언 4 :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전문가와 시설운영자, 시설운영자간 네트워크 구성
 - 문화기획자를 위한 고급문화예술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문화시설운영자들의 공동연수 실시

○ 주민과 주민간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 제언 1 :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원

- 현 서울문화관광사이트를 개편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기존 커뮤니티 사이트 활동 단체를 이전토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온라인 상의 서버지원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문화정보서비스 지원)
- 공공문화기반 시설 및 유휴지 등과 같은 시설이용을 위한 회원권 부여를 통해 오프라인 상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제언 2 :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적극 지원

- 문화예술동아리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과의 연대감을 형성시켜 지역문화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함.
- 지역주민연합 문화예술활동 발표회 지원

3)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제언)

· 제언 1 : 문화네트워크 구성 추진을 위한 (가칭)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 운영

<표 9> 『(가칭)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의 주요사업

온라인 네트워크 사업	오프라인 네트워크 사업
가. 중앙정부와 문화정보화 및 네트워크 사업 사전 조율 나.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DB화 및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다. 구별 문화넷 구축 예산지원 라. 문화복지시설 홈페이지 서버 무료 제공 마. 문화복지시설 홈페이지 구축상담 - 단계별로 무료 구축내지는 구축상담 제공 바. 문화복지시설관련 정보화 및 홈페이지 교육 실시(구단위별로) 사. 사이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서울문화관광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사이버 문화예술교육 실시	가. 구별 문화복지시설협의체 구성 지원 - 구 단위별 문화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참여의식 제고 나. 정기적인 문화네트워크 추진회의 개최 - 구별 문화복지시설협의회와 정기적인 시설 운영에 관한 회의 주관 다. 서울문화정보지 발간 - 온라인으로 DB화 한 자료를 주간정보지로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제공 마. 우수문화프로그램사례 공모·시상 - 우수문화프로그램 사례를 공모하고 시상하고 그 사례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각 문화복지시설에 배포하고 『서울문화관광사이트』에 DB화 함 바. 문화복지시설운영자·전문가·자원봉사자 교육 지원 사. 우수한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순회공연 지원 아. 시민의 문화복지시설 참여율과 만족도 조사 - 2~3년에 한번씩 실태와 참여율 조사

- 제언 2 : 통합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서버시스템 구축 등 네트워크 구성기반 조건제공
 - 각 시설이 지니고 있는 예산과 인력으로는 현재 자체 서버를 운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 특히 정보가 점차 멀티컨텐츠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효율적인 서버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은 문화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 필수적
 - 서버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각종 문화관련 커뮤니티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는 비용절감을, 서울시 및 각 시설 운영자에게는 문화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그리고 시민에게는 다양한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제언 3 : 교육 및 우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시설 운영 측면 지원
 - 문화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획능력 제고
 - 시설 운영자 간 유대관계 및 네트워크 구성
 -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통한 문화기반 시설 운영 내실화 및 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

목 차

제 I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내용	3
제 3 절 연구방법 및 연구모델	5
제 4 절 선행연구의 검토	6
제 II 장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논의	13
제 1 절 문화네트워크의 개념과 구성의 필요성	13
제 2 절 문화네트워크 구성방향과 전략	19
제 3 절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효과	27
제 III 장 국내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성사례	35
제 1 절 해외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사례	35
제 2 절 국내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사례	41
제 IV 장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조사	53
제 1 절 조사개요	53
1. 조사목적	53
2. 조사설계	53
3. 조사내용	55
4. 분석방법	58
제 2 절 분석결과	58
1. 동종 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 실태 평가	58
2. 자치구내 이종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 평가	64
3. 문화복지시설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실태 평가	70
4.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실태 평가	74
5.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 방향	76
제 3 절 요약 및 정책시사점	108

제 V 장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123
제 1 절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목표와 기본방향	123
제 2 절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127
제 3 절 네트워크 구성주체별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144
1. 주민과 문화복지시설간의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144
2. 문화복지시설간의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154
3. 주민과 주민간의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161
제 4 절 주요 행·재정적 지원방안	164
 제 VI 장 결론	 171
 <참고문헌>	 177
<부록: 설문지>	183

표 목 차

<표 1-1> 우리 나라 인터넷의 주요 세계 지표	1
<표 1-2> 네트워크 특성의 분석지표	7
<표 1-3> 청소년 문화정보네트워크의 연구내용	8
<표 2-1> 지역문화복지시설내 프로그램 비참여 이유	17
<표 2-2> 예술가들의 예술활동 관련 연평균 수입	31
<표 3-1> 해외 문화정보망의 비교	40
<표 3-2>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의 시범기관	41
<표 3-3> 서울문화관광사이트의 사이트 맵	44
<표 3-4> 공공문화복지시설이용에 대한 인지도와 장애요인	47
<표 4-1> 조사설계(Research Design)	54
<표 4-2> 설문조사된 시설	55
<표 4-3> 설문조사의 분석지표	56
<표 4-4> 설문항목의 구성	56
<표 4-5>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	60
<표 4-6> 동종기관의 교류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	60
<표 4-7> 동종기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62
<표 4-8> 정보를 얻기 위해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 이용정도	63
<표 4-9>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64
<표 4-10> 자치구내 이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복지시설별)	66
<표 4-11> 자치구내 이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자치구별)	67
<표 4-12>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의 필요성(복지시설별)	68
<표 4-13>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의 필요성(자치구별)	68
<표 4-14> 자치구내 교류를 위한 주 이용 매체	68
<표 4-15> 자치구내 이종시설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69
<표 4-16> 주민과 시설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70
<표 4-17>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회의유무	70
<표 4-18> 홈페이지 상 게시판 운영 여부	71
<표 4-19> 홈페이지이외에 온라인 상에서 이용하는 매체	72
<표 4-20> 게시판의 활성화 정도	73

<표 4-21> 온라인 상 교류가 주민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73
<표 4-22> 주민의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 정도	74
<표 4-23> 주민의 문화예술동아리활동에 지원 정도	75
<표 4-24> 홈페이지 상 문화동호회개설 유무	76
<표 4-25> 정보화 현황	78
<표 4-26> 홈페이지 구축유무	80
<표 4-27> 홈페이지구축 기관	80
<표 4-28> 홈페이지 구축연도	80
<표 4-29> 서버관리	81
<표 4-30> 홈페이지 운영시 가장 어려운 점	82
<표 4-31> 홈페이지 운영관련 교육을 받은 횟수	82
<표 4-32> 자체운영의 경우 운영인원	82
<표 4-33> 홈페이지 운영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유	83
<표 4-34> 홈페이지 운영지원 사항	84
<표 4-35> 향후 홈페이지 구축의향 여부	85
<표 4-36>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어려운 점	85
<표 4-37> 정보제공·홍보를 위해 온라인 상에서 주로 이용하는 매체 ..	85
<표 4-38>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정보제공여부	87
<표 4-39>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 중심기관	89
<표 4-40>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구축 우선 순위	89
<표 4-41>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콘텐츠의 주요항목	90
<표 4-42>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콘텐츠 선호도	92
<표 4-43> 문화복지시설의 재정적 어려움	93
<표 4-44> 문화복지시설의 재정적 어려움	93
<표 4-45> 문화복지시설단위의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방안	96
<표 4-46> 우수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하기 어려운 이유	99
<표 4-47> 문화예술프로그램 전문기획·운영인력의 수	99
<표 4-48>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 ..	100
<표 4-49> 평일개관시간	101
<표 4-50> 평일폐관시간	101
<표 4-51> 야간프로그램운영 및 활동공간 제공에 대한 의견	102
<표 4-52> 문화복지시설 휴무 현황	102

<표 4-53> 문화복지시설의 장소적 접근성	103
<표 4-54> 주민의견반영을 위한 수시적인 설문조사	104
<표 4-55> 문화예술강좌 수강생들의 동아리 수	104
<표 4-56> 동아리 지원 형태	105
<표 4-57> 확장 및 확충이 필요한 시설	106
<표 4-58> 다른 기관과 문화프로그램을 공동기획 여부	107
<표 4-59> 우수한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순회공연의 필요성	107
<표 5-1>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의 표준문화분류체계	130
<표 5-2> 문화복지시설의 홈페이지 구축유무	140
<표 5-3> 주민과 문화복지시설간의 문화네트워크구성을 위한 정책과제	145
<표 5-4> 문화복지시설 운영우수사례	146
<표 5-5> 장소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례	148
<표 5-6> 주민과 시설간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149
<표 5-7> 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정책과제	155
<표 5-8> 주민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효과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162
<표 5-9> 『(가칭)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의 주요사업	165
<표 5-10> “자치구 문화복지시설협의체”의 설립 필요성과 주요 역할	· 166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모델	6
<그림 2-1> 문화복지시설 문화프로그램의 참여율과 평균참여횟수	17
<그림 3-1> 덴마크 문화정보망 홈페이지	36
<그림 3-2> 오스트레일리아의 문화정보망	38
<그림 3-3> 뉴멕시코주 문화정보망 홈페이지	39
<그림 3-4> 컬처넷21 홈페이지	42
<그림 3-5> 서울문화관광사이트 문화공간면	46
<그림 3-6> 서울공공도서관 통합사이트	49
<그림 4-1> 조사의 개요	53
<그림 4-2> 동종기관간 협회, 모임의	59
<그림 4-3> 시설·문화프로그램운영의 정보교류 활발 정도	59
<그림 4-4> 시설·문화프로그램 운영관련 세미나 및 교육정도	59
<그림 4-5> 동종기관간 미교류의 원인	61
<그림 4-6>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 이용여부	63
<그림 4-7>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64
<그림 4-8> 자치구내 이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	65
<그림 4-9> 자치구내 이종시설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69
<그림 4-10>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정도와 지원 정도	75
<그림 4-11> 지역문화복지시설별 문화예술강좌수강생들의	75
<그림 4-12> 정보화 현황	77
<그림 4-13>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의 중심기관	88
<그림 4-14>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방향	88
<그림 4-15>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콘텐츠 선호도	91
<그림 4-16> 문화복지시설단위의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95
<그림 4-17> 우수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하기 어려운 이유	98
<그림 4-18>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100
<그림 4-19> 타 기관과의 공동기획여부	107
<그림 5-1>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목표 및 기본방향	125
<그림 5-2> 네트워크 구성주체별 네트워크 구성의 목적	126

<그림 5-3> (개편 전) 현재 서울문화관광사이트의 사이트맵	135
<그림 5-4> (개편 후) 서울문화관광사이트의 사이트 맵	136
<그림 5-5> 강서구 홈페이지의 문화정보관련페이지	137
<그림 5-6> 강북구 홈페이지의 문화정보관련페이지	138
<그림 5-7> 구 단위 문화넷 구성의 가이드라인	140
<그림 5-8>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추진체제	143
<그림 5-9> 온라인 수강신청 결제시스템 사례: 민예충 문예아카데미 ...	152
<그림 5-10> 세종문화회관의 동호회개설기념 이벤트행사	153
<그림 5-11> 월 평균 가구소득별 월 평균 문화생활비 비교	157
<그림 5-12> 문화예술행사관람 경험률(1년간)	157

第 I 章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제 3 절 연구방법 및 연구모델

제 4 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 I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중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우리 사회를 네트워크화 된 사회로 만들었다. 무려 2천 6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3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 초고속통신망의 가입률은 67.7%로 전 세계 1위며, 이용시간 면에서도 19시간 20분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과 기술의 발전정도를 측정하는 『국제통신연합』이 ‘이동통신 및 인터넷 지수’를 평가한 결과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나라는 네트워크화 된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¹⁾

<표 1-1> 우리 나라 인터넷의 주요 세계 지표

내용	한국 수치	수준	출처
인터넷 보급률	51.5%	아시아 1위	2002. 7. 노무라경제연구소
인터넷 이용 시간	19시간 20분	세계 1위	Nielsen/NetRatings
초고속통신망 가입 수	1,000만명	세계 1위	2002. 9. 정보통신부
초고속통신망 가입율	67.7%	세계 1위	2002. 9. 정보통신부
이동통신 및 인터넷 지수	63.42	세계 7위	2002. 9. ITU

이러한 네트워크 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화와 정보공유를 위한 온라인상 정보네트워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맞춰 문화분야에서도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문화정보서비스의 제공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상 정보의 집적화와 연계화는 시민의 문화정보접근성을 제고시키고 시민간의 문화커뮤니티를 형성시켜 시민의 문화복지와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연구 특히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

다른 한편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가 지니고 있는 문화서비스 여건 및 현실적인 문

1) ITU가 전세계 200여개 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종합적인 발전정도와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해, △기반 시설 △사용정도 △시장구조 등 3개 분야에 걸쳐 26개 평가기준으로 적용 분석한 결과, 홍콩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덴마크와 스웨덴, 스위스가 각각 2, 3,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ITU, “Internet for a Mobile Generation”, 『ITU Internet Report』, 2002)

제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서울시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는 문화시설 확충을 가장 주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치구마다 1구 1도서관, 1구 1구민회관(문예회관), 1구 1문화원 등 앞다퉈 문화복지시설²⁾을 짓고 있어 문화적 환경이 상당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그 이용율은 10%이하이고, 프로그램 만족수준도 민간문화시설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³⁾를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도시정부가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눈으로 당장 나타나는 인프라의 확충만 강조했지, 그 내실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시민문화복지증진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시설의 수나 프로그램의 수가 아니라 시설운영과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의 제고이다.

그런데 공공문화복지시설의 프로그램과 시설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문화복지시설의 예산지원확대와 인력의 충원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더불어 현재 있는 문화인력, 프로그램, 문화정보, 기자재 등의 문화자원을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하에서 문화시설, 문화인력 등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문화네트워크의 구성이다. 즉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러한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문화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문화복지시설 프로그램의 낮은 참여율과 만족도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공공문화복지시설과 시민간의 온라인·오프라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2) 문화시설은 크게 예술시설과 복지시설, 전수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술시설에는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이 속해 있으며, 복지시설에는 ‘생활문화복지’차원에서 건립된 구민회관 등 지역 자치시설이 속해 있다. 전수시설에는 ‘지방문화원’을 비롯한 각 전수관 등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지역문화복지시설이란 이처럼 시민의 문화복지차원에서 건립된 구민회관, 도서관, 문화의 집 등 지역문화시설을 말하며, 여기에 각 구별로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서 시민의 문화향수기회확대 및 문화활동진흥을 위해 자치구별로 설치된 문화시설 일체를 가리킨다.

3) 라도삼 외,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 조사』, 2002, pp. 2~5

4)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이용률이 낮고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은 입지부터도 교통이나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곳에 섬처럼 존재하기 때문이며, 교대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야간과 주말에는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 직장인이나 중·고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게 프로그램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정보,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복지시설은 거의 유사한 초급문화강좌의 계속적인 반복과 영화감상회 등의 제한된 프로그램만을 제공하고 있어 공공문화복지시설은 민간문화시설보다 시민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한다. 현재 주부나 초등학생으로 한정된 수혜 대상을 더 많은 시민-특히 직장인, 장애인,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도 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과 시설간의 문화네트워크 구성 및 구성을 위한 수단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주민과 공공문화서비스의 공동생산과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화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연구는 의의가 있다. 주민과 시설간의 문화네트워크가 구성되어 많은 시민이 시설을 이용을 하고,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면-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자로 시설운영이나 프로그램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문화예술동호회를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등 문화예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무료 공연사업을 하는 등-,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이라는 행정능력의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지역문화공동체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정보접근성 제고, 문화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 시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의 활성화, 지역문화공동체형성을 위해 문화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며, 특히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새로운 도구인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구축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문화네트워크 구성하고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인 생활문화분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고 주로 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 문화복지시설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주민간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었다. 주민과 시설간, 시설과 시설간, 주민과 주민간 등 네트워크 주체간의 온라인·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 실태를 먼저 분석하고 현재의 네트워크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네트워크 구성 및 증진방안을 모색하였고, 특히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연구는 추진단계 및 조직까지 상세하게 다루었다.

제 2 절 연구내용

1. 연구의 주요 개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화네트워크”와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네트워크의 정의

문화네트워크란 네트워크화 경향 속에서, 네트워크화 시대에 맞게 문화적 자원을 공유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성의 높이는 동시에 문화활동을 촉진, 문화의 발전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하는 기반을 말한다. 즉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하나의 연결세트로 공유함으로써 종합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문화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2)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정의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는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형태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부의 켄치넷21이나 뉴멕시코 문화정보망을 들 수 있다.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는 오프라인에 비해 시민의 문화정보접근성과 커뮤니케이션 확대 및 커뮤니티형성을 쉽게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문화복지시설과 주민, 주민과 주민, 시설과 시설 등 문화네트워크의 주체간 오프라인·온라인 네트워크의 구성 및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문화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네트워크의 구성 및 구성전략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각각의 문화시설을 연결하여 종합적인 문화의 접근창구 및 연결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여건과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의 특질을 고려할 경우, 단순한 문화시설 및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서는 그 목적을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단순히 문화시설과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아닌,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가진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즉 일차적으로는 문화시설과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며, 둘째, 문화시설과 행정시설, 복지시설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셋째, 지역민과 문화시설을 결합하여 종합적인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화자원과 문화요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네트워크의 구성방안 및 구성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둘째, 문화네트워크는 단지 네트워크 구성에 목적이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문화활동 및 문화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문화시설들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문화활동 창출 방안에 대해서 토의해 보고자하며, 마지막으로 온라인 공동체 활동 및 문화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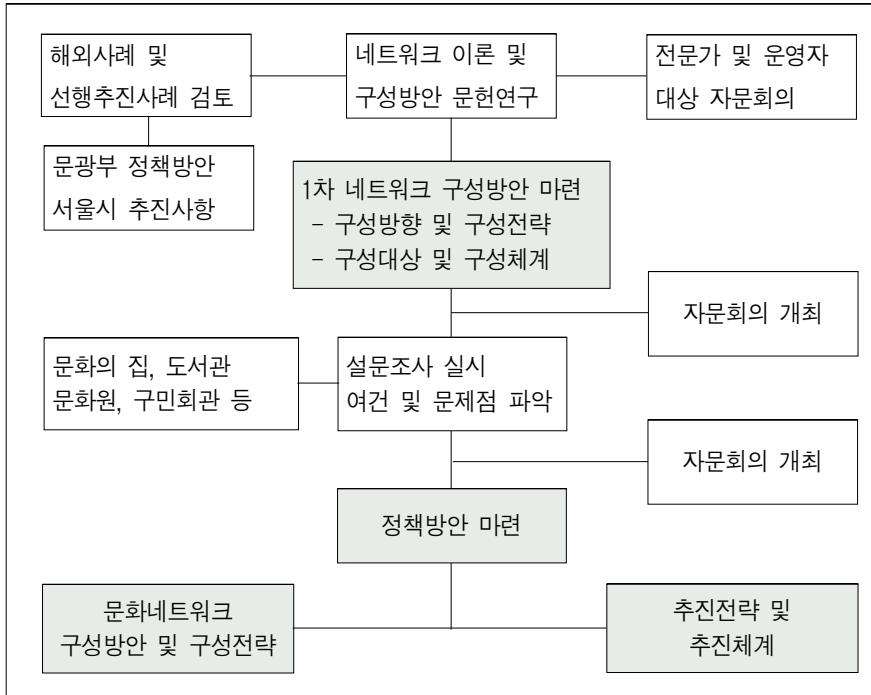
제 3 절 연구방법 및 연구모델

먼저 문화네트워크 구성 및 구성을 통한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연구자 및 서울시 문화정책 관계자, 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총 4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를 통해 문화네트워크의 구성목적 및 구성방향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고, 시설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네트워크의 현실적 여건 및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문화네트워크의 현실적 여건 및 문제점에 대해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자 시설운영자들의 자문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총 40개 시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반적 운영상태를 모니터 한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설문지를 통해 서울시 문화복지시설의 거의 전수인 101개 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 및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정책 방안(정책 요구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셋째, 또한 외국의 문화정보네트워크 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문화인프라종합정보네트워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모델

제 4 절 선행연구의 검토

네트워크 구성 및 구성방안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기업에 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만 평생교육과 사회복지, 청소년 등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연구되었을 뿐이다. 그간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희연 외의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정부와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김희연 외(2002)는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지방정부와 사회복지관의 관계를 중심으로”에서 ‘지방정부와 사회복지관의 관계’를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상

호작용적 특성은 행위자들의 관계내용(relation content), 상호호혜성(reciprocity), 상호작용의 빈도, 네트워크의 지속성 등 4가지 분석지표로 분석하였다. 구조적 특성은 행위자들간의 연계방향성, 행위자들간의 거리(distance), 네트워크의 확장(dispersion)정도 등 3가지 분석지표로 분석하였다.

<표 1-2> 네트워크 특성의 분석지표

특성	변수	분석내용	조작적 지표
상호작용적 특성	행위자들간 관계내용	법규정에 근거하여 연계내용 분석	위탁계약, 보조금 지급, 지도·감독
	행위자들간 상호호혜성 정도	자원이 이동한 횟수	예산지원횟수, 보조금 비율
	상호작용의 빈도	접촉빈도(1년동안)	관리·감독횟수 및 비공식적 접촉
	네트워크 지속성	관계를 지속해온 기간	사회복지관 건립연도
구조적 특성	행위자간 연계방향성	자원의 이동·흐름방향이 양방향인가, 일방향인가	자원이나 서비스의 제공방향
	행위자간 거리	물리적 거리로 측정	자원이나 관리·감독의 도달 단계
	네트워크 확장정도	각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밖의 행위자와의 연계정도	지방정부외의 다른 행위자와의 연계

이희수 외는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및 활성화의 성패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체제 구축·운영방안을 제시하여 평생교육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는 네트워크 효과인 자원활용의 극대화라는 측면을 높이 평가하여 먼저 기관간의 네트워크의 실태를 파악하고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네트워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계협력(네트워크)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부족,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활성화 미흡, 평생교육기관간 경영자들의 인식부족, 상호간의 신뢰부족, 기관간 네트워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연계의 거점으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관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 방향으로는 평생교육의 지역화, 공적 평생교육 인프라 구조의 확충, 평생교육 가용시설의 재구조화와 부처간 Big Deal 추진, 평생교육자

원개념의 확산적 정의 및 적용, 자주적인 학습서클 육성을 통한 평생학습문화진흥, 전문인적자원인 평생교육사 배치의 강화, 관련 공무원 및 운영자의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이 설정되었다.

위와 같은 조직간의 네트워크 분석 외에 정보공유를 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상의 공간에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가 몇 가지 있었다.

황진구 외(2000)는 『청소년기관정보화실태와 DB·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에서 정보화로 인해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는데 타분야에 비해 청소년분야는 정보화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면에서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이유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기관이나 전문가 등의 정보화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보화라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관련기관의 정보화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청소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기관과 같은 정보생산·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구축은 온라인상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한정되고 있다. 즉 기관이나 전문가, 청소년 등 청소년정보의 생산자 내지는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보의 질적 수준과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① 청소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의 개념과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 ② 청소년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청소년기관과 전문가의 정보화수준과 정보선호도 파악, ③ 위에서 연구된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정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가 현실적으로 어떤 모형을 기준으로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였다.

<표 1-3> 청소년 문화정보네트워크의 연구내용

연구목적: 청소년 관련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청소년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연구내용		
①청소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개념에 대한 논의	②청소년관련기관 및 전문가집단의 인터넷 이용실태와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서비스 항목에 대한 선호도 조사	③청소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의 모형개발과 실질적으로 현재의 단계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실시방안, 향후 청소년정보데이터베이스화와 네트워크 구축방안

유승호 외는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에서 문화인프라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연구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각각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될 때, ① 정보활용의 효과가 배가되고, ② 필요로 하는 정보가 한자리에서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 국민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고, ③ 개별 문화기관에서 수행하는 문화정보화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기관내와 기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조직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킨다고 언급하면서 문화인프라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문화인프라네트워크 구축의 세부추진내용으로는 ① 문화정보의 표준화 및 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축, ② 기관과 국민에게 유용한 문화데이터베이스 구축, ③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문헌은 모두 정보화수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지적하고, 국민의 문화정보접근성과 관련시설의 업무능률향상을 위해 인터넷상의 문화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유되어야 할 DB내용, 네트워크사업추진주체, 구축방향 등 현실적인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내용은 현실적으로 인터넷상 정보네트워크인 청소년DB네트워크(<http://db.youthnet.re.kr/default.html>), 컬처21(<http://www.culturenet.or.kr/>)으로 구축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문화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연구된 논문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논문 또한 기술적 수준에서 문화정보화 및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사이트 구성방안 및 DB 구성방안을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연구성과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DB화나 온라인 정보제공과 같은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문화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모아보고자 한다.

第Ⅱ章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논의

제 1 절 문화네트워크의 개념과 구성의 필요성

제 2 절 문화네트워크 구성방향과 전략

제 3 절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효과

제 II 장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논의

제 1절 문화네트워크의 개념과 구성의 필요성

1. 문화네트워크의 개념

사전적 의미에서 네트워크란 ① (운하·철도·전선·혈관 등의) 망상(網狀) 조직, 연락망; (상점 등의) 체인, ② 【라디오·TV】 방송망, 네트워크, ③ 【통신컴퓨터】 통신망, 네트워크 (컴퓨터나 단말 장치프린터전화 등이 통신 회선 또는 케이블로 접속되는 시스템)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래 “①에 방송망을 설치하다; 방송망으로 방송하다, ② 데이터전송, 프로세싱 능력의 공유 또는 부하의 공유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하고, 많은 장소로부터 접근할 수 있도록(다수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③ 널리 배포하다, 자동사로는 (직업상 도움이 되는) 그룹을 형성하다”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네트워크는 직물이나 그물과 같이 망(網) 모양으로 사람과 자원을 연결한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였으나,⁵⁾ 오늘날에 있어서는 인간간의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조직의 형태와 구성의 원리로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⁶⁾

네트워크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하다’는 용어로 방송망의 설계에 사용되던 용어는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인 용어로서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터넷의 특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960년대 소련의 핵공격의 위협으로부터 군사적인 커뮤니케이션망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인터넷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비선형의 그물형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원조인 알파넷(ARPAnet)을 기획했던 당시 폴 바란(P.Baran)은 「분산된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On Distribution)란 보고서를 통해 “분명한 명령이나 통제의 지점은 없지만, 어느 한 지점이 공격받는다 하더라도 연결망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제안한다”라며, 알파넷의 주요한 원리로서 분산과 배치를 그 원리로 제시하였다. 즉 켈

5)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 박용관, 『네트워크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p129~130

6) 박용관, 『네트워크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p129~130

리포니아 대학(UCLA), 스탠포드 대학(SRI), 산타바바라 대학(USCB), 유타대(Utah) 등 슈퍼컴퓨터가 있던 당시 주요 4대학의 컴퓨터를 연결, 각 지점에 정보를 분산시키고 네트워크를 통해 비선형적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알파넷의 계획이었다.⁷⁾ 이 계획으로부터 인터넷이 나왔다. 즉 비선형적인 연결망 속에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접속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늘날 네트워크의 주요한 특징인 정보의 분산과 공유, 그리고 상호작용이 나왔다.

둘째, 인터넷은 철저히 사용자 중심형 네트워크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적인 바와 같이 각각의 지점에 정보를 분산 배치하고, 상호작용 하도록 설계(Client-Server System)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은 각각의 지점에서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생산과 소비다.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주인이며, 자기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정보를 생산하고 수용한다. 사용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이 인터넷의 주요한 두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인터넷의 특징은 다양한 언어체계를 통해 정보에서 오락,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과 관계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을 기본어로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은 다양한 형태의 소스-문자, 그림, 동영상, 소리 등-를 하나의 텍스트 안에 결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로 손쉽게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오늘날 디지털 콘텐츠 산업군이 형성되고,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며, 온라인 공동체의 활동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모두 이와 같은 편리한 언어체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탈중심형의 수평적 네트워크로 발전한 인터넷이 사회적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점차 정보제공의 중요성과 네트워크화가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공동체에 기반을 둔 정보의 독점과 분산이 중요했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각각의 지점에 분산된 자원을 어떻게 통합하고 공유할 것인가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화란 그와 같은 정보의 분산과 배치, 공유에 대한 것으로서 오늘날 사회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새로운 원리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7) 라도삼, 『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p.129

다른 한편으로 Nadel과 Michell 등과 같은 문화인류학자들은 개개인의 속성이 아닌, 개인간의 관계인 상호연결의 특질에 주목하여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해석하면서, 네트워크를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관계의 연결세트’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Lipnack와 Stamp는 ‘네트워크란 전체의 아이덴티를 유지하면서도 상호작용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전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화란 각각의 특질을 상실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연결망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네트워크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의 형태는 점차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원의 분산과 공유, 수평적인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 가변적이고 유연하며 가상적인 공동체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화를 중시하는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전한 하부구조(infra)를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문화네트워크란 바로 이런 네트워크화 경향 속에서, 네트워크화 시대에 맞게 문화적 자원을 공유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성의 높이는 동시에 문화활동을 촉진, 문화의 발전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하는 기반을 말한다. 즉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하나의 연결세트로 공유함으로써 종합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문화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무엇을 연결하고 무엇을 통합할 것이냐다. 또한 어떠한 경로로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적 여건에 비추어, 서울시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즉 서울시의 여건과 현실을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만의 독특한 네트워크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네트워크의 구성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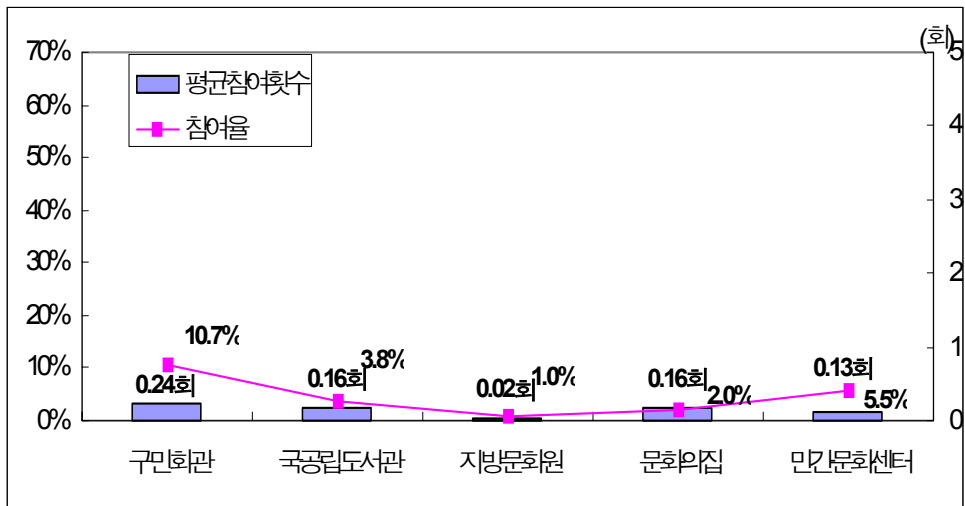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의 구성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해

진다. 그 하나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중요해진 네트워크화의 필요성에 대응하자는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발전한 인터넷을 활용,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해보자는 것이다.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네트워크화의 필요성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는 점차 네트워크화 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2002년 조사한 『정보화실태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이 60.1%에 달하고 있으며, 6세 이상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중 94.3%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 발전에 맞추어 우리 사회는 급격히 인터넷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모든 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웹사이트를 향해하며, 웹을 통해 정보를 올리고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115만개, <프리챌>에 80만개, <세이클럽>에 95만개에 달할 정도로 수많은 온라인 공동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문화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공동체를 구성하며, 실질적인 문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벌여 나가는 것이다. 즉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네트워크는 발달한 인터넷을 활용, 문화의 무한한 자원을 연결하고 공유하도록 만드는 정책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서울시의 현재적 여건 또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는 현재 다양한 문화적 자원이 여기 저기 널려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시설이나 문화활동 등은 대부분 활용되지 못한 채 시민들의 외면 속에 제자리를 찾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원이 2002년 상반기에 조사한 <서울시민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 조사> 결과, 문화복지시설 참여율은 대부분 10% 이하로 나타났는데,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보를 몰라서’와 ‘시간이 없어서’를 그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림 2-1> 문화복지시설 문화프로그램의 참여율과 평균참여횟수

자료: 『서울시민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 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 68

<표 2-1> 지역문화복지시설내 프로그램 비참여 이유

단위(%)

사유 시설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정보를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비용이 없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기타
구민회관	13.7	31.9	47.1	3.1	2.5	1.7
국공립도서관	13.8	31.5	41.0	3.0	9.2	1.4
지방문화원	11.9	42.4	36.4	3.1	4.9	1.3
문화의 집	15.4	37.8	38.7	4.3	2.3	1.5
민간문화센터	10.2	29.6	42.9	12.0	4.1	1.1

자료 : <서울시민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 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71-75

이런 현실에서 문화네트워크 구성은 정보의 공유와 제공이란 차원에서 우선 구해진다. 즉 시민들이 문화정보를 제공받고 문화서비스의 접촉기회를 늘리며, 실질적인 문화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문화네트워크 구성인 것이다.

둘째,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망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도 네트워크화의 필요성은 제기된다. 현재와 같이 각각의 시설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예컨대 A라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경우, A라는 도서관에서만 서비스 받

을 수밖에 없으며 만약에 A라는 도서관에 필요한 책이 없으면, 서비스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적 여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아 각각을 네트워크화한다면 조건은 달라진다. 어느 도서관에서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도서관에든 본 책을 반납하면 된다. 문화네트워크는 각각의 지점에 분산되어 있는 시설 및 자원을 활용, 종합적인 서비스 망을 구축, 어느 지점에서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문화활동을 결합하는 시스템 마련이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에는 다양한 문화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적인 집단에 의한 활동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활동가들에 의한 활동 또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문화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시킴으로써 다양한 문화활동을 촉발시키고, 문화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네트워크란 이런 다양한 문화활동과 자원, 사람들을 연결시킴으로서 문화활동 전반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넷째, 부족한 자원의 공유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실상 서울시 전역에 다양한 문화시설 -특히 지역문화복지시설- 을 건립했지만,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급자와 소비환경을 고려한 차원에서 건립한 시설이 아닌, 정책적 지표적 관점에서 건립한 시설이 대부분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대부분 전문적인 운영진 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정보화하고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인력과 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개방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터넷을 기반으로 점차 유무선으로 온라인화 멀티미디어 환경시스템에 적응하자는 차원도 있다. 정보환경의 발전은 점차 3A, 즉 언제(Any time), 어디서든(Any where), 어떤 것으로든(Any device)를 중심으로 유비쿼티스(Ubiquitous)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모든 기기를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기기가 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가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문화정보를 디지털화 하고, 멀티미디어 자원화 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환경 및 온라인 환경에 조율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네트워크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문화활동 촉진하고, 점차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발전하는 현실적 추세에 대

응하는 차원에서 문화네트워크는 필요하다 하겠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여건변화와 네트워크화의 중시, 자원공유를 통한 효율성 제고, 대 시민문화정보 서비스의 제공, 문화활동을 촉진하는 문화공동체의 형성, 멀티미디어와 온라인화 된 사회시스템 환경에 적응 차원에서 문화네트워크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제공한다 하겠다.

제 2 절 문화네트워크 구성방향과 전략

1.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형태

문화네트워크의 구성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다. 그 내용에 따라 문화네트워크의 구성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부 인프라에 따라 : 온라인 네트워크 / 오프라인 네트워크

우선 하부 인프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온라인 방식은 근거리통신망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보의 공유성 및 공개성,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성, 확장성,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과 문화활동의 활성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선 온라인 네트워크는 정보의 제공과 공유차원에서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네트워크를 통해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항상적인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

둘째,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문화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넷 상에는 현재 수많은 공동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공동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기본적 특성인 대화와 상호작용성을 활용,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온라인화 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멀티미디어를 통한 직접적인 문화활동 촉진 및 강좌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재 온라인 네트워크의 발전은 유선 네트워크에서 유무선을 결합한 네트워크로, 문자중심의 방식에서 그림과 동영상을 결합한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컴퓨터 중심에서 다양한 기기가 디지털로 통합(digital convergence)되고 네트워킹되는 유비쿼티스(ubiquitous) 컴퓨팅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유무선 서비스, 다양한 정보기기 및 가전기기를 활용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정보제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문화네트워크의 구성방향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또한 각각의 지역이나 공연장, 전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컨텐츠를 자원화함으로써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 대해 기여함은 물론, 각종 지역축제나 문화행사, 이벤트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컨대 홍대 앞에서 매월 4째주 금요일날 열리고 있는 ‘클럽데이’를 컨텐츠화하여 인터넷에 제공함으로써 ‘클럽데이’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클럽데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컨텐츠 자원으로서 활용가능한 것이다.

다섯째, 자원의 네트워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문화 컨텐츠 DB에 맞게 문화자원을 데이터베이스로 형성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며,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프로그램 등을 링크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우리 나라 지역문화복지시설들의 현재적 여건이 필요한 장비와 인력, 프로그램의 부족에 있다할 때, 문화네트워크는 부족한 자원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극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 네트워크는 분산된 정보를 모으고,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 상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는 네트워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인 서비스는 오프라인 상에서 연결되었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즉 온라인 상만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해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종합적인 서비스는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프라인의 자원을 온라인을 통해 연결하고,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자원을 형성하며, 오프라인을 통해 자원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 때, 문화네트워크는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2) 서비스 유형에 따라 : 정보서비스 중심형, 콘텐츠 중심형, 커뮤니티 중심형

문화네트워크의 구성방식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보서비스 중심형, 콘텐츠 중심형(혹은 프로그램 공유형), 커뮤니티 중심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서비스 중심형은 종합적인 문화예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즉 문화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야후(yahoo)나 네이버(naver)와 같은 유형의 사이트를 포털형 사이트로 분류할 수 있다. 포털형 서비스의 장점은 문화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기업이나 집단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최소한의 전문지식을 갖춘 적어도 20명 이상의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여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콘텐츠 중심형(혹은 프로그램 공유형)은 다양한 문화관련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이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한다. 단편적인 정보제공 방식과는 달리 이를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보서비스 중심형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지역 내 많은 문화활동 및 문화행사, 문화프로그램을 인터넷 상으로 보여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가정에서 편하게 접속하여 참여토록 함으로써 다수의 참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운영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또 많은 용량의 서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커뮤니티 중심형 구성방식은 온라인 상에 게시판이나 채팅 공간을 제공, 온라인 공동체의 활동을 촉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음(Daum)이나 프리챌(Freechal), 세이클럽(Sayclub)과 같은 사이트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형 구성방식은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소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간단한 게시판이나 채팅창을 개설함으로써 커뮤니티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그 운영을 각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인력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형 구성방식은 다양한 콘텐츠와 커뮤니티 구성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커뮤니티 구성을 바랄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커뮤니티형 구성방식은 정보제공서비스형과 결합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보서비스 중심형, 콘텐츠 중심형, 커뮤니티 중심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그 유형은 단지 유형에 따른 분류일 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분류는 아니다. 즉 포털사이트는 커뮤니티형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건 단지 분류일 뿐, 현실적인 구성방향은 서로를 조합해서 구성해야 한다.

3) 구성 대상에 따라 : 문화시설 네트워크, 지역 공공시설 네트워크

구성대상에 따라 문화네트워크는 문화시설과 시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문화시설과 지역 공공시설(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 행정시설 등)을 연결하는 지역 문화-복지-행정서비스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시설과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각 문화시설간의 정보와 프로그램 공유, 그리고 소비자인 문화서비스 수혜자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즉 각 문화시설간 네트워크화를 통해 시설간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필요한 장비나 인력(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운영인력),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한편, 공동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시설이용도 및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 인접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게 하거나 인접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때문에 문화시설 네트워크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어 문화시설과 여타의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지역 문화-복지-행정 서비스 네트워크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복지-행정 서비스 네트워크는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행정시설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어떤 시설에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각 구청을 중심으로 필요한 시설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어느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각 시설을 연결, 종합적인 지역 서비스망으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네트워크는 문화시설과 시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이자 지역의 서비스 체계를 연결하는 종합 서비스 망으로서 기여할 것이다.

4) 구성방식에 따라서 :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구성방식에 따라서는 ‘위로부터의 방식’(Top-down) 방식과 ‘아래로부터의 방식’(Bottom-up)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로부터의 방식’은 서울시가 포맷을 설정하여, 각 시설을 통합된 방식으로 네트워크 시키는 방식을 말하며, ‘아래로부터의 방식’은 각 시설에서 네트워크를 구성,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방식을 말한다.

‘위로부터의 방식’은 효율적인 서비스 시스템 구성과 통합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이란 측면에서 뚜렷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일정한 포맷에 기초해 네트워크를 만들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연동되도록 구성할 수 있으며, 특정한 지점에 서버시스템을 구축, 통합적인 서비스 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지만, 각 지역별 특성이나 현실적 여건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반면에 ‘아래로부터의 방식’은 시스템 구성이 늦고, 비용이 많이 들며, 호환성이 낮아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추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각각의 문화시설이 자신의 현재적 여건과 지역 사정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 내실 있는 네트워크 구성과 공동체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불과 2-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적 상태의 문화복지시설 여건을 볼 때,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추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2. 네트워크 구성의 단계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단계는 ① DB단계 ②시설 별 웹사이트 구성 및 네트워크 구성 ③시설 간 프로그램 교류 및 문화공동체의 형성 ④지역 공공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성 ⑤종합적인 문화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그 단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단계로 각 시설의 현황을 DB로 만드는 것이다. 시설 현황 DB에는 우선 ①각 개별 시설의 장비 및 인력, ②프로그램 현황, ③문화활동 현황, ④이용자 정보현황 등이 들어가야 하며, 별도로 해당 자치구의 문화활동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시설 등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입력될 필요가 있다. 전자의

DB는 각 문화시설에서 만들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 지역 내 문화시설에서 공동으로 DB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단계는 각 시설별로 웹사이트를 구성하여 작성된 DB를 네트워크 상에 올려놓는 네트워크화 단계로 구성된다. 네트워크화 단계에서는 우선 해당 DB를 바탕으로 웹페이지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 및 문화전문가(활동가)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웹사이트 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의 제공측면이다. 각 시설 웹사이트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 주민 및 관련 문화단체, 문화활동가 등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주민들에게는 문화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한편 문화전문가나 문화활동 단체들은 각 시설에 대한 정보를 통해 시설 이용정보와 시설 이용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상호작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웹사이트는 그 자체가 정보제공 사이트이자 사이트를 매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장이다. 즉 지역주민과 문화단체 및 활동가, 그리고 문화시설이 대화하는 장으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며, 지역주민과 관련 문화단체 및 문화활동가, 문화시설 관계자가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셋째,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각각의 웹사이트는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실상 네트워크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각 시설에서는 웹사이트를 구성함에 있어 서울시 전역의 동종 문화시설과 지역 내 문화시설, 그리고 지역 내 여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과 항상 링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처럼 웹사이트는 하나의 거점(node)이자 터미널(terminal)로서 존재한다. 다시 말해 각 정보가 모아지는 거점이자, DB를 통해 재분류되어 각 지점으로 정보가 방사되는 거점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원활한 정보성과 커뮤니케이션성을 발현하도록 구성할 것인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웹사이트를 배경으로 지역 내 문화공동체를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단계다. 문화공동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창출할 수 있다. 우선 문화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 주민과 강사(문화전문가)를 연결한 “프로그램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지역 내 소규모 문화활동 관련 모임을 문화시설 웹사이트로 끌어들이므로써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 문화활동모임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셋째, 오프라인 활동 없이 온라인 상에서 필요한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온라인형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공동체와 문화활동 모임과 연결하거나, 다른 문화시설 공동체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공동체는 실질적인 문화활동 촉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 지역민에게 필요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만듦으로써 문화시설을 실질적인 지역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구성된 네트워크와 문화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역 공공시설과 연결,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지역공동체 구성단계”를 말한다. 지금 현재는 각 구청을 비롯한 행정시설 별로 각 사이트를 링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종국적인 측면에서 문화네트워크는 지역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상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역문화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항시적인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활동을 촉발하며, 주변 시설과의 네트워크 관계 유지를 통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문화공동체를 구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단계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동과 소비자의 심리에 적합한 콘텐츠의 제공, 문화활동 및 문화공동체 활동의 촉발 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상 대부분 문화네트워크는 제3단계인 문화공동체 단계에서 마무리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각 시설 별 문화네트워크는 우선 정보의 제공과 시설 간 네트워크의 구성, 그리고 시설 내 프로그램과 온라인 활동을 연결하는 문화공동체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까지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온라인 공동체를 구성, 지속적인 문화활동을 촉발하는 것이 바로 현 단계의 과제인 것이다.

3.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역할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문화시설 운영자와 문화전문가, 지역주민, 그리고 행정 및 공공시설 관계자 등 지역-문화네트워크 구성 관련 집단이 모여 각각의 역할을 구성하고, 필요한 역할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각 관련자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시설 운영자는 문화네트워크의 구성의 핵심을 차지한다. 자체 DB 구축 및 웹사이트 운영을 책임지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을 통해 문화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연결하고, 시설과 시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해 문화활동 전반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둘째, 문화전문가는 문화네트워크 촉매자로서 역할한다. 문화전문가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프로그램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구성과 문화활동 등을 유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매개로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 연결, 네트워크로 구성함으로써 지역을 망라한 프로그램 공동체를 구성, 필요한 문화활동을 촉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주민은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문화활동을 수행하며, 필요한 문화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문화활동의 중심은 지역주민에게 있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활발한 문화공동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공공시설 및 행정시설 담당자들은 문화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의 경우, ①전국적 단위의 문화네트워크 구성 ②문화컨텐츠 구성, 그리고 ③문화관련 정보의 DB 구성 및 온라인 정보화, ④문화정보관련 온라인 포털 서비스 등의 운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지역시설 보다는 공공적인 문화-예술활동(전시예술과 공연예술 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각 문화활동을 지역문화시설과 연계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 즉 서울시의 경우, 지방정부차원에서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①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공동서버를 구축한다던가, ②문화복지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및 문화공동체를 조성해야 하며, ③문화전문가와 문화시설 관계자를 연결하여 지역 문화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공동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공동운영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④지역 문화네트워크 구성 사업에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⑤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촉발시켜야 한다.

해당 구의 경우, ①지역적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②지역 내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고, ③지역 내 문화공동체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각 해당 구의 경우, 문화네트워크의 중국적 목적이 문화활동

촉진 및 지역공동체 구성에 있다고 할 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에 기반한 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각각의 해당 주체는 필요한 역할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협력관계 모색을 통해 문화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공동체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문화네트워크는 실질적인 지역네트워크로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효과

네트워크 구성의 가장 큰 효과는 주민과 시설, 시설을 매개로 한 주민과 문화전문가, 주민과 주민, 그리고 주민과 지역정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증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두 번째 효과는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시설과 문화자원, 문화활동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내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 및 관련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세 번째 효과는 각 지역시설 및 문화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냄으로써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촉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네트워크의 네 번째 효과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온라인 정보로 제공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 내 다양한 지역 주민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처럼 문화네트워크 구성효과는 ①커뮤니케이션의 효과, ②참여 유발효과, ③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시설 운영효과, ④그리고 다채로운 정보 서비스의 제공 등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문화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하는 각 집단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시설 측면

1)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

우선 문화기반 시설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주민들의 욕구와 수

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문화네트워크는 문화시설과 지역 주민을 연결함으로써 대화와 공동체 구성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주민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문화활동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네트워크는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촉진하는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2) 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

문화시설 측면에서 문화네트워크 또한 시설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 그리고 투명한 운영을 제고하도록 만든다. 우선 각 문화시설의 시설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자료현황, 프로그램 현황, 참여자 현황 등을 DB로 구성함으로써, 문화네트워크는 부족한 시설 및 장비, 자료, 프로그램 등의 교류를 가능케 한다. 쉽게 말해 부족한 시설 및 장비, 자료가 있을 경우, 인근 시설로부터 네트워킹받을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이 원할 경우,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링크시켜 줄 수 있다.

다른 한편 문화네트워크는 지역 내 문화집단 및 문화단체에게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문화복지시설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활동의 거점으로서 지역 문화활동 자체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수많은 문화공동체들이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지역에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문화활동의 실태를 연구한 『사이버문화활동지원방안연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에 따르면, 대부분 온라인 단체들은 오프라인 모임 장소로, ‘카페 등 상업시설’(415건, 32.12%), ‘회사(사무실)’(21건, 1.63%)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1,292건 중 16.33%인 2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화복지시설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인터넷으로 발전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지 못하는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네트워크는 시설운영의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2. 주민측면

1) 정보서비스 접근권 향상으로 폭넓은 정보서비스 혜택

주민의 관점에서 문화네트워크는 우선 활발한 정보서비스의 이용 및 각종 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대부분 지역 주민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문화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문화시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은 실상 자기지역에서 문화행사가 열려도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네트워크의 지역에 대한 정보와 문화 정보, 그리고 문화시설 내 프로그램 정보와 시설 이용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보나 나은 문화활동을 촉진받을 수 있다.

2) 질 높은 서비스 혜택

두 번째로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자면, 지역주민은 문화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온라인을 통해 지역 내 문화시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로 온라인 상에서 서비스 받을 경우, 문화시설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필요한 자료가 없을 경우, 인근 시설로부터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쉬운 예로 대학도서관이나 시설이 연계될 경우, 지역 주민은 지역 내 도서관에는 없는 도서정보에 대해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며, 지역 내 시설에서 모임을 개최하거나 특정한 문화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 해당시설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 여타의 문화시설에서 수강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가능케 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문화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현재와 같이 독립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의 경우, 사실상 지역 문화복지시설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 우수한 프로그램도, 질 좋은 강사의 개발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각

시설을 네트워크하여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순차적으로 순회시킬 경우 종국적으로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네트워크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3) 문화공동체의 형성

문화네트워크 형성은 궁극적으로는 문화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 주민간의 교류와 문화활동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내 주민활동을 촉발시킬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문화활동을 유발할 것이다.

3. 문화예술인력 측면

문화예술가 측면에서 문화네트워크 구성은 실질적인 활동기회를 확장시킬 것이다. 현재까지 대부분 문화시설에서 호소하는 부분은 부족한 강사의 문제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한 강사와 프로그램을 연결시키지 못한데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 사실상 문화예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는데서 오는 결과는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 예술인력은 마땅한 직업을 갖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네트워크는 문화전문가와 문화복지시설을 연결시켜, 문화전문가들의 활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공동체를 구성, 문화활동을 촉발시키는 주체로서 활동하도록 만들 것이다.

4.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측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화네트워크 구성은 우선 지역 네트워크 구성이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지역네트워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행정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공공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민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다. 이 네트워크와는 달리 문화네트워크는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 간다.

사실 문화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은 문화네트워크가 포함하고 있는 개념적 함축성

<표 2-2> 예술가들의 예술활동 관련 연평균 수입

	2000년 조사	2000년 조사(만원)		1997년 조사 (만원)
	수입이 없는 비율	전체대상	예술활동수입관련자대상	
전체	18.1%	126.8	154.8	118.2
문학	43.1%	16.1	28.4	28.3
미술	27.6%	55.8	77.1	54.9
사진	58.6%	27.0	65.1	41.2
건축	11.3%	272.4	307.1	385.6
국악	4.5%	105.3	110.3	55.9
음악	5.8%	115.5	122.6	80.3
연극	7.8%	94.7	102.7	61.4
무용	2.0%	94.5	96.4	85.2
영화	6.5%	142.6	152.6	137.2
연예	10.3%	350.7	391.2	270.9

자료: 『2000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때문이다. 일반적인 행정네트워크는 주민적 요구를 대변한다. 다시 말해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행정네트워크란 점이다. 다른 한편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은 지역 사회 전체 주민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즉 노인이나 청소년 등과 같은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문화네트워크는 지역 내 전(全)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특히 문화네트워크는 특정한 민원사항이 아닌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향시성과 개방성, 네트워크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네트워크는 지역 공동체가 붕괴된 현실에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지역네트워크로 기여할 것이며, 지역을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과 활동(activity)을 가진 지역으로 변모시켜 나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정부에 기여하게 된다.

다른 한편 문화네트워크는 지역 내 공동체 의식을 복원시킬 것이다. 공동체의식이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연대의식에 기초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함께 해결해 가는 참여하는 의식을 말한다. 문화네트워크는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문화적 현황 및 실태에 대해 파악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체로서 지역의 의미를 되살릴 것이다. 특히 문화공동체란 광범위한 지역 단위의 구성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지역공동체이자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第 III 章

국내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성사례

제 1 절 해외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사례

제 2 절 국내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사례

제 III 장 국내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성사례

제 1 절 해외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사례

그렇다면 각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선 덴마크의 문화정보망(kulturnet Denmark)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문화·레크레이션 포털(the Culture and Recreational Portal), 그리고 뉴멕시코주 문화정보망(New Mexico Culturenet)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덴마크의 문화정보망(Kulturnet Denmark)

kulturnet Denmark는 <IT political Action plan>에 의해 1995년부터 추진되었다. 문화부 산하 정부기구들이 보유한 문화유산과 정부지원을 받는 문화기구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접근하도록 서비스하는 것, 모든 소장품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문화부 산하 기구들간에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문화정보망은 선정된 기구의 디지털화와 인터넷 보급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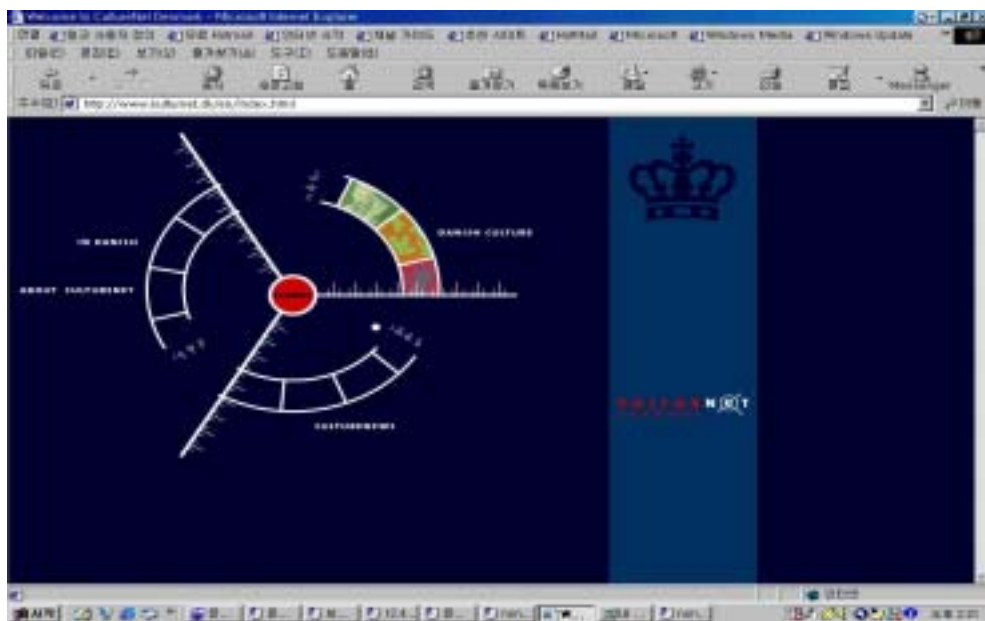
공식적인 운영은 문화부에 의해 1997년 4월 3일부터 시작되었고 전반적인 관리와 전략수립을 행하는 문화부 산하 기구의 대표들(9명)로 구성된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일상업무와 이벤트, 활동을 하는 실무진 및 서버운영을 하는 기술그룹들로 구성된 사무국(The Secretariat of CultureNet Denmark)이 덴마크 정보망을 운영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덴마크어와 영어로 서비스되며, 덴마크문화, 덴마크 문화캘린더(덴마크어 사이트에서만), 뉴스, 검색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문화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덴마크 문화항목아래는 기구별, 장르별로 범주화되어 있다. 기구별로는 박물관과 도서관과 고문서보관소와 교육기관을 하위범주화하였고, 다시 알파벳순서별로 범주화하였다.

장르별로는 건축, 고문서, 청소년 교육, 무용, 디자인, 필름과 사진, 문학, 음악, 연극

과 영화, 비주얼 아트, 라디오와 텔레비전, 출판, 기타 문화안내, 문화교류 등 1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14개 분야아래 다시 여러 개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건축분야의 경우 인터넷상의 건축기관, 박물관, 출판사, 도서관, 교육기관, 도서관, 보조와 지원기관, 국제적 기관 등의 항목으로 나뉘며, 음악분야는 인터넷상의 음악기관, 안내기관, 박물관, 콘서트홀, 오케스트라, 출판사, 도서관, 보조와 지원기관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나머지 12개 분야에도 세부항목이 그 분야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다르지만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의 문화정보망은 아동과 청년의 문화정보를 위한 중요한 교육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장르별로 다시 박물관, 도서관, 보조와 지원기관, 국제적 기관 등의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문화기구들을 체계적으로 링크 및 네트워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또한 장르별로 보조와 지원기관항목을 만들어 그 장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보조하는 기관을 링크시킨 것도 독특한 점이다.



<그림 3-1> 덴마크 문화정보망 홈페이지

2. 오스트레일리아의 문화·레크레이션 포털:the Culture and Recreational Portal

오스트레일리아 문화·레크레이션 포털(the Culture and Recreational Portal)은 1997년에 개시되었던 Australia's Cultural Network(ACN)에서 발전된 형태이다. 현재 레크레이션 분야를 추가하면서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분야와 관련된 많은 사이트들을 추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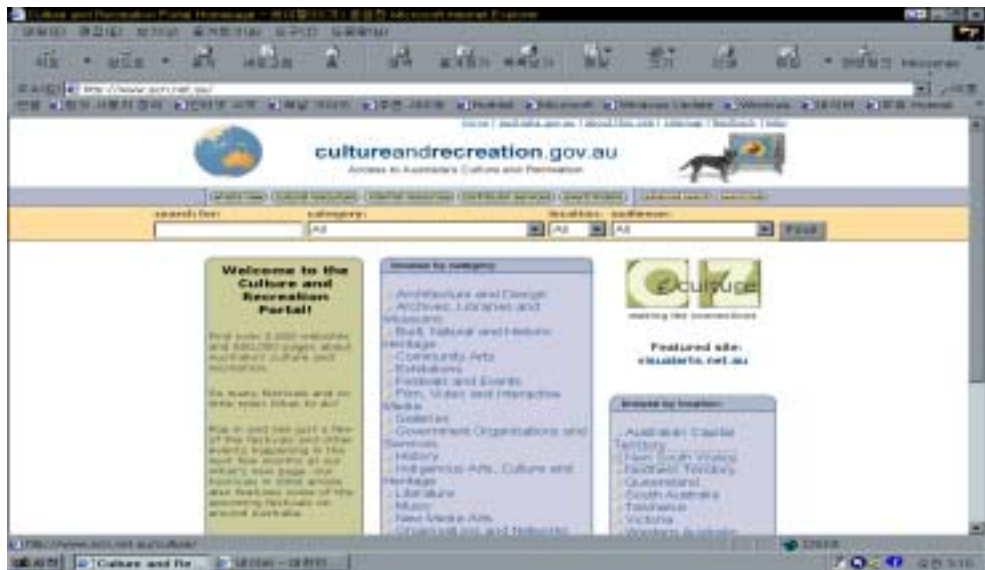
문화·레크레이션 포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문화와 레크레이션 분야에 대한 온라인상의 접근을 쉽게 함으로써 오스트레일리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고, 주요 목적은 ①오스트레일리아 예술과 문화 그리고 레크레이션에 대한 온라인상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사이트로의 발전과 ②문화산업과 다른 포털의 발전을 위한 자원이 되는 것과 ③포털에 링크된 사이트들의 문화조직의 온라인상 능력과 혁신을 돕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오스트레일리아 문화와 레크레이션 분야의 온라인 서비스 개발을 독려하며,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을 독려하는 스페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국내적·국제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문화에 대한 접근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운영주체는 오스트레일리아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과 예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에 의해 운영되고 문화·예술 자문위원회(The Culture and Recreation Advisory Committee: CRAC)는 문화·예술 포털의 성공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과 자문을 해준다.

홈페이지는 새소식, 문화자원, 인터넷 자원, 컨트리 뷰터 서비스, 이벤트 파인더(이벤트 캘린더), 검색, 문의, 뉴스레터 등록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항목은 여러 개의 하위 항목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00개 이상의 사이트(400개는 정부기관사이트, 1500개는 민간사이트)와 500,000개 이상의 스크린과 DB연동이 되어 있어 검색기능이 강력하며, 문화부문 보조와 서비스 DB(Cultural Sector Grants and Services Database)가 구성되어 있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원이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림 3-2> 오스트레일리아의 문화정보망

3. 미국 뉴멕시코주 문화정보망: New Mexico Culturenet

뉴멕시코 문화정보망은 1997년에 만들어졌으며, 뉴멕시코의 문화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임무는 ①뉴멕시코의 문화예술인, 장인, 문화예술전문가를 소개하고 지원하는 것, ②뉴멕시코 아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③교육자와 학생 그리고 평생교육수혜자(lifelong learner)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④문화예술단체, 학교, 정부기관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뉴멕시코 문화정보망의 운영조직은 1999년에 법인자격을 얻었고 현재 한 명의 총책임자와 한명의 웹마스터와 다수의 계약직 사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연방정부의 면세 조항에 적용받고 있으며, McCune Charitable Foundation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뉴멕시코 홈페이지의 주요 항목으로는 문화캘린더, 뉴멕시코 문화네트워크(문화예술인 및 전문가, 문화예술단체, 갤러리DB), 예술과 문학, 유산과 배움, 프로젝트Y(청소



〈그림 3-3〉 뉴멕시코주 문화정보망 홈페이지

년문화)가 있으며, 기타항목으로는 뉴멕시코편딩디렉토리, 메일링서비스, 문화넷유니폼 구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홈페이지의 언어는 영어로만 서비스된다.

역사문화 및 교육, 협력기관, 공연예술, 비주얼 아트와 디자인, 문학, 기타 등의 6개 범주로 나누어 총285개 사이트를 링크시켰다.

뉴멕시코 문화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문화예술인 및 문화전문가 DB가 구성되어 있으며, 또 한달에 한번씩 예술가 및 예술작품에 대한 소개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프로젝트 Y(청소년 문화코너), webslam(청소년 온라인 시장작콘테스트), 문화정보망에서의 청소년인턴쉽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워크샷지원 등 청소년 문화 활동과 교육에 힘쓰고 있는 점도 독특한 점이다. 또한 메일링 리스트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매주 시한편을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화를 접해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3-1> 해외 문화정보망의 비교

	KulturNet Denmark (덴마크)	the Culture and Recreational Portal(오스트레일리아)	New Mexico Culturenet (미국 뉴멕시코주)
목적	• 시민의 문화기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문화예술품의 디지털화와 문화기구에 대한 인터넷 보급 • 문화부 산하기구들의 협력증진	• 오스트레일리아 문화·레크레이션 분야에 대해 온라인상 접근을 쉽게 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인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여 문화공동체 형성 • 문화산업 등 다른 포털의 발전에 도모함 • 문화조직의 온라인상 능력과 혁신을 지원	• 뉴멕시코주의 문화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제고 • 뉴멕시코 문화예술인, 장인, 문화예술전문가를 소개 및 지원 • 뉴멕시코 아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 • 교육자와 학생, 평생교육수혜자에게 자료제공 • 문화예술단체, 학교, 정부기관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촉진
개시일	• 1997년 4월 3일	• 1997년	• 1997년
운영	• 비영리조직 • 추진위원회 (Steering Committee) • 운영사무국(The Secretariat of CultureNet Denmark)	• 정부조직 • 문화·예술자문위원회 •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과 예술부	• 비영리조직 • 운영조직(책임자, 웹마스터, 다수의 계약직 사원) • 연방정부의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음 • McCune Charitable Foundation에서 재정적 지원 받음
서비스 내용	• 덴마크문화, 덴마크문화캘린더, 뉴스, 검색 등 4개 항목으로 구성 • 덴마크문화아래 기구별로는 박물관, 도서관, 고문서보관소, 교육기관으로 범주화, 장르별로는 건축, 고문서, 청소년 교육 등 14개 분야로 구성 • 종합검색가능	• 새소식, 문화자원, 인터넷자원, 컨트리뷰터 서비스, 이벤트 파인더, 검색, 문의, 뉴스레터 등록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항목은 여러 개의 하위항목을 가지고 있음 • 종합검색가능	• 문화캘린더, 뉴멕시코 문화네트워크, 예술·문학, 유산과 배움, 프로젝트Y 등이 주요 항목임 • 뉴멕시코펀딩디렉토리, 메일링 서비스, 문화넷유품 구매 등의 항목이 있음 • 종합검색가능
DB연동	• 문화기구별, 14개 장르별 세부 항목안에 다수의 국내문화관련사이트 링크 • 장르별 국제문화사이트 링크	• 1900개 이상의 사이트와 링크 (400개의 정부기관사이트, 1500개는 민간사이트) • 500,000개 이상의 스크린과 DB연동이 되어 있음	• 역사문화 및 교육, 협력기관, 공연예술, 비주얼 아트와 디자인, 문학, 기타 등의 6개 범주로 나누어 총 285개 사이트를 링크
다언어 서비스	• 덴마크어, 영어	• 영어	• 영어
특징	• 아동과 청소년 문화정보교육기구로 활용 • 문화기구들의 체계적으로 링크 및 네트워크 • 장르별로 보조와 지원기관사이트 링크	• 검색기능이 강력함 • 문화부문보조와 서비스DB구성 (Cultural Sector Grants and Service Database)	•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전문가 DB구성 •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대한 소개코너 운영 • webslam, 청소년 인턴쉽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워크숍지원으로 청소년 문화활동과 교육에 집중적인 할애

자료: <http://www.kulturnet.dk/en>(덴마크 문화정보망), <http://www.acn.net.au>(오스트레일리아 문화·레크레이션 포털 사이트), 유승호,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 구성방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pp. 27~31, <http://www.nmcn.org>(미국 뉴멕시코주 문화정보망)

제 2 절 국내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사례

1. 문화관광부의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Culturenet.or.kr)

컬처넷21은 고도화되는 세계적 정보화 추세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문화의 전 국민적 확산을 기하는 동시에 전국 문화관련 기관들간의 정보교류를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문화관광부가 구축한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이다. 컬처넷21은 현재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의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27개 문화복지시설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800여 개 문화관련기관을 정보네트워크로 연결할 계획이다.

<표 3-2>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의 시범기관

문화시설의 종류	시설명
장애인문화센터	① 한국점자도서관
도서관	① 부산시립시민도서관 ② 정독도서관 ③ 충북중앙도서관
박물관	① 경기도박물관 ②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공연장	① 경기도 문예회관 ② 구미문예회관 ③ 대구문화예술회관 ④ 세종문화회관 ⑤ 순천문예회관 ⑥ 정동극장 ⑦ 춘천문예회관
단체	① 민예총 ② 예총
기관	① 전국문예회관연합회 ② 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③ 한국기업매세나협회 ④ 한국도서관협회 ⑤ 한국문화복지협의회 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⑦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지자체	①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
문화의 집	① 밀양문화의 집 ② 서대문 문화의 집 ③ 아산문화의집 ④ 정읍문화의 집

컬처넷 21은 다음과 같은 DB와 서비스 유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문화정보 DB

국내 주요 문화공간 DB,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프로그램 DB, 문화인물/단체 DB, 문화재원 DB, 각종 문화자료 DB 등 매우 다양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구축되어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정보를 기관간·이용자간 쉽게 검색

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맞춤정보 서비스 및 커뮤니티

컬처넷21에서는 이용자의 관심사항에 맞추어 문화프로그램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문화관련 기관 및 이용자간 정보 교류의 장을 열고자 문화기관 커뮤니티와 문화예술 동호회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③ 리뷰기사 및 온라인 도서구입

컬처넷21에서는 공신력있는 외부 매체와의 협력을 통해 심도 깊은 문화프로그램 리뷰와 문화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문화예술 서적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검색하고 구입할 수 있다.



<그림 3-4> 컬처넷21 홈페이지

현재 컬처넷의 경우도 다른 공공시설의 홈페이지처럼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시민들의 컬처넷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포털사이트나 각종 공공문화시설 및 기관의 홈페이지에 링크 및 배너광고를 하는 등 앞으로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전국의 800개의 시설의 정보를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27개의 문화복지시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업데이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필요하지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보를 모아 업데이트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지방정부수준(광역정부수준)의 문화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한 다음 그것을 DB연동하여 컬처넷이나 지방정부의 문화정보네트워크에서도 검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문화정보 구축은 서울시에 예산을 지원하여 서울시문화관광사이트에서 집적화하여 컬처넷21이나 다른 지방정부의 종합정보사이트와 DB연동하도록 하는 방향을 향후 검토해야 한다.

2. 서울문화관광사이트(『Seoul Culture&Tourism』:www. visitseoul.net)

1) 구축목적

서울문화관광사이트는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및 네티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 서울의 종합적인 문화관광정보를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0년부터 서울문화관광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01년 3월에 4개 국어(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로 웹서비스를 최초로 개시하였고 월드컵을 맞이하여 중국어(번체)를 추가하여 5개국 언어로 확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구축내용

서울문화관광사이트는 서울소개, 서울명소, 문화행사/축제, 여행정보, 쇼핑정보, 문화공간, 자료실, 열린마당, 기타메뉴 등의 큰 항목으로 구성되어 각종 문화 및 관광정보를 담고 있다. 문화정보는 주로 문화행사/축제, 문화공간항목란에서 주로 제공되는데 문화행사항목은 ‘이 달의 문화행사’란과 ‘정기축제/이벤트’란으로 구성되며, ‘이달의 문화행사’코너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민간공연기관의 행사를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문화강좌 등 9개의 장르로 나누어 수시 업데이트하여 시민들이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정보를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게 하였다. 문화공간은 박물관/기념관, 미술관/화랑, 도서관, 공연장, 영화관, 자치구문화원, 외국문화원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위치

및 교통, 숙박업소, 주변음식점을 소개하고 사이트가 있는 시설은 해당사이트를 링크해 놓았다.

<표 3-3> 서울문화관광사이트의 사이트 맵

서울소개	서울명소	문화행사/축제
위치	고궁	이달의 문화행사
기후와 하루	문화사적	정기축제/이벤트
서울의 역사	산과강	
서울이야기	테마파크	
	건축	
	공원/레포츠	
	근교명소	
여행정보	쇼핑정보	문화공간
관광프로그램	지역별(시장/거리)	박물관/기념관
교통	품목별	미술관/화랑
숙박	백화점	도서관
음식(점)	면세점	공연장
여행상식		영화관
		자치구문화원
		외국문화원
자료실	열린마당	기타메뉴
건축물미술장식품	새소식	서울600년사
서울문화상품전	내가 추천합니다	한국명소
사진갤러리	자유게시판	로마자표기검색
공개자료실		문화관광지도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3) 시사점

서울문화관광사이트가 온라인 문화네트워크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문화정보집적화 사이트로서의 기능 미흡하고, 필수 콘텐츠의 부재하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능이 미흡하여 주민과 주민, 주민과 시설, 시설과 시설간의 연결을 돕는 온라인 문화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 문화정보집적화 사이트로서의 기능 미흡

서울문화관광사이트는 서울시민의 문화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정보사이트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문화행사/축제, 문화공간란에서 주로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화정보가 집적화 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문화행사/축제란의 경우 민간문화시설의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그 시설들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LG아트센터 등 중대규모의 공연전시시설들의 행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문예회관, 구민회관, 문화원, 도서관 등 서울 곳곳의 공공문화복지시설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공공문화복지시설의 행사는 현재 시민에게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¹⁾ 반대로 앞에서 열거한 중대규모 시설의 경우 개별 홈페이지에서 홍보가 잘 되고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동화회도 만들어져 있어 온라인 홍보가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향후 서울문화관광사이트에서는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문화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정보를 모아 집적화하여 제공하는 사이트로 개편되어야 한다.

(2) 필수 콘텐츠의 부재

서울문화관광사이트의 문화공간면에서는 박물관/기념관, 미술관/화랑, 도서관, 공연장, 영화관, 자치구문화원, 외국문화원 등의 공간정보를 제공하지만 해당시설의 이용정보(이용시간, 휴관일 등), 프로그램 정보 등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의 경우는 공공 및 민간도서관명을 나열하여 도서관명을 클릭하면 해당도서관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나마 30여개의 공공도서관 중 몇 개의 도서관은 빠져 있다. 문화정보집적화 사이트로서 시민에게 편리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시설로 바로 링크시키기 보다는 문화관광사이트에서 여러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개편해야겠다. 도서관의 경우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이트에서 종합적으로 도서관 이용과 도서관 프로그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1) 라도삼 외,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PP.59~75

하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공공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사이트들을 서울 문화관광사이트에 링크시켜야 한다.



<그림 3-5> 서울문화관광사이트 문화공간면

문화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치와 전화번호정보만 제공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 정보, 프로그램 정보 등 좀 더 실질적인 정보를 종합 제공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문화원, 문예회관, 구민회관, 문화의집 등의 시설이용, 프로그램정보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없고 또한 문화복지시설의 경우 자체사이트가 없는 곳도 많고 사이트의 홍보가 안되어 시민들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서울 문화관광사이트는 시민들의 문화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정보를 모아 집적화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2)에서 온라인 동호회의 마스터 및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얼마나 낮은지 증명해주고 있다. 현재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신청을 하면 무료나 약간의 대관료를 주고 이용할 수 있는데, 응답자의 79%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공공문화복지시설 이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관련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부족’(49.5%)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향후 서울문화관광사이트에서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이용정보, 대관이 가능한 공간, 프로그램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정보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표 3-4> 공공문화복지시설이용에 대한 인지도와 장애요인

문항	응답	표본의 특성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이용가능에 대한 인지여부	1) 알고 있다: 275명(21.28%) 2) 모르고 있다: 1,017명(78.72%)	프리첼 동호회 마스터 및 회원 1,292명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이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	1순위: 관련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부족: 639명(49.46%) 2순위: 높은 사용료: 163명(12.62%) 3순위: 복잡한 이용신청과정 125명(9.67%)	

(3)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능 미흡

서울문화관광사이트는 온라인 문화네트워크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 두 가지 기본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야한다. 앞서 서술했던 것처럼 문화정보를 집적화하여 종합적인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개편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사이트로 개편되어야겠다.

다음이나 프리첼 등 민간사이트에서는 자신의 사이트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가 무료 커뮤니티 서비스의 제공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네티즌의 경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면, 정보를 찾거나 친목도모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고 자연히 그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문화관광사이트도 더 많은 시민을 유인하기 위한 좋은 방법중의 하나가 무료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동적인 게시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문화관광사이트를 찾아가 시민들이 유용한 정보도 얻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 문화교실(<http://www.visitseoul.net/sculture>)에서 문화강좌를 듣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울문화교실 동호회(회원 약400명: www.freechal.com/sculture)를 개설하여 문화정보를 얻고, 강좌에 대한 토론을 통해 상호학습효과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해당사이트의 커뮤니티 서비스 유료화로 동호회가 폐쇄된 상태이다. 이러한 일례는 공공문화강좌를 듣는 사람들 중 친목도모, 정보획득, 학습효과 증진 등 다양한 개인의 목적과 관심사를 달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계층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간사이트들이 이윤이라는 목적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유료화 하는 시점에서 서울문화관광사이트는 무료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관광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하여, 더 많은 시민의 문화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정보제공이 더 많은 문화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도록 해야한다.

3. 서울공공도서관 통합사이트

1) 구축내용

도서관의 경우 서울시 공공도서관통합사이트(<http://www.lib.seoul.kr>)를 구축하여 서울시 소재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정보를 정독도서관에서 분기별로 취합하여 도서관 소개, 독서생활, 문화교실, 행사안내, 도서관전산화, 도서관소식, 관련사이트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홈페이지에서 각각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서울시지도상의 도서관 이름을 클릭하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림 3-6> 서울공공도서관 통합사이트

2) 시사점

다른 문화복지시설과는 달리 문화정보의 집적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정보집적화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볼 수 있지만 정보검색은 가능하지 않으며, 분기별로만 업데이트되어 최신정보 및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사이트를 어디에서 운영하는지를 알 수 없고 주민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시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개개의 도서관에서만 홍보가 되어 있을 뿐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 시민이 찾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第 IV 章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조사

제 1 절 조사개요

제 2 절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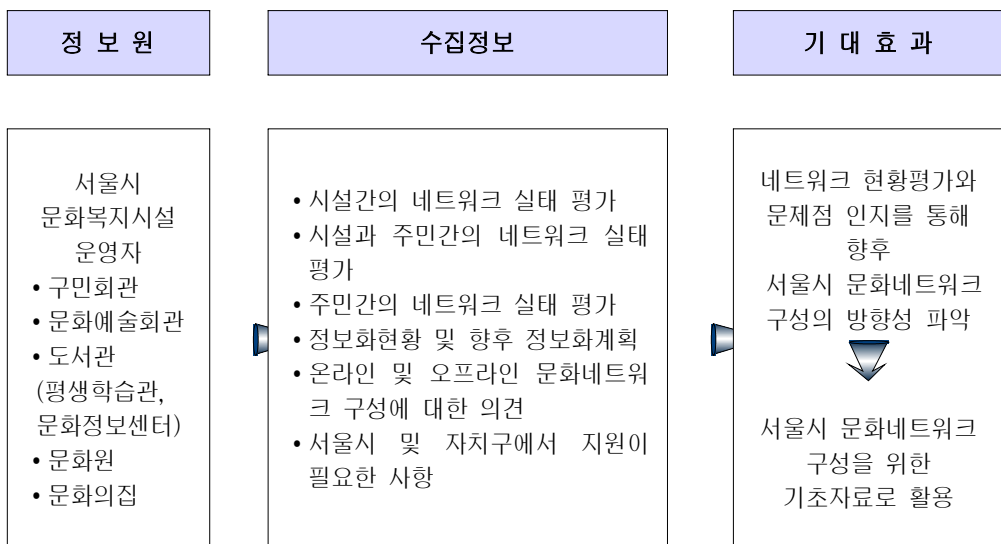
제 3 절 요약 및 정책시사점

제 IV 장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조사

제 1 절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지역문화복지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 현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구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문화복지향상 및 문화공동체형성을 위한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4-1> 조사의 개요

2. 조사설계(Research Design)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지역문화복지시설 운영자로 하였고 지역문화복지시설 중에서도 문화원,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도서관 등의 시설로 대상을 한정하였

다. 실제로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여성발전센터 등에서도 문화행사 및 문화관련교육을 하고 있지만, 조사대상을 한정 한 이유는 첫째, 현재 서울시에서 생활문화 진흥 및 자치구간의 문화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구 1도서관(평생학습관), 1구 1구민회관(문화예술회관), 1구 1문화원 설립을 가장 주요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연구의 예산과 시간적인 제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문화행사나 문화관련교육을 하는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포함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내부자료와 25개 자치구 사이트의 문화시설정보를 토대로 모집단 명부를 작성하였다. 모집단 명부에 작성된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원, 문화의집,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은 총 101개였다.

본 조사를 하기 전에 4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심층면접조사를 하여 네트워크 실태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후 본 조사에서 이용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 기간은 7월 2일부터 11일까지였고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방법이었다. 101부중 조사 후 회수된 부수는 총 94부로 93%의 매우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표 4-1> 조사설계(Research Design)

구분	내용
① 조사대상	서울시 지역문화복지시설(101개) 운영자(정보관련 및 문화프로그램운영담당) ① 구민회관 ② 문화예술회관 ③ 문화원 ④ 문화의 집 ⑤ 공공도서관(구립·시립 도서관, 평생학습관, 문화정보센터)
②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기관방문 조사
③ 조사기간	① 사전 면접조사(40개 기관) 2002. 5. 2~ 5. 15 ② 본 조사:설문조사(101개 기관) 2002. 7. 2~ 7. 11
④ 분석방법	raw data를 검증하여 SPSS로 전산처리 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ANOVA 분석을 사용

<표 4-2> 설문조사된 시설

구분	조사된 시설	빈도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종로, 강북, 성북, 용산, 양천, 영등포, 구로, 중랑, 노원, 도봉,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강서, 동대문, 중, 관악, 동작, 성동 문화예술회관: 영등포, 서대문, 은평	23개소
문화의 집	양천, 강서, 신정4동, 목2동, 상봉, 노원, 중화, 중랑, 방배, 강동, 마천2동, 신월6동, 독립문, 신림13동, 동대문, 봉천1동, 서대문, 은평, 종로	19개소
문화원	금천, 강북, 중구, 용산, 성북, 양천, 도봉, 강서, 중랑, 노원, 송파, 강남, 성동, 광진, 동대문, 동작, 관악, 종로, 마포, 은평, 영등포	21개소
도서관 (평생교육학습관, 문화정보센터)	도서관 : 남산, 금천, 용산, 성북, 강서, 양천, 광진, 도봉, 중랑, 개포, 강동, 구로, 송파, 고척, 동작, 동대문, 서대문, 종로, 정독, 어린이, 은평, 강남 평생학습관: 중계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분관 문화정보센터: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정보센터, 도봉문화정보센터, 성동문화정보센터	31개소

3. 조사내용

문화복지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설의 기본적인 현황, 네트워크 현황 등에 관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우선 네트워크 특성을 통해 행위자들의 연계내용을 분석한 Mitchell, Isra el&Rounds, Surra, Wellman & Wortley 등의 학자들이 네트워크의 특성이라고 제시한 것을 토대로 <표 4-3>과 같은 조사분석지표를 구성하였다.²⁾

2) 본 설문구성에 사용된 지표는 네트워크 특성을 통해 행위자들의 연계내용을 분석한 Mitchell(1969), Israel & Rounds(1987), Surra(1988), Wellman & Wortley(1990) 등의 학자들이 네트워크의 특성이라고 제시한 것을 참고하였다.

	Mitchell	Israel & Rounds	Surra	Wellman& Wortley
구조적 특성	연계방향성, 접근성(거리), 상호접촉성, 네트워크 확장정도	규모, 밀도	관계내용, 다양성, 빈도, 지속성, 강도, 대칭성	관계의 강도, 접근성,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구조,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위치적 자원, 위치적 요소와 관계적 요소를 결합한 구성원간 유사점·차이점
상호작용적 (관계적) 특성	관계내용, 상호호혜적 연계정도, 지속성, 책임의 강도, 구성원간 신뢰접촉빈도	상호호혜정도, 지속성, 상호작용빈도, 분산		

자료: 김희연 외,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지방정부와 사회복지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2.3, 통권 37호, pp.104~105

<표 4-4> 설문조사의 분석지표

네트워크 종류	네트워크 특성	분석내용	분석지표	
시설간의 네트워크	상호작용적 특성	행위자들간의 관계내용 및 빈도	온라인	• 기관협의회홈페이지유무 • 기관협의회홈페이지참여정도
			오프 라인	• 협회에 참여정도 • 정보교류정도 • 세미나 및 교육이 활발한정도
		상호작용을 통해 이용하는 매체	• 교류를 위한 주이용매체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요인	•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협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시설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상호작용적 특성	행위자들간의 관계내용 및 빈도	온라인	• 홈페이지장 게시판 유무 • 주민게시판의 활성화정도 • 온라인상 정보제공 및 교류가 주민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오프 라인	•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활발한 정도 • 설문조사나 회의를 하는 정도
		행위자들간의 상호 호혜적 특성	• 문화예술동아리에 대한 지원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상호작용적 특성	행위자들간의 관계내용 및 빈도	온라인	• 홈페이지상 문화동호회란 유무
			오프 라인	• 주민의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 정도 • 주민의 문화예술활동동아리수

조사분석지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설문지의 영역별 조사항목과 세부항목은 다음의 <표 4-4>와 같다.

<표 4-5> 설문항목의 구성

조사영역	조사항목	세부항목
시설의 기본적인 현황	○시설이용자 현황	• 월 이용자수 • 프로그램 주 이용계층 • 분기별 프로그램(강좌) 참여자수
	○시설의 프로그램 현황	• 분기당 프로그램 수 • 인기 있는 프로그램
	○시설의 예산현황	• 예산지원기관 • 정보화관련 예산 • 연간 총 예산
	○시설의 조직 및 인력현황	• 시설의 소속기관 • 기관의 법적인 형태 • 정직원 수 • 인력의 구성 • 시설의 확충 요구도

문화기반 시설간의 네트워크실태 평가	○ 동종시설간의 네트워크 실태 평가	• 오프라인상의 교류정도 -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 및 주이용매체 -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온라인상의 교류정도 - 동종기관협의회홈페이지 이용정도 - 동종기관협의회홈페이지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자치구내 이종시설간의 네트워크 실태 평가	• 이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 • 교류의 필요정도와 주로 이용하는 매체 •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문화기반 시설과 주민간의 네트워크실태 평가	○ 오프라인상 네트워크 실태 평가	• 오프라인상 교류정도 - 주민과 시설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 설문조사나 회의를 실시하는 정도
	○ 온라인상 네트워크 실태 평가	• 온라인상 교류정도 - 홈페이지상 주민게시판의 유무 - 홈페이지외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하는 매체 - 주민게시판의 활성화정도 - 온라인상 정보제공 및 교류가 주민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실태 평가	○ 오프라인 네트워크 실태 평가	• 주민의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정도 •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 온라인 네트워크 실태 평가	• 온라인상 문화동호회란 개설정도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방향	○ 정보화 및 홈페이지 구축 현황 및 향후계획	• 정보화현황과 홈페이지 구축정도 • 홈페이지 운영시 가장 어려운 점 및 지원사항 • 향후 홈페이지 구축계획
	○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참여여부 •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방향 - 구축의 중심기관과 구축의 우선순위 •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콘텐츠의 선호도 •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 촉진방안
	○ 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 프로그램의 질 제고방안 - 우수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하기 어려운 이유 -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 문화복지시설의 시간적·공간적 접근성 제고방안 - 문화복지시설의 개장 및 폐장시간, 휴무현황 - 야간프로그램운영 및 활동공간제공에 대한 의견 • 적극적인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 동아리 수 및 지원 형태, 확충이 필요한 시설 • 시설간의 교류강화방안 - 우수프로그램을 공동기획 및 순회공연 경험유무 - 공동기획 및 순회공연의 필요성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주요분석기법은 ANOVA분석과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이다.

제 2 절 분석결과

1.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 실태 평가

1) 오프라인상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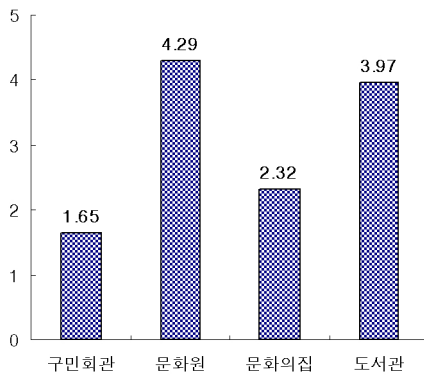
(1)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

동종기관의 협회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은 문화원(4.29점), 도서관(3.97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과 문화원과 달리 구민회관(문화예술회관:1.65점)과 문화의 집(2.32점)은 거의 교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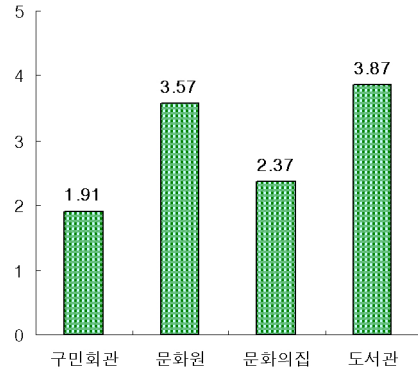
면접조사결과 문화원의 경우 서울시 지회를 만들어,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도 오프라인상 동종시설간의 교류도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활발한 편으로 나타났다. 학습관 4곳, 도서관 20곳은 같은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가 있고 비공식적으로 도서관연구회와 사서연구회 등이 있다고 하였고 별도로 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기능을 전환한 평생학습관 4곳간에는 정보교류가 활발하다고 했다. 앞으로도 정보교류가 더 촉진되었으면 하고 시설운영과 프로그램기획에 관련한 세미나나 동호회 등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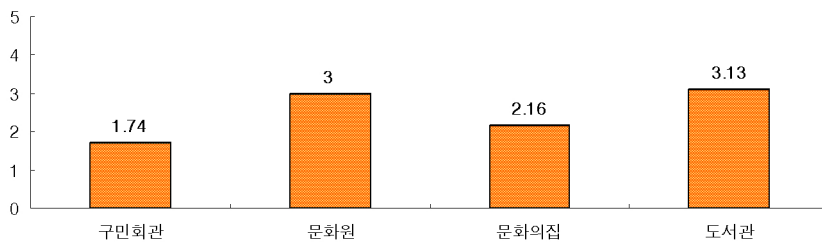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시설·문화프로그램운영관련 정보교류의 정도도 문화원(3.57점), 도서관(3.87점)이 구민회관(1.91점), 문화의 집(2.37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적극적인 정보교류방법 중의 하나인 시설·문화프로그램 운영관련 세미나나 교육을 통한 교류는 전체점수가 2.56점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동종기관간 협회·모임의 적극적인 참여정도



<그림 4-3> 시설·문화프로그램운영의 정보교류 활발정도



<그림 4-4> 시설·문화프로그램 운영관련 세미나 및 교육정도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상 동종기관간의 네트워크정도는 문화원과 도서관의 경우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구민회관과 문화의집의 경우는 그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동종기관간의 교류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

주로 이용하는 매체로는 전화(54.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3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

단위:평균(표준편차)

문 항	구민 회관 ①	문화원 ②	문화의 집 ③	도서관 ④	전체	F
동종기관간의 협회나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함	1.65 (.71)	4.29 (.85)	2.32 (.89)	3.97 (1.05)	3.14 (1.41)	46.555**
시설·문화프로그램운 영관련 정보교류가 활 발함	1.91 (1.0)	3.57 (1.12)	2.37 (.68)	3.87 (1.06)	3.02 (1.29)	21.969***
시설·문화프로그램운 영관련 세미나나 교육 이 활발함	1.74 (.92)	3.00 (1.22)	2.16 (.83)	3.13 (1.20)	2.56 (1.21)	9.384***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조금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 : p <.001

<표 4-6> 동종기관의 교류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

단위:빈도(%)

문 항	응 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동종기관의 교류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	전 화	8(38.1)	15(71.4)	10(55.6)	16(53.3)	49(54.4)
	홈페이지,이메일	6(28.6)	4(19.0)	5(27.8)	14(46.7)	29(32.2)
	팩 스	1(4.8)	-	1(5.6)	-	2(2.2)
	직접만나서	1(4.8)	2(9.5)	-	-	3(3.3)
	전혀교류하지않음	5(23.8)	-	2(11.1)	-	7(7.8)
	전 체	21(100.0)	21(100.0)	18(100.0)	30(100.0)	90(100.0)

$\chi^2 = 23.374$ Sig=.025

(3) 동종문화복지시설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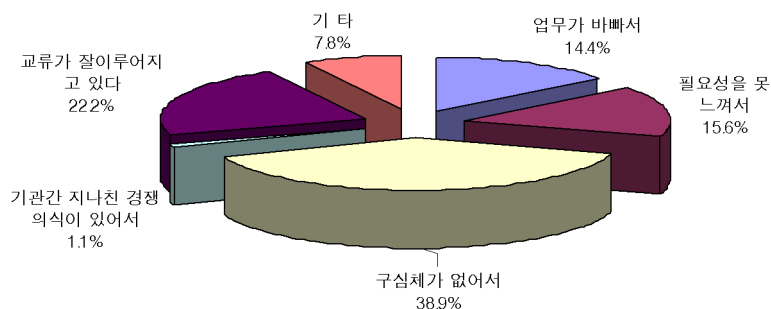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설운영자는 22.2%에 지나지 않았다. 동종기관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교류의 구심체가 없어서’(38.9%)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교류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15.6%), ‘업무가 바빠서’(14.4%)순이었다. 특히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교류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40.0%)가 교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고, 나머지 복지시설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은 ‘교류의 중심체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면접조사결과, 구민회관의 경우 공식적인 협의회가 없고, 문화의 집의 경우 전국문화의집운영협의회가 있지만 교류의 중심체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문화의집의 가입율은 상당히 낮다.

몇몇 문화의집의 경우, 담당자가 2명만으로 수십 개의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문화의집 운영과 프로그램관련기획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협회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구민회관의 경우 구청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맡고, 구민회관 직원의 경우 대부분 시설의 대여에만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구민회관 직원은 공연 및 전시장 대여에만 관심을 갖고 현상유지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뿐 시설운영정보를 교류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듯했다. 또한 각기 다른 구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5> 동종기관간 미교류의 원인

<표 4-7> 동종기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단위:빈도(%)

문 항	응 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동종기관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업무가 바빠서	2(10.0)	5(23.8)	3(15.8)	3(10.0)	13(14.4)
	교류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8(40.0)	1(4.8)	4(21.1)	1(3.3)	14(15.6)
	교류의 구심체가 없어서	5(25.0)	6(28.6)	10(52.6)	14(46.7)	35(38.9)
	기관간의 지나친 경쟁의식이 있어서	-	-	1(5.3)	-	1(1.1)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	9(42.9)	-	11(36.7)	20(22.2)
	기 타	5(25.0)	-	1(5.3)	1(3.3)	7(7.8)
	전 체	20(100.0)	21(100.0)	19(100.0)	30(100.0)	9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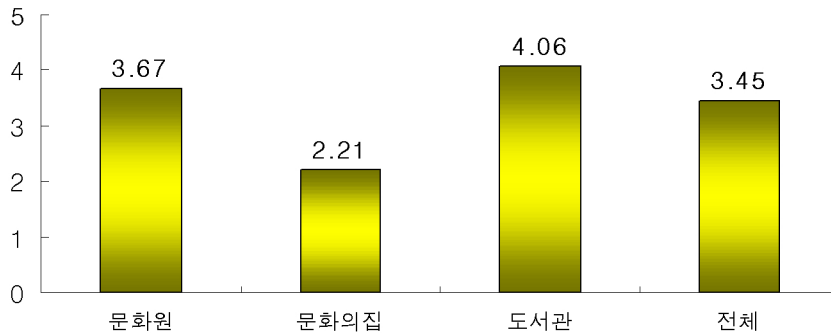
$\chi^2 = 46.865$ Sig. = .000

2) 온라인상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

(1)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정도

문화복지시설 중 구민회관을 제외한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등은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³⁾를 가지고 있지만, 시설별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문화의 집의 경우, 대체로 이용하지 않는 것(2.21점)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원(3.67점)과 도서관(4.06점)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협의회홈페이지에 종종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전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www.kccf.or.kr), 전국문화의집운영협의회 홈페이지(cultureclub.or.kr), 서울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www.lib.seoul.kr)가 있다.



<그림 4-6>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 이용여부

<표 4-8> 정보를 얻기 위해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 이용정도

단위:평균(표준편차)

응답	문화원 ①	문화의집 ②	도서관 ③	전체	F
정보를 얻기 위해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 이용정도	3.67 (1.11)	2.21 (1.13)	4.06 (1.12)	3.45 (1.35)	16.61***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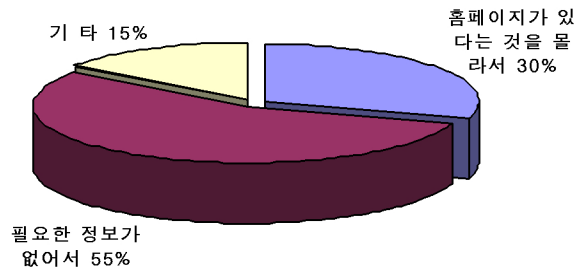
4점: 조금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 p <.001

(2)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동종기관협의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55.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41.7%)라는 응답이 높이 나온 것을 보면, 많은 문화의집은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시설운영과 프로그램기획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홈페이지를 시설관계자에게 홍보해야 한다.



<그림 4-7>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표 4-9>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빈도(%)

문항	응답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를 이용 하지 않는 이유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 을 몰라서	-	5(41.7)	1(25.0)	6(30.0)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3(75.0)	5(41.7)	3(75.0)	11(55.0)
	기 타	1(25.0)	2(16.7)	-	3(15.0)
	전 체	4(100.0)	12(100.0)	4(100.0)	20(100.0)

$\chi^2 = 3.636$ Sig. = .457 n.s.

2. 자치구내 이종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 평가

1) 자치구내 이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

문화시설별로 차이 없이 시설운영자는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협회나 모임에 전반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2.34점)으로 나타난다. 또한 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정보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것(2.52점)으로 나타난다. 좀더 적극적인 정보교류방법 중의 하나인 시설·문화프로그램 운영관련 세미나나 교육을 통한 교류는 전체점수가 더 낮아(2.05점)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응답으로 보면, 자치구내 이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는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 보다 훨씬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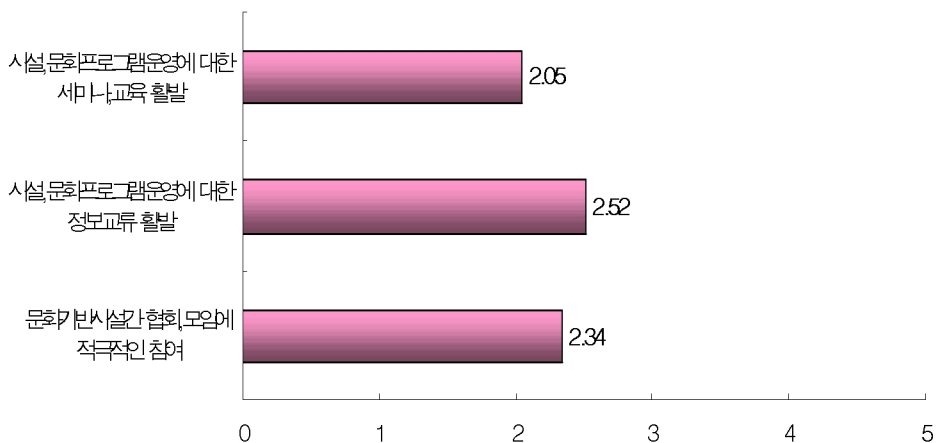
직접적으로 ‘시설운영자에게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거의 동일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55점)고 응답을

하였다.

면접조사결과에 따르면, 구민회관의 경우 지역내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의집, 문화원과 같은 시설안에 있을 경우 교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은 특성상 학교와 교류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내의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문화의집과 구민회관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자로 일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는 마인드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자치구내 이중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는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보다 훨씬 더 미미하며, 문화복지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운영의 효율성이나 우수프로그램을 통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러한 교류의 부재 속에서 전문적인 기획능력 없이 동일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게 된다.



<그림 4-8> 자치구내 이중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

<표 4-10> 자치구내 이중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복지시설별)

단위:평균(표준편차)

문항	구민 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F	Sig.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협회나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정도	2.30 (1.26)	2.33 (1.15)	2.47 (1.39)	2.29 (1.07)	2.34 (1.19)	.102	.958
시설·문화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정보교류정도	2.52 (1.27)	2.52 (1.17)	2.58 (1.26)	2.48 (1.23)	2.52 (1.22)	.023	.995
시설·문화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세미나·교육이 활발한 정도	2.09 (1.00)	2.00 (.84)	2.16 (1.12)	2.00 (.82)	2.05 (.92)	.146	.932
연계·협력에 대한 시설운영자의 평가	2.65 (1.27)	2.81 (1.40)	2.47 (1.02)	2.35 (1.25)	2.55 (1.24)	.630	.598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조금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자치구별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의 정도는 성동구와 은평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대체적으로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성동구(3.67점)와 은평구(3.75점)의 문화복지시설로 나타났고,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보교류가 활발한 곳 또한 성동구(3.33점), 은평구(3.50점) 그리고 영등포구(3.75점)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교류의 하나인 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미나나 교육(2.05점)은 어떠한 구에서도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시설운영자 스스로 자기평가를 해 본 결과 실제로 교류관련 다른 문항보다 약간 후한 평가를 하였다. 이 문항에서도 성동구(4.67점), 은평구(3.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자치구내 이중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의 필요성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는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화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에 대해서 ‘필요하다’(3.81점)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구민회관이 3.22점으로 ‘자치

<표 4-11> 자치구내 이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자치구별)

단위:평균(표준편차)

자치구별	문화복지시설간의 협회·모임 참여정도		시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 보교류정도		시설·문화프로그램 운영관련 세미 나 및 교육정도		연계·협력에 대한 시설운영자 자체 평가	
종로	2.33	(.52)	2.33	(1.03)	2.00	(.89)	2.17	(.41)
중	3.00	(2.83)	2.50	(2.12)	2.50	(.71)	3.00	(1.41)
용산	2.25	(.50)	2.50	(1.00)	2.25	(.50)	3.50	(1.00)
성동	3.67	(1.53)	3.33	(.58)	3.00	(1.00)	4.67	(.58)
광진	2.00	(1.41)	2.50	(2.12)	1.00	(.00)	1.50	(.71)
동대문	2.25	(1.89)	2.25	(1.89)	1.75	(.96)	2.75	(1.71)
중랑	3.17	(.75)	2.83	(.75)	2.67	(.52)	3.17	(.98)
성북	2.33	(1.15)	3.00	(2.00)	2.00	(1.00)	3.00	(2.00)
강북	2.25	(.96)	2.50	(1.00)	2.25	(.50)	2.75	(.50)
도봉	2.75	(1.50)	3.25	(1.50)	2.75	(.96)	3.00	(1.41)
노원	2.50	(1.91)	2.50	(1.91)	2.25	(1.89)	2.75	(1.71)
은평	3.75	(.96)	3.50	(.58)	2.75	(.50)	3.75	(1.50)
서대문	1.75	(.96)	2.25	(1.50)	1.50	(.58)	2.00	(.82)
마포	1.67	(.58)	1.67	(.58)	1.33	(.58)	1.33	(.58)
양천	2.43	(1.27)	2.57	(1.27)	2.43	(1.27)	2.71	(1.11)
강서	2.25	(.96)	2.25	(.96)	2.00	(1.15)	2.25	(.96)
구로	1.67	(.58)	1.33	(.58)	1.67	(.58)	1.33	(.58)
금천	2.00	(1.41)	2.50	(.71)	2.00	(1.41)	2.00	(1.41)
영등포	2.25	(1.89)	3.75	(1.50)	1.75	(.96)	3.25	(1.71)
동작	1.33	(.58)	1.33	(.58)	1.33	(.58)	1.33	(.58)
관악	1.75	(.96)	1.50	(.58)	1.50	(.58)	1.50	(.58)
서초	1.00	(.00)	2.00	(1.41)	1.50	(.71)	2.00	(1.41)
강남	2.75	(.50)	2.50	(.58)	2.00	(.82)	2.75	(.96)
송파	1.50	(.58)	2.25	(.96)	1.75	(.96)	1.50	(.58)
강동	2.50	(1.29)	3.25	(1.50)	2.00	(.82)	2.50	(1.00)
총계	2.34	(1.19)	2.52	(1.22)	2.05	(.82)	2.55	(1.24)

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이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보면 대부분의 자치구 문화복지시설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많았지만, 굳이 교류를 해도 안 해도 별로 관여치 않는다는 입장도 몇몇 있었다. 광진구, 송파구, 서초구의 경우 모든 시설의 운영자가 지역 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표 4-12>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의 필요성(복지시설별)

단위:평균(표준편차)

문항	구민 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F	Sig.
자치구내 문화기반 시설간의 교류필요성	3.22 (1.51)	4.24 (1.09)	3.79 (1.18)	3.97 (1.20)	3.81 (1.29)	2.687	.051

<표 4-13>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의 필요성(자치구별)

단위:평균(표준편차)

자치구별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의 필요성				
종로	3.67	(1.03)	마포	3.00	(1.73)
중	4.00	(1.41)	양천	2.86	(1.21)
용산	4.25	(.50)	강서	3.50	(.58)
성동	4.33	(1.15)	구로	2.67	(1.53)
광진	5.00	(.00)	금천	2.50	(2.12)
동대문	4.00	(2.00)	영등포	3.25	(1.71)
중랑	4.17	(.75)	동작	3.33	(2.08)
성북	3.67	(2.31)	관악	3.25	(1.26)
강북	4.00	(1.41)	서초	5.00	(.00)
도봉	4.75	(.50)	강남	4.00	(.82)
노원	3.00	(1.63)	송파	5.00	(.00)
은평	4.00	(1.41)	강동	4.25	(.96)
서대문	4.50	(1.00)	총계	3.81	(1.29)

3) 자치구내 교류를 위한 주이용 매체

자치구내 교류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전화(50.5%), 홈페이지·이메일(25.3%)가 가장 많았고,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4.3%로 나타났다.

<표 4-14> 자치구내 교류를 위한 주이용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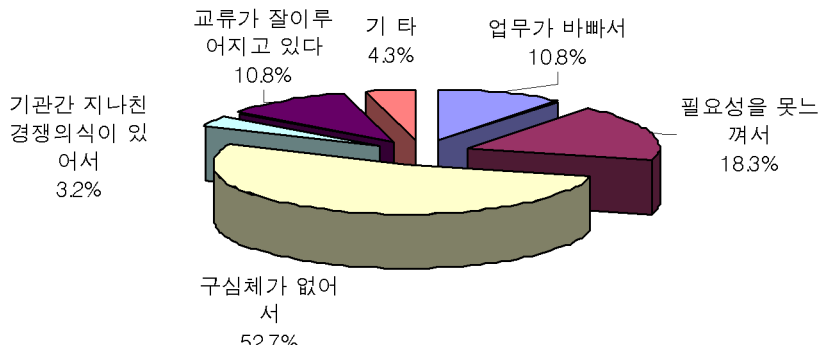
단위: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자치구내 교류를 위한 주이용 매체	전 화	10(45.5)	10(50.0)	13(68.4)	13(43.3)	46(50.5)
	홈페이지,이메일	7(31.8)	4(20.0)	3(15.8)	9(30.0)	23(25.3)
	팩 스	1(4.5)	1(5.0)	1(5.3)	-	3(3.3)
	직접만나서	1(4.5)	3(15.0)	-	2(6.7)	6(6.6)
	전혀교류하지않음	3(13.6)	2(10.0)	2(10.5)	6(20.0)	13(14.3)
	전 체	22(100.0)	20(100.0)	19(100.0)	30(100.0)	91(100.0)

$\chi^2 = 9.324$ Sig. = .675

4) 자치구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류의 구심체가 없어서’(52.7%)로 나타났고 다음 순으로 ‘교류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18.3%)’, ‘업무가 바빠서’(10.8%)순으로 나타났다. 동종기관간에는 협회나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자치구내 시설의 경우 교류를 위한 모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로 연계를 위한 구심체를 만들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그림 4-9> 자치구내 이종시설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표 4-15> 자치구내 이종시설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단위: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자치구내 이종시설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업무가 바빠서	5(22.7)	-	-	5(16.1)	10(10.8)
	교류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5(22.7)	3(14.3)	7(36.8)	2(6.5)	17(18.3)
	교류의 구심체가 없어서	7(31.8)	13(61.9)	8(42.1)	21(67.7)	49(52.7)
	기관간의 지나친 경쟁의식이 있어서	-	2(9.5)	1(5.3)	-	3(3.2)
	지역내 잘 이뤄지고 있다.	2(9.1)	3(14.3)	3(15.8)	2(6.5)	10(10.8)
	기타	3(13.6)	-	-	1(3.2)	4(4.3)
	전체	22(100.0)	21(100.0)	19(100.0)	31(100.0)	93(100.0)

$\chi^2 = 30.418$ Sig. = .011

3. 문화복지시설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실태 평가

1) 오프라인상 주민과 시설간의 교류정도

(1) 주민과 시설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시설운영자가 평가한 주민과의 시설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3.63점으로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다소 활발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도서관과 나머지 시설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도서관이 가장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된 곳으로 볼 수 있었고 문화원과 구민회관, 문화의집은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주민과 시설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단위:평균(표준편차)

문항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F	Sig.
주민과 시설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3.48 (1.27)	3.33 (1.02)	3.37 (1.01)	4.10 (.94)	3.63 (1.10)	3.082	.031*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조금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 p < .05							

(2) 주민의 의견반영 정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회의를 하는 기관은 전체기관 중 67.0%에 이르렀다. 많은 문화복지시설 또한 주민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설별로 그 차이가 많았는데, 도서관은 대부분의 기관이, 문화원도 많은

<표 4-2>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회의유무

단위: 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주민의견 설문조사나 회의유무	안하고 있다	11(47.8)	8(38.1)	8(42.1)	4(12.9)	31(33.0)
	하고 있다.	12(52.2)	13(61.9)	11(57.9)	27(87.1)	63(67.0)
	전체	23(100.0)	21(100.0)	19(100.0)	31(100.0)	94(100.0)

$\chi^2 = 8.9111$ Sig. = .030* * p < .05

기관이 설문조사나 회의를 하면서 주민의견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민회관(47.8%)과 문화의집(42.1%)의 약 반 정도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

2) 온라인상 주민과 시설간의 네트워크 실태 평가

(1) 홈페이지상 주민자유게시판의 유무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시설은 94개 중 54개(57.4%)였는데 그 중 대부분이 주민자유게시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90.7%) 나타났다.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게시판을 설치하였다.

면접조사에서도, 홈페이지가 있는 기관 중 게시판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지적하자, 다음 번 업데이트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응답도 몇몇 있었다.

<표 4-3> 홈페이지상 게시판 운영 여부

단위: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홈페이지상 게시판 운영여부	있다	3(75.0)	10(83.3)	6(85.7)	30(96.8)	49(90.7)
	없다	1(25.0)	2(16.7)	1(14.3)	1(3.2)	5(9.30)
	전체	4(100.0)	12(100.0)	7(100.0)	31(100.0)	54(100.0)

$\chi^2 = 3.517$ Sig. = .319

(2) 홈페이지이외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하는 매체

홈페이지가 없거나 홈페이지는 있어도 게시판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용하는 매체에 대해 물었다. 자체홈페이지가 없는 문화복지시설들 중 상당부분은 구청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7.4%) 구민회관의 경우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고 주로 구청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청홈페이지의 주민게시판의 경우 여러 분야의 글이 올라오게 되어 주민과 구민회관운영자간에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기에는 부

족한 면이 있다. 별도로 주민게시판을 만들어 주민들이 별 어려움 없이도 쉽게 찾아내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나 프로그램의 개선요구사항 등을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고, 시설운영자도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야하며, 홈페이지가 구축되기 전에는 구청홈페이지에 별도의 자유게시판을 설치해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시설에서 주목해야 할 최대 사안이다.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표 4-4> 홈페이지이외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하는 매체

단위: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도서관	전체
홈페이지이외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하는 매체	구청홈페이지 게시판	17(89.5)	3(30.0)	9(69.2)	-	29(67.4)
	동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	-	1(10.0)	3(23.1)	-	4(9.3)
	기타	2(10.5)	1(10.0)	-	1(100.0)	4(9.3)
	없다	-	5(50.0)	1(7.7)	-	6(14.0)
	전체	19(100.0)	10(100.0)	13(100.0)	1(100.0)	43(100.0)

$\chi^2 = 31.200$ Sig. = .000

(3) 주민게시판의 활성화정도

홈페이지상에 주민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주민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대부분은 주민게시판이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성화되어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별로 그 응답은 차이가 있었다. 비교적 주민게시판이 제기능을 하는 곳은 도서관(4.33점)과 구민회관(문화예술회관:4.33)이었고 다음순은 문화원(3.10)이었고, 문화의집(2.83점)으로 가장 활성화되지 않은 곳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게시판을 설치만 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표 4-5> 게시판의 활성화 정도

단위:평균(표준편차)

항목	구민회관 ①	문화원 ②	문화의 집 ③	도서관 ④	전체	F
게시판의 활성화정도	4.33 (0.58)	3.10 (1.10)	2.83 (0.98)	4.33 (0.66)	3.90 (1.01)	10.023***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조금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 p<.001

(4) 온라인상 정보제공 및 교류가 주민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과 게시판 등 의견교류를 통해 주민참여도는 높아졌다(3.67점)는 결과가 나왔다.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민회관(4.33점)과 도서관(4.03점)의 경우 매우 높은 주민참여도를 실감하는 반면, 문화원(2.80점)과 문화의집(3.00점)은 ‘그저 그렇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표 4-6> 온라인상 교류가 주민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단위:평균(표준편차)

항목	구민회관 ①	문화원 ②	문화의 집 ③	도서관 ④	전체	F
온라인상 교류가 주민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4.33 (0.58)	2.80 (0.63)	3.00 (0.89)	4.03 (0.61)	3.67 (0.85)	12.121***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조금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 p<.001

온라인상 정보제공은 정보제공처를 다원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동시에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온라인상 게시판참여를 통해 주민이 시설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피드백된다면, 주민은 전보다 시설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4.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실태 평가

1) 주민의 문화예술동아리활동 정도

문화강좌수강생들의 문화예술동아리활동은 아직 대체로 활발하지 않은 것(2.79점)으로 나타났다. 문화원, 도서관, 문화의집은 그저 그런 편으로 나타났으며, 구민회관의 경우 대체로 활동이 없는 편으로 나타났다.

<표 4-7> 주민의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 정도

단위:평균(표준편차)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도서관	전체	F	sig.
주민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정도	2.13 (1.36)	3.38 (1.16)	3.00 (1.37)	2.59 (1.48)	2.79 (1.41)	2.966*	0.037

1점: 전혀 없는 편이다

2점: 대체로 없는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조금 활동하고 있다

5점: 매우 활발히 하고 있다

* p< .05

2) 문화예술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

문화복지시설은 현재 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 않는 것(3.33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문화복지시설은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들이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하고자 해도 연습할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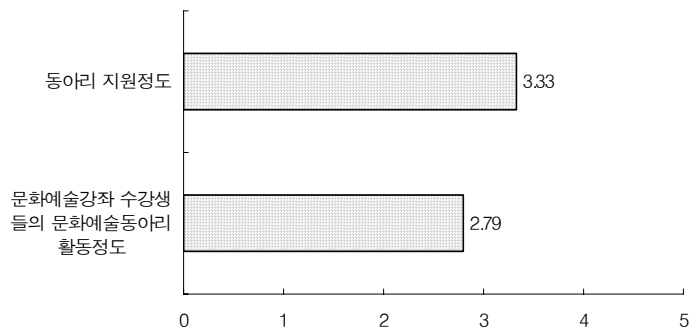
문화복지시설의 역할은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일회적 혜택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이며, 발전적인 형태의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예술동아리활동은 주민들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전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표 4-8> 주민의 문화예술동아리활동에 지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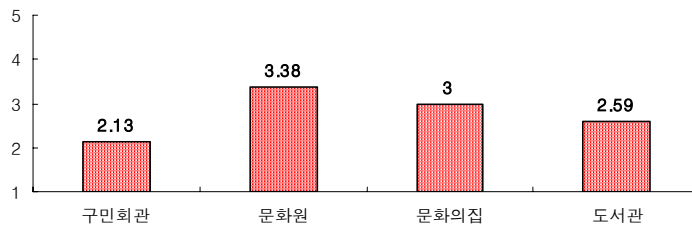
단위:평균(표준편차)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도서관	전체	F	sig.
주민의 문화예술 동아리활동에 지원정도	3.00 (1.55)	3.16 (1.17)	3.07 (1.22)	3.83 (1.15)	3.33 (1.23)	1.534	.216

1점: 전혀 하지 않고 있다 2점: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가끔 지원한다 5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림 4-10>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정도와 지원정도



<그림 4-11> 지역문화복지시설별 문화예술강좌수강생들의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정도

3) 온라인상 문화동호회항목 개설

홈페이지상에 문화강좌수강생을 중심으로 한 문화동호회항목을 개설하고 있는 기관은 3개 기관밖에 되지 않아(3.6%) 지역문화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민간의 온라인 문화네트워크는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온라인상 동호회항목은 오프라인상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앞으로의 오프라인의 동호회모임이나 오프라인 모임약속이나 오프라인상의 동호회계획을 서로 논의하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 또한 온라인의 특징대로 시간, 비용,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어서 구성원간의 친밀함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상 공간을 통한 친밀함과 빠른 의사결정은 오프라인의 활동을 더욱 촉진시킨다.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혜택을 주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 문화복지시설은 온라인상 동호회항목 개설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표 4-9> 홈페이지상 문화동호회개설 유무

단위:빈도(%)

문항	응답	구민 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홈페이지상	있다	-	-	1(5.3)	2(6.9)	3(3.6)
문화동호회란 유무	없다	16(100.0)	20(100.0)	18(94.7)	27(93.1)	81(97.4)

※ 응답대상자를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정함

5.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 방향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온라인 문화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하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상 문화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한 그 구성효과를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에 대한 문화복지시설 의견조사는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의 핵심거점이 되는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필요도와 구축되어야 할 DB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나 능력, 홈페이지 구축유무 및 관리능력에 대해 알아본 다음,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의 필요성과 구축방향과 문화정보네트워크가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개개의 문화복지시설에서 해야할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과제에 대한 문화복지시설 운영자의 필요도 및 선호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 및 구성효과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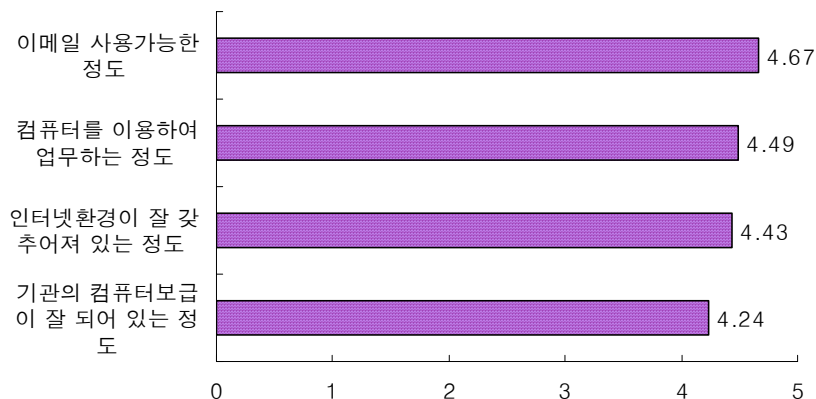
1)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1) 정보화현황 및 향후계획

① 정보화 현황

전체적으로 컴퓨터보급율, 인터넷 환경 등 기본적인 정보화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고, 또한 업무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정도와 이메일 이용능력 등 기본적인 정보화능력이 갖추어졌다고 평가된다. 도서관의 경우 정보화환경 및 능력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화 환경면에서는 문화원이 다른 시설보다 가장 미비하고 정보화능력은 구민회관과 문화의집이 다른 시설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경우 1997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였고, 또한 도서DB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출반납시스템 등 컴퓨터에 친숙한 환경이어서 다른 문화복지시설보다 정보화환경과 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원의 경우 비영리 법인형태라서 전적으로 구와 서울시(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다른 문화시설보다 정보화환경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되며, 구민회관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이 공연·전시장 대여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보화능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문화의집도 재원과 인력부족문제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매년 반복하는 데 급급해서 외부의 정보에 대해 다소 둔감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정보화 현황

<표 4-10> 정보화 현황

단위:평균(표준편차)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F	Sig.
정보화 환경	컴퓨터보급이 잘 되어있는 정도	4.22 (.85)	3.81 (1.40)	4.00 (1.05)	4.71 (.59)	4.24 (1.02)	4.150**	.008
	랜선·pc통신 등 인터넷환경이 잘 갖추어져있는정도	4.39 (.84)	4.00 (1.18)	4.11 (1.13)	4.94 (.25)	4.43 (.94)	6.041**	.001
정보화 능력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하는 정도	4.22 (1.04)	4.57 (.68)	4.05 (1.18)	4.90 (.30)	4.49 (.88)	5.325**	.002
	직원들이 이메일 사용이 가능한 정도	4.22 (.95)	4.86 (.36)	4.53 (.96)	4.97 (.18)	4.67 (.72)	6.410**	.001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조금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 p < .001

② 홈페이지 구축현황

도서관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의 무료홈페이지 구축사업이 1997년부터 이루어져 비교적 빨리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게 되었고, 또 주민들의 웹상에서 도서검색의 요청에 의해 전수의 도서관이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게 되었다.

홈페이지가 가장 적게 구축된 곳은 구민회관이었는데, 구민회관의 경우 주로 프로그램 운영만을 구청 문화관련과(문화공보과, 문화체육과, 공보체육과, 사회문화과 등)에서, 공연장·전시장 대여 및 시설운영관리는 구민회관상주 직원에서 하여 둘로 나누어져 어느 곳도 구민회관의 독자적인 홈페이지구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책임의 양분에 의해 구태여 새로운 것을 모색하려하고 있지 않으면서, 구민회관의 전체적인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청홈페이지에 간략한 소개로 대관 및 프로그램 안내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업데이트도 되지 않은 것도 있었고, 구청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여러 항목을 눌러서 살살이 찾아야 찾을 수 있었다.

구민회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개설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구청홈페이지에 구민회

관란을 만들어 프로그램안내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시키고, 주민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유게시판을 우선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청에서 현재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민회관을 현재 이용하는, 또 앞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을 위해 구청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등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게시판을 만든다해도 누가 관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구민회관 상주직원과 구청 문화관련과 직원 모두 담당 업무와 관련된 것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문화의집은 주민과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곳이고, 이웃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거점시설이다. 문화의집의 경우에는 현재 담당 인력이 적어서 가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문화의집 프로그램 안내와 주민자유게시판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즉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문화의집 안내정도를 담고 있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다해도 현재 운영인력 가지고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태이다.

문화원은 홈페이지를 구축한 기관과 구축하지 못한 기관이 반반이었는데, 비영리법인이라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앞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어렵고, 실무직원이 사무국장과 직원1명이나 2명 정도인 기관이 많아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해도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상태이다.

면접조사결과 면접조사결과, 현재 홈페이지가 없다고 응답하는 기관도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응답했고 구축의 컨설팅이나 구축기술을 전담해주는 기관이 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구민회관은 구청에서, 문화원은 자체적으로, 문화의집은 구청에서,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또는 기타(서울시 교육청)에서 구축해준 경우가 많았다. 도서관은 1997~1998년 사이 다른 문화복지시설보다 이른 시기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화환경에 가장 빠르게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문화복지시설은 2001~2002년 사이에 대부분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대부분 직접적으로 관리할 정도로(93.5%) 정보화능력이 높은 수준에 있고, 문화의집, 구

민회관은 구청에서 서버관리를 하고 문화원은 외주에서 관리를 주로 맡기고 있다.

<표 4-11> 홈페이지 구축유무

단위: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다.	있다	4(17.4)	12(57.1)	7(36.8)	31(100.0)	54(57.4)
	없다	19(82.6)	9(42.9)	12(63.2)	-	40(42.6)
	전체	23(100.0)	21(100.0)	19(100.0)	31(100.0)	94(100.0)

$\chi^2 = 41.359$ Sig. = .000

<표 4-12> 홈페이지구축 기관

단위: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홈페이지가 구축기관	자체	-	7(58.3)	-	16(53.3)	23(44.2)
	구청	3(100.0)	1(8.3)	5(71.4)	1(3.3)	10(19.2)
	기타	-	4(33.3)	2(28.6)	13(43.3)	19(36.5)
	전체	3(100.0)	12(100.0)	7(100.0)	30(100.0)	52(100.0)

$\chi^2 = 31.933$ Sig. = .000

<표 4-13> 홈페이지 구축연도

단위: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홈페이지 구축연도	1996	-	-	-	1(3.3)	1(2.0)
	1997	-	-	-	9(30.0)	9(18.0)
	1998	-	-	-	7(23.3)	7(14.0)
	1999	-	1(9.1)	-	5(16.7)	6(12.0)
	2000	1(50.0)	3(27.3)	3(42.9)	2(6.7)	9(18.0)
	2001	-	7(63.6)	4(57.1)	5(16.7)	16(32.0)
	2002	1(50.0)	-	-	1(3.3)	2(4.0)
	전체	2(100.0)	11(100.0)	7(100.0)	30(100.0)	50(100.0)

$\chi^2 = 38.243$ Sig. = .004

면접조사결과. 홈페이지서버를 외주에 맡기는 기관은 외부업체에서 업데이트 하여 업데이트를 빨리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표 4-14> 서버관리

단위: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서버관리 주체	자체	-	3(27.3)	-	29(93.5)	32(61.5)
	구청	3(100.0)	1(9.1)	5(71.4)	1(3.2)	10(19.2)
	외주	-	7(63.6)	2(28.6)	1(3.2)	10(19.2)
	전체	3(100.0)	11(100.0)	7(100.0)	31(100.0)	52(100.0)
운영관리 주체	자체	2(66.7)	8(66.7)	2(28.6)	29(93.5)	41(77.4)
	구청	1(33.3)	-	1(14.3)	1(3.2)	3(5.7)
	기타	-	4(33.3)	4(57.1)	1(3.2)	9(17.0)
	전체	3(100.0)	12(100.0)	7(100.0)	31(100.0)	53(100.0)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도서관의 경우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문화의 집은 기타(외주+ 자체운영)가 가장 많았고, 문화원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좀더 많았다.

홈페이지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다른 업무와 겹하고 있어서(37.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26.7%)’, ‘담당인력이 부족해서(17.8%)’ 등이 홈페이지운영에 어려운 점이었다. 시설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문화원은 ‘업데이트하거나 운영할 비용이 없다’는 응답도 많았고, 다른 시설에 비해 도서관은 ‘다른 업무와 겹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면접조사결과, 대부분의 도서관의 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에서 2명 정도였는데, 대부분 사서업무나 다른 전산업무와 중복으로 하고 있고 전문지식도 풍부하지 않아 홈페이지의 개편이나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고 싶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최소한의 기본형태를 갖추고, 단조로운 편이었다. 또한 전문적인 인력이 없는 실정에다 교육을 받아도 단편적이고 초보적인 것만 받아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였다.

<표 4-15> 홈페이지 운영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빈도(%)

문 항	응 답	구민 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홈페이지 운영시 가장 어려운 점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업데이트하기 어려움	2(66.7)	3(30.0)	-	7(25.0)	12(26.7)
	업데이트하거나 운영할 비용이 없음	-	3(30.0)	-	2(7.1)	5(11.1)
	주민들이 이용하지않아 운영할 의욕이 안 생김	-	-	2(50.0)	-	2(4.4)
	담당인력부족으로 운영하 기 어려움	-	1(10.0)	1(25.0)	6(21.4)	8(17.8)
	다른 업무와 겹쳐서 운영 어려움	1(33.3)	3(30.0)	1(25.0)	12(42.9)	17(37.8)
	기 타	-	-	-	1(3.6)	1(2.2)
	전 체	3(100.0)	10(100.0)	4(100.0)	28(100.0)	45(100.0)

<표 4-16> 홈페이지 운영관련 교육을 받은 횟수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구민 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F	Sig.
홈페이지 운영관련 교육을 받은 횟수	.67 (1.15)	.50 (.97)	.50 (1.00)	1.13 (.78)	.91 (.88)	1.824	.157

<표 4-17> 자체운영의 경우 운영인원

단위:빈도(%)

문 항	응 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자체운영의 경우 운영 인원수	1명	2(66.7)	6(75.0)	4(100.0)	24(80.0)	36(80.0)
	2명	1(33.3)	2(25.0)	-	5(16.7)	8(17.8)
	3명	-	-	-	1(3.3)	1(2.2)
	전체	3(100.0)	8(100.0)	4(100.0)	30(100.0)	45(100.0)

홈페이지 운영시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업데이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그러면 문화복지시설 홈페이지운영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홈페이지관련 평균 교육을 받은 회수를 보면 .91회로 평균1회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치상으로는 도서관이 1.13회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4-18> 홈페이지 운영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유

단위:빈도(%)

문 항	응 답	구민 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홈페이지 운영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유	일이 바빠서	-	2(22.2)	-	8(27.6)	10(23.3)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어 별로 도움이 되지않아서	-	1(11.1)	1(33.3)	2(6.9)	4(9.3)
	교육기회가 없어서	-	4(44.4)	-	10(34.5)	14(32.6)
	관심이 없어서	1(50.0)	-	-	-	1(2.3)
	비용이 부담되어서	-	-	-	2(6.9)	2(4.7)
	기 타	-	-	1(33.3)	-	1(2.3)
	참석하기 어렵지 않다	1(50.0)	2(22.2)	1(33.3)	7(24.1)	11(25.6)
	전 체	2(100.0)	9(100.0)	3(100.0)	29(100.0)	43(100.0)

홈페이지 운영관련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교육기회가 없어서’(32.6%), ‘일이 바빠서’(23.3%),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어서’(9.3%)였다.

종합해서 보면, 현재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다른 업무와 중복되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등의 문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홈페이지 구축에 지식을 갖고 있거나 전산학과 재학 공익근무요원을 구청별로 1인~2인 정도 파견하거나 구청직원 중 전담직원을 자치구내에 문화복지시설에 파견하여 컨설팅과 구축기술을 전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의집이나 구민회관처럼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확대라는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일하는 문화원의 경우에도 구청에서 무료로 서버를 관리해주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운영지원사항

홈페이지 운영시 필요한 지원사항으로 ‘홈페이지나 디지털기술에 관한 교육(4.66점)’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화 예산의 증액의 필요(4.60점)’, ‘홈페이지 서버관리·운영 카운셀링 및 기술적 지원기관의 필요’(4.33점)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 홈페이지 운영지원 사항

단위: 평균(표준편차)

항목	구민 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F	sig.
카운셀링 및 기술적 지원 기관이 필요한 정도	4.67 (.58)	4.42 (1.16)	4.17 (.75)	4.30 (1.02)	4.33 (.99)	.198	.897
인력지원이 필요한 정도	4.00 (1.00)	4.17 (1.34)	3.17 (.75)	3.83 (1.21)	3.84 (1.19)	.958	.420
홈페이지나 디지털기술교 육이 필요한 정도	4.67 (.58)	4.75 (.45)	3.83 (.75)	4.79 (.41)	4.66 (.56)	6.874**	.00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 리등 정보화예산의 증액 이 필요한 정도	4.33 (.58)	4.83 (.39)	3.83 (.75)	4.68 (.65)	4.60 (.66)	4.083*	.012
랜선이나 컴퓨터 구입등 인터넷 환경구축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정도	4.33 (.58)	4.58 (.67)	4.00 (.63)	3.74 (1.53)	4.00 (1.28)	1.338	.273
무료서버이용을 위한 서 울시의 통합서버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정도	4.00 (.00)	4.75 (.45)	3.33 (1.03)	3.48 (1.46)	3.79 (1.30)	3.443*	.024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조금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④ 향후 홈페이지 구축계획

홈페이지를 아직 구축하지 않은 문화복지시설 중 향후 ‘구축하고 싶다’(67.5%)고 응답한 시설이 더 많았다. 몇몇 문화원과 문화의 집의 경우 향후 구축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주이용자가 인터넷 활용능력이 낮은 주부라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보화가 발달되어 정보화격차가 좁혀지면 주부계층에게도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될 것은 명백하다. 손쉽고 빠르게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인터넷 활용능력의 증대에 대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하며, 지금 당장 주민들이 관심이 없더라도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해야 한다.

다른 문화복지시설과 달리 구민회관만 유일하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것은 대부분 구민회관의 경우 구청의 소개페이지란에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구민회관 조직자체가 관리와 프로그램운영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표 4-20> 향후 홈페이지 구축의향 여부

단위:빈도(%)

문 항	응 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전체
향후 홈페이지 구축의향 여부	구축하고 싶다	9(45.0)	9(100.0)	9(81.8)	27(67.5)
	구축하고 싶지 않다	11(55.0)	-	2(18.2)	13(32.5)
	전 체	20(100.0)	9(100.0)	11(100.0)	40(100.0)

$\chi^2 = 9.977$ Sig. = .007

<표 4-21>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어려운 점

단위:빈도(%)

문 항	응 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전체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어려운 점	구축할 예산이 없어서	4(20.0)	3(33.3)	1(9.1)	8(20.0)
	전문인력이나 기술이 없어서	3(15.0)	1(11.1)	4(36.4)	8(20.0)
	구축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3(15.0)	1(11.1)	2(18.2)	6(15.0)
	다른 업무에 바빠서	-	4(44.4)	-	4(10.0)
	기 타	10(50.0)	-	4(36.4)	14(35.0)
	전 체	20(100.0)	9(100.0)	11(100.0)	40(100.0)

$\chi^2 = 21.917$ Sig. = .005

<표 4-22> 정보제공 · 홍보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주로 이용하는 매체

단위:빈도(%)

문 항	응 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전체
귀 기관에서 정보제공 · 홍보 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주로 이용하는 매체	서울시청 홈페이지	1(5.0)	-	-	1(2.5)
	구청 홈페이지	15(75.0)	6(66.7)	8(72.7)	29(72.5)
	동사무소(주민자치 센터)홈페이지	-	-	2(18.2)	2(5.0)
	기 타	3(15.0)	1(11.1)	-	4(10.0)
	없 다	1(5.0)	2(22.2)	1(9.1)	4(10.0)
	전 체	20(100.0)	9(100.0)	11(100.0)	40(100.0)

$\chi^2 = 9.797$ Sig. = .280

어느 곳도 능동적으로 새로운 일을 맡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청홈페이지 안에 구민회관 소개페이지는 찾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구청을 통해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어렵고 딱딱한 형식이 대부분이며, 주민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온라인상 공간을 찾아보기 어렵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설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구민회관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홈페이지에서 구민회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축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는 곳이 많았고, 문화원의 경우는 ‘구축할 예산이 없거나’, ‘다른 업무에 바빠서’, 문화의집의 경우 ‘전문인력이나 기술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홈페이지가 없는 문화복지시설에서는 구청홈페이지를 주로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①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참여여부

가.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문화복지시설은 문화정보제공과 문화활동관련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4.40점)는 입장을 보였다. 시설별로는 문화원(4.62점), 도서관(4.65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문화의집(4.05점), 구민회관(4.14점)의 경우 ‘조금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문화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또 관련기관 및 전문가, 주민간의 정보공유를 위해서도 온라인상 문화네트워크 구축은 매우 필요하다.

나.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 후 정보서비스 이용여부

문화복지시설은 문화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시설별로 큰 차이없이 ‘이용하겠다’(4.40점)는 응답을 하였다.

다.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에 정보제공여부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후 간단한 소개와 우수프로그램정보, 프로그램강사정보 등을 구축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문화복지시설은 대부분 참여하겠다(4.23점)는 의사를 밝혔다. ‘문화네트워크 구축필요성’과 ‘문화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의사’ 보다는 그 평균점수가 약간 낮긴 했지만, 대부분 정보서비스를 구축

하는데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표 4-23>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정보제공여부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구민 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F	sig.
문화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4.14 (.99)	4.62 (.59)	4.05 (.91)	4.65 (.61)	4.40 (.81)	3.705	.015
문화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의사	4.45 (.67)	4.48 (.68)	4.00 (.82)	4.55 (.77)	4.40 (.75)	2.398	0.73
문화네트워크 에 정보제공 등 참여여부	4.05 (.95)	4.33 (.80)	3.95 (.85)	4.45 (.77)	4.23 (.85)	1.912	.133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조금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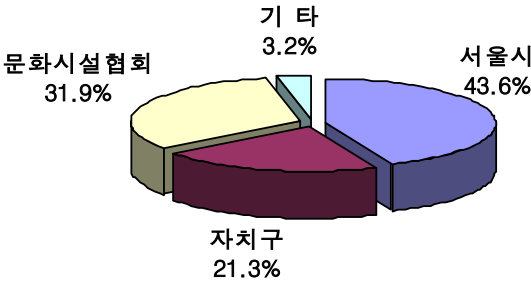
5점: 매우 그렇다

②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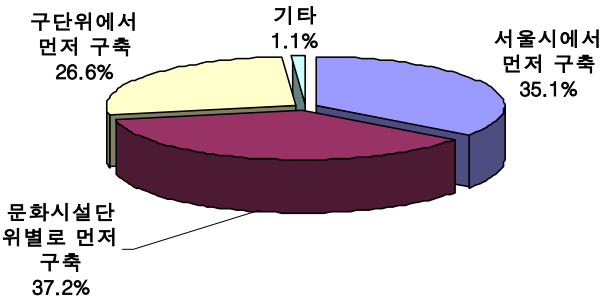
서울시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의 중심기관이 되어야 할 기관은 ‘서울시’(43.6%)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기관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문화시설협회’(31.9%), ‘자치구’(21.3%)순으로 나왔다.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시 서울시가 다른 기관보다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문화정보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35.1%)과 ‘문화시설단위별로 홈페이지를 먼저 구축해주고 정보화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37.2%)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우선순위를 가리기 힘든 중요한 것이라 보인다.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사이트 구축’된다면, 이것은 정보의 집적화로 인해 기관과 시민들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서울시 문화복지시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고 시설과 주민간의 그리고 주민과 주민간의 시설과 시설간의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개개의 문화시설단위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보화환경을 만드는 것도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하고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문화시설단위별로 정보화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전체의 문화정보네트워크에 대한 시설참여율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선 순위를 따지기보다는 서로 병행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예산이 문제겠지만, 점진적으로 현재 문화복지시설과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부터 DB화하고 문화복지시설의 홈페이지 구축과 정보화 환경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림 4-13>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의 중심기관



<그림 4-14>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방향

<표 4-24>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 중심기관

단위:빈도(%)

문 항	응 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서울시 문화 정보네트워크 구축중심기관	서울시	12(52.2)	7(33.3)	7(36.8)	15(48.4)	41(43.6)
	자치구	6(26.1)	1(4.8)	8(42.1)	5(16.1)	20(21.3)
	문화시설 협회	4(17.4)	12(57.1)	4(21.1)	10(32.3)	30(31.9)
	기 타	1(4.3)	1(4.8)	-	1(3.2)	3(3.2)
	전 체	23(100.0)	21(100.0)	19(100.0)	31(100.0)	94(100.0)

$\chi^2 = 15.736$ sig. = .073

<표 4-25>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구축 우선순위

단위:빈도(%)

응 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상 문화네트워크를 먼저구축	9(39.1)	6(28.6)	4(21.1)	14(45.2)	33(35.1)
문화시설단위별로 홈페이지를 먼저 구축해주고 정보화환경을 마련	5(21.7)	11(52.4)	7(36.8)	12(38.7)	35(37.2)
구단위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상 문화네트워크를 먼저구축	8(34.8)	4(19.0)	8(42.1)	5(16.1)	25(26.6)
기 타	1(4.3)	-	-	-	1(1.1)
전 체	23(100.0)	21(100.0)	19(100.0)	31(100.0)	94(100.0)

$\chi^2 = 12.231$ sig. = .201

③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콘텐츠의 선호도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어떤 콘텐츠를 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콘텐츠 결정시에는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거나 문화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소수리더들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결정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온라인 문화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콘텐츠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광범위한 문화정보중에서 이용 및 참여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항목을 선정해야 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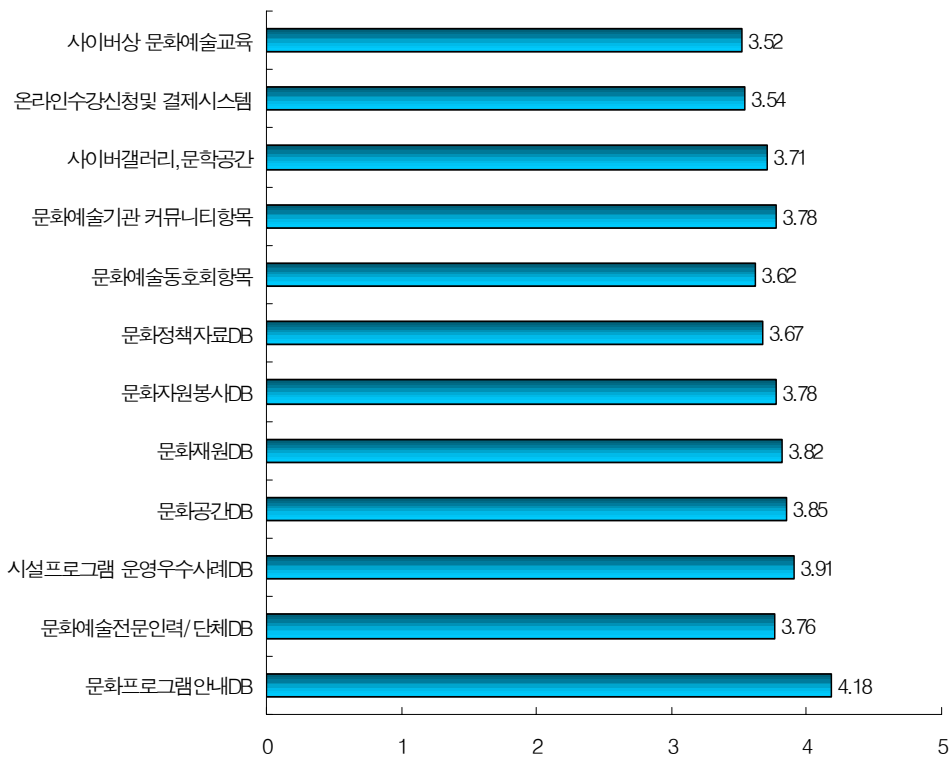
따라서 본 조사에서 다음 표와 같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선호도를 물어본 결과, 문화복지시설은 ‘문화프로그램 안내(4.18점)’, ‘시설 및 프로그램 우수사례(3.91점)’, ‘문화공간DB(3.85점)’, ‘문화재원DB(3.82)’, ‘문화예술기관 커뮤니티항목(3.78점)’, ‘문화자원봉사DB(3.78점)’순으로 높았고,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것은 ‘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3.54점)’, ‘사이버상 문화예술교육(3.52점)’이었다.

<표 4-26>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콘텐츠의 주요항목

①문화프로그램안내DB	시소재의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진 문화강좌 및 문화예술행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②문화예술전문인력/단체DB	국내 문화예술관련 인물(문화예술강좌강사, 문화프로그램기획자, 문화예술경영전문가), 단체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종합적 제공
③시설·프로그램운영 우수사례DB	시설 및 프로그램 우수운영사례의 제공과 강좌나 행사진행시 필요한 매뉴얼과 주의사항을 제시 등을 제공
④문화공간DB	서울의 문화시설에 대한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공연장 대관정보, 이용방법, 교통정보 등)를 제공
⑤문화재원DB	서울시 소재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되는 자원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⑥문화자원봉사DB	홈페이지 관리 및 시설운영을 돕기 원하는 자원봉사자정보 제공
⑦문화정책자료DB	국내외 문화예술연구기관 및 관련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공
⑧문화예술동호회 항목	문화시설의 수강자나 문화활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온라인상 동호회 제공
⑨문화예술기관 커뮤니티 항목	문화시설에서 근무하는 운영자간의 상호정보 교류 및 친목도모를 하기 위한 공간 제공
⑩사이버갤러리·문학 공간	문화시설의 수강생들이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 제공
⑪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	온라인상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결제할 수 있게 하여 주민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제공
⑫사이버문화예술교육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으로 문화예술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함

가. 문화프로그램안내DB

문화프로그램안내DB를 가장 선호하는 것(4.18점)으로 보아 문화복지시설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온라인상 문화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자치구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정보를 종합적



<그림 4-15>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콘텐츠 선호도

으로 제공하는 것은 주민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중에서 선택할 기회를 넓히고, 문화복지시설에게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즉, 다양한 정보의 집적화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그곳은 시설의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는 것이다.

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우수사례DB

시설·프로그램 운영우수사례에 관한 정보를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3.91점), 지역문화복지시설이 현상유지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구민회관은 주부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의 비슷비슷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우수사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표 4-27>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콘텐츠 선호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구민 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F	Sig.
1위:문화프로그램안내DB	4.20 (.62)	4.62 (.59)	4.05 (.78)	3.93 (1.01)	4.18 (.83)	3.228	.026
2위:시설및프로그램 운영우수사례DB	3.90 (1.07)	3.86 (1.06)	3.84 (.69)	4.00 (.95)	3.91 (.94)	.142	.934
3위:문화공간 DB	3.85 (.59)	3.86 (1.06)	3.79 (.71)	3.90 (1.01)	3.85 (.87)	.056	.983
4위:문화재원 DB	3.68 (.75)	4.00 (1.05)	3.68 (.67)	3.87 (1.11)	3.82 (.94)	.542	.655
5위:문화예술기관커뮤니 티 항목	3.90 (.91)	3.75 (1.16)	3.74 (.73)	3.73 (.94)	3.78 (.94)	.149	.930
5위:문화자원봉사 DB	3.65 (.88)	4.05 (1.07)	3.47 (1.17)	3.87 (1.07)	3.78 (1.06)	1.153	.332
7위:문화예술전문인력 /단체DB	3.60 (.99)	4.05 (1.05)	3.42 (.90)	3.90 (1.05)	3.76 (1.02)	1.618	.191
8위:사이버갤러리·문화 공간	3.84 (.83)	3.95 (1.12)	3.53 (1.07)	3.57 (1.07)	3.71 (1.04)	.873	.458
9위:문화정책자료 DB	3.70 (.86)	3.86 (1.11)	3.32 (.89)	3.73 (.98)	3.67 (.97)	1.156	.331
10위:문화예술동호회 항목	3.55 (.89)	4.00 (1.03)	3.37 (.83)	3.57 (.94)	3.62 (.94)	1.665	.181
11 위:온 라인 수 강 신 청 및 결제시스템	3.75 (.97)	4.00 (1.14)	2.79 (1.13)	3.57 (1.25)	3.54 (1.20)	4.097	.009
12위:사이버상 문화예술 교육	3.45 (.89)	3.81 (1.25)	3.37 (1.12)	3.47 (1.11)	3.52 (1.09)	.655	.582

1점: 전혀 필요없음 2점: 필요없는 편임 3점: 보통임

4점: 필요한 편임 5점: 매우 필요함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많은 지역문화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좋은 정보가 된다.

다. 문화공간DB

문화공간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기를 원했는데(3.85점) 문화복지시설은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내에서 자신의 기관을 홍보하고, 또 공연장 대관정보 등 타시설이용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문화자원DB

문화재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데(3.82점), 현재 유익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시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전반적인 지역문화복지시설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문화원은 문화자원DB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문화복지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구나 시에서 지원을 전적으로 받지 않는 법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표 4-28> 문화복지시설의 재정적 어려움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구민회 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F	Sig.
우수한 프로그램·행사 기획시 예산의 부족성	3.50 (1.32)	4.62 (.59)	4.06 (1.00)	4.63 (.67)	4.26 (1.01)	7.784	.000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4.17 (.62)	4.79 (.42)	3.93 (1.14)	4.68 (.55)	4.46 (.75)	6.414	.001

마. 문화예술기관 커뮤니티 항목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기관 커뮤니티 항목의 선호도가 높았는데(3.78점), 이 결과로 보아 지역문화복지시설에서도 서로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문화자원봉사DB항목

대부분의 문화복지시설은 인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고 홈페이지, 프로그램진행 등 많은 분야에서 문화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문화자원봉사DB 항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3.78점)으로 나타났다.

<표 4-29> 문화복지시설의 재정적 어려움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구민 회관	문화 원	문화의 집	도서 관	전체	F	Sig.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한 정도	3.70 (1.08)	4.57 (.68)	3.84 (.96)	4.37 (.85)	4.16 (.95)	4.575	.005

사. 문화예술전문인력/단체DB, 사이버갤러리·문학공간 등

다음으로는 문화예술전문인력/단체DB(3.76점), 사이버 갤러리·문학공간(3.71점), 문화정책자료DB(3.67점), 문화예술동호회항목(3.62점)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아. 온라인 문화강좌신청 및 결제시스템

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 서비스는 3.54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화복지시설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문화원’, ‘구민회관’의 경우 선호도가 높았던 것에 반해 ‘문화의집’의 경우 상당히 선호도가 낮았다.

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 서비스의 선호도가 낮은 이유는 서울시 문화정보 네트워크 사이트에 서울시 문화복지시설 홈페이지에서 총괄적으로 온라인 문화강좌신청을 받거나 결제하는 것보다 개개의 시설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을 더 선호해서 그러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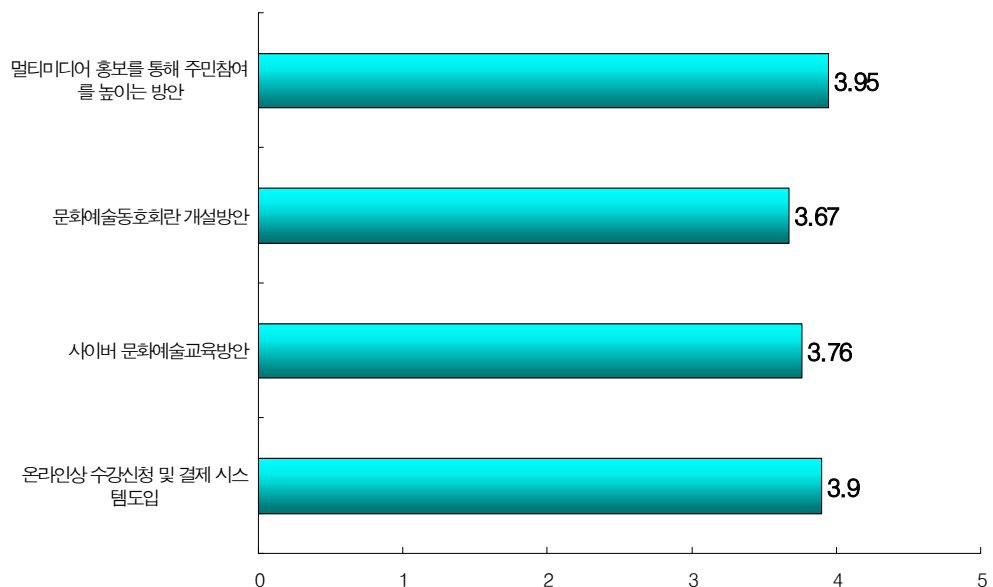
자. 사이버 문화예술교육

사이버 문화예술교육의 점수가 3.5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이버상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로 나누어진다. 사이버상의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싶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견해와 주 대상이 주부라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상 문화교육은 시기상조이고 컴퓨터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3) 문화복지시설단위의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지금까지 온라인 문화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온라인상 정보공유 및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의 필요성, 참여여부와 필수컨텐츠의 선호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하에서는 개별 문화복지시설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문화복지시설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으로는 시설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문화예술동호회항목 개설, 인터넷상의 동영상 문화예술교육, 온라인상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 온라인상의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그림 4-16> 문화복지시설단위의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러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문제이지만 문화복지시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중도에 허사가 되기 쉽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화환경에 변화하기를 두려워한다거나 오프라인만으로도 충분히 유지되는 데 온라인 네트워크를 추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등 문화복지시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에 관심과 지원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벽에 부딪히고 만다.

따라서 우선 온라인 문화네트워크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문화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 ‘멀티미디어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를 높이는 방안’(3.95점)에 대해 시설별로 차이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주민과 주민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문화수강생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동호회란 개설방안’(3.67점)에 대해서도 시설별로 의견의 차이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시민의 문화향유기회의 확대를 넓히는 차원에서 직장인, 고등학생 등 시간이 없는 사람이나 거동이 불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인터넷상의 동영상강좌를 실시하는 방안(사이버상 문화예술교육)’(3.76점)에 대해 시설별로 의견의 차이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표 4-30> 문화복지시설단위의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방안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구민 회관	문화 원	문화의 집	도서 관	전체	F	Sig.
문화강좌수강생중심의 문화 동호회개설의 필요정도	3.69 (.87)	3.95 (.89)	3.50 (.92)	3.56 (.97)	3.67 (.92)	.958	.417
인터넷상의 사이버 문화예술 교육도입의 필요정도	3.65 (.61)	3.90 (.94)	3.50 (.86)	3.90 (.86)	3.76 (.84)	1.145	.336
온라인상 수강신청, 확인, 결 제시스템도입의 필요정도	4.00 (.61)	3.95 (.92)	3.17 (.99)	4.29 (.98)	3.90 (.98)	5.758	.001
온라인상 멀티미디어를 이용 한 홍보도입의 필요	3.90 (.94)	4.16 (.90)	3.67 (.91)	4.04 (.73)	3.95 (.87)	1.115	.348

1점: 전혀 필요없다

2점: 필요없는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필요하다

5점: 매우 필요하다

주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온라인 수강 신청 및 결제시스템 도입’(3.90점)하는 것에 대해 전체응답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다른 문화복지시설과 달리 문화의 집은 그냥 미온적인 응답을 해주었다. 이러한 응답을 보인 것은 다른 문화복지시설보다 문화의 집은 운영하는 인력이 적고 정보화능력도 높지 않아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갖고 있어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새로운 도입에서 오는 업무량에 대해 우려하여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 해석된다.

2) 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1) 프로그램 질 제고와 접근성 확대를 통한 주민과 시설간의 네트워크 강화

각 구별로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존재하지만 변화 없이 매회 동일강좌를 진행하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적인 상황은 본래의 문화향수권의 확대라는 목적달성을 어렵게 한다.

주민과 시설간의 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를 강화시키려면 다시 말해서 주민과 가까운 시설, 주민과 항상 의견을 교류하는 문화시설,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시설이 되려면,

주민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며, 또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열려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먼저 이하에서는 지금의 문화복지시설은 어떤 점이 부족하여 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를 촉진시키기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① 프로그램 질 제고와 접근성 확대를 통한 주민과 시설간의 오프라인 네트워크강화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하기 어려운 이유

문화복지시설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4.26점),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며(4.16점), ‘실무자들의 재교육 및 연수교육의 기회가 부족’(4.07점), ‘전문적인 기획능력이 부족’한 것(3.51점)으로 나타난다. 즉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획능력, 절대적인 인력,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문화복지시설은 상당히 한계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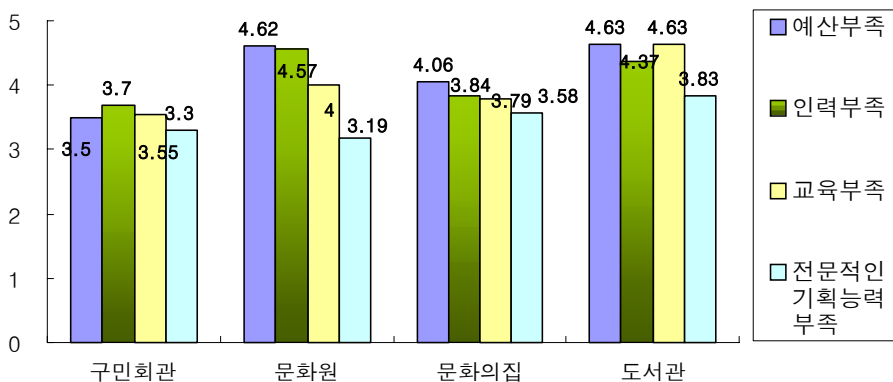
특히 문화복지시설 중 예산의 부족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는 곳은 ‘문화원’과 ‘도서관’이었고, ‘문화의 집’ 또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문화원’의 경우 대부분 구청이나 시에서 지원을 전적으로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질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서관의 경우는 문헌제공이 주목적이라 문화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다. 구민회관의 경우 거의 예산면에서 부족함을 가장 낮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산을 전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예산의 부족함을 상대적으로 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함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곳은 문화원이었는데, 문화원의 경우 실무자가 사무국장1명, 직원 1명이나 2명 정도인 곳도 많아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곳이 많다. 구에 따라 다르긴 한데, A문화원의 경우 문화원직원이외에 구과전 직원 2명, 공익근무요원 5명 등 구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원보다 인력이 많은 이곳 또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도서관도 주목적이 문헌정보제공이 목적이라 문화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면접조사시 문화의집도 인력이 부족하여 문화강좌를 진행하는 것에 급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호소하였고, 심지어는 인력이 없어 일주일에 1번도 쉬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다.

실무자들의 재교육 및 연수교육의 부족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은 ‘도서관’으로 나타났다고, ‘문화원’, ‘문화의집’, ‘구민회관’순으로 나타났다.¹⁾

전문적인 기획능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곳은 도서관과 문화의집으로 나타났는데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서관의 경우 사서이거나 공무원이고, 문화의집의 경우에도 순환보직으로 자주 바뀌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인력은 문화복지시설 중 거의 과반수가 없다는 응답(47.7%)이 나왔다.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비율은 문화원이 가장 높았고, 도서관, 문화의집, 구민회관 순이었다.



<그림 4-17> 우수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하기 어려운 이유

- 1) 구민회관의 경우 실무자의 전문적인 기획능력 부족과 실무자들의 재교육 및 연수교육부분에서의 부족감이 다른 문화복지시설보다는 낮게 나타난 것은 현실과 모순적인 응답이다. 실제로 구민회관의 경우 문화의 집이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과 강좌를 담당하는 것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 않은 순환보직의 공무원이고 또한 조직면에서도 공연장관리나 대관을 담당하는 직원과 문화행사 및 강좌를 담당하는 직원과 서로 의견교류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전문적인 기획자도 ‘없다’고 응답한 곳이 64.7%로 문화복지시설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획능력과 전문적인 연수교육의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것은 실제로 구민회관이 다른 기관보다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후한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31> 우수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구민 회관	문화 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F	Sig.
예산의 부족정도	3.50 (1.32)	4.62 (.59)	4.06 (1.00)	4.63 (.67)	4.26 (1.01)	7.784	.000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정도	3.70 (1.08)	4.57 (.68)	3.84 (.96)	4.37 (.85)	4.16 (.95)	4.575	.005
실무자들의 재교육 및 연수 교육의 부족정도	3.55 (1.15)	4.00 (1.05)	3.79 (1.13)	4.63 (.56)	4.07 (1.04)	5.991	.001
전문적인 기획능력의 부족 정도	3.30 (1.13)	3.19 (1.12)	3.58 (1.17)	3.83 (1.09)	3.51 (1.13)	1.656	.183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그저그렇다
4점: 조금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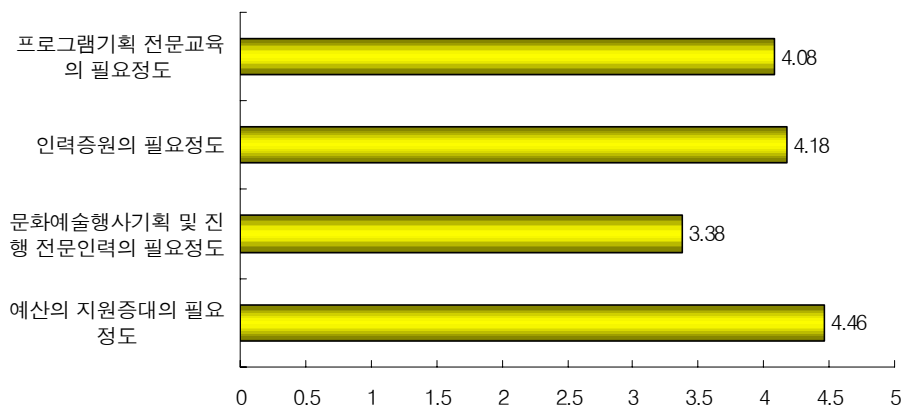
<표 4-32> 문화예술프로그램 전문기획·운영인력의 수

단위: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문기획· 운영인력의 수	없음	11(64.7)	6(28.8)	11(57.9)	13(44.8)	41(47.7)
	1명	3(17.6)	11(52.4)	6(31.6)	9(31.0)	29(33.7)
	2명	2(11.8)	3(14.3)	2(10.5)	4(13.8)	11(12.8)
	3명		1(4.8)		2(6.9)	3(3.5)
	4명	1(5.9)			1(3.4)	2(2.3)
	전체	17(100.0)	21(100.0)	19(100.0)	29(100.0)	86(100.0)

나.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문화복지시설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또 우수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4.46점)이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며(4.18점), 현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기획 전문교육(4.08점)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문화예술인의 필요성에 대해 3.38점으로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해주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문화복지시설운영자는 전문적인 기획능력을 가진 외부인사를 채용하기보다는 실무자들의 프로그램기획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



<그림 4-18>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표 4-33>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구민 회관	문화 원	문화의 집	도서 관	전체	F	Sig.
예산의 지원증대의 필요정도	4.17 (.62)	4.79 (.42)	3.93 (1.14)	4.68 (.55)	4.46 (.75)	6.414	.001
전문적인 문화행사기획 및 진행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의 필요정도	3.32 (1.00)	3.33 (1.11)	3.32 (1.06)	3.50 (1.28)	3.38 (1.12)	.163	.921
인력증원의 필요정도	3.84 (.90)	4.48 (.81)	3.79 (1.23)	4.43 (.63)	4.18 (.92)	3.776	.013
프로그램기획전문교육의 필요정도	3.95 (1.00)	3.90 (.83)	3.58 (1.02)	4.60 (.56)	4.08 (.91)	6.560	.000

타난다.

② 문화복지시설의 시간적·공간적 접근성 제고를 통한 주민이용의 확대

오프라인상 주민과 네트워크(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이용주민 및 프로그램참여 주민과의 의사소통의 수단을 다양하게 하여 서로 의견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좁은 의미에서는 중요하지만, 현재 문화복지시설의 이용률이 10%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시민의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

또한 더 많은 주민과 시설간의 문화네트워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된다. 먼저 문화복지시설의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문화복지시설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은 주부나 초등학생인데, 앞으로는 직장인과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이러한 계층의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개관을 하는 시설이 가장 많았고, 폐관을 하는 시간은 문화복지시설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문화원의 경우 오후 6시까지(81.0%), 문화의 집은 오후 8시까지(88.9%) 운영하는 곳이 많았고, 도서관과 구민회관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도서관의 경우도 열람실의 경우에만 10시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 토요일의 경우에는 평일보다 더 일찍 종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시간대의 운영은 자연히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혜택이 가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토요일에는 문화복지시설도 더 일찍 종료하는 곳이 많아 평일과 마찬가지로 직장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4-34> 평일개관시간

단위: 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평일 시작 시간	오전 9시 이전	3(13.0)		1(5.6)	23(74.2)	27(29.0)
	9시	19(82.6)	18(85.7)	6(33.3)	8(25.8)	51(54.8)
	9시 이후	1(4.3)	3(14.3)	11(61.1)		15(16.1)
	전체	23(100)	21(100)	18(100)	31(100)	93(100)

<표 4-35> 평일폐관시간

단위: 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평일 폐관 시간	오후 6시 까지	7(31.8)	17(81.0)	1(5.6)	3(9.7)	28(30.4)
	8시 까지	1(4.5)	2(9.5)	16(88.9)	6(19.4)	25(27.2)
	10시 까지	14(63.6)	1(4.8)	1(5.6)	21(67.7)	37(40.2)
	10시 이후	-	1(4.8)	-	1(3.2)	2(2.2)
	전체	22(100.0)	21(100.0)	18(100.0)	31(100.0)	92(100.0)

<표 4-36> 야간프로그램운영 및 활동공간 제공에 대한 의견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 항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F	Sig.
직장인 등을 위해 야간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공간 제공에 대한 의견	3.14 (1.17)	3.57 (1.16)	3.17 (1.04)	3.59 (1.15)	3.39 (1.14)	1.062	.370

직장인 등 낮시간에 문화예술활동을 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야간프로그램 운영 또는 활동공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결과를 보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나왔다. 현재의 낮시간 위주의 문화복지시설 운영시간과 야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을 보면, 현재 직장인이나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낮시간에 업무나 학습을 하는 계층에게 문화프로그램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앞으로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된다면 직장인들이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주말에 문화예술행사 관람이나 문화예술강좌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현재 도서관의 경우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한번씩, 또는 격주로 쉬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구민회관의 경우 휴일이 없는 곳이 많았고, 문화의집 또한 국경일에만 쉬는 경우가 많았고, 문화원은 일요일·공휴일 쉬는 곳이 가장 많았다(71.4%).

<표 4-37> 문화복지시설 휴무 현황

단위:빈도(%)

정기 휴무 요일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토·일요일	1(4.3)	4(19.0)	-	-	5(5.3)
일요일	4(17.4)	15(71.4)	5(26.3)	-	24(25.5)
국경일	5(21.7)	1(4.8)	14(73.7)	-	20(21.3)
없음	11(47.8)	-	-	-	11(11.7)
평일중 하루 휴무	-	1(4.8)	-	7(22.6)	8(8.5)
격주 휴무	2(8.7)	-	-	24(77.4)	26(27.7)
전 체	23(100.0)	21(100.0)	19(100.0)	31(100.0)	94(100.0)

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 접근성외에도 장소적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시설의 입지부터 주민거주밀집지역과 교통이 편리해 주민들이 찾아가기 쉬운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복지시설은 지가문제로 인해 지대가 저가인 주민의 생활권과 먼 곳에 건물을 짓고 있어 문제가 된다. 본 조사의 면접방문 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체험할 수 있었다. 많은 문화복지시설이 대중교통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곳이 많아, 10분 이상을 걸어간 곳도 많았고,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에게 물어봐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할 정도로 장소적 접근성이 낮았다.

<표 4-38> 문화복지시설의 장소적 접근성

단위: 평균(표준편차)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F	Sig.
교통의 편리함 정도	3.64 (1.33)	3.24 (1.34)	3.47 (1.22)	3.19 (1.35)	3.37 (1.31)	.594	.620
시설주변의 주민거주정도	3.55 (1.06)	3.86 (1.01)	4.00 (.75)	3.71 (1.24)	3.76 (1.06)	.704	.552

본 조사에서도 문화복지시설의 교통의 편리함정도(3.37점)에는 상당히 낮은 평가를 해주었고, 시설주변의 주민의 거주정도에 대해서 그리 높지 않은 평가(3.70점)를 봐도 장소적 접근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소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복지시설 경유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문화예술행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소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더 효과적으로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③ 주민의견반영을 위한 수시적인 설문조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회의를 하는 기관은 전체기관 중 67.0%에 이르렀는데, 그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도서관이 2.82회로 가장 많았고 문화의집이 1.82회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의 횟수가 주민

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만큼 많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진다.

시설운영에 있어서 시설이용을 하는 고객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회의를 하는 것은 일회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례적이면서도 반드시 주민이 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다음번 사업으로 피드백 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시설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만족도를 행사 후나 강좌의 분기가 끝난 후 평가하여 주민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복지시설도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주민욕구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설문조사나 회의인 것이다.

<표 4-39> 주민의견반영을 위한 수시적인 설문조사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F	Sig.
설문조사나 회의횟수 (연간)	1.91 (2.07)	2.15 (1.41)	1.82 (1.25)	2.82 (3.67)	2.33 (2.69)	.526	.666

(2)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 동아리 지원을 통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

수강중이나 수강 후에도 문화예술강좌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연습 및 학습을 위해 동아리를 결성한 곳은 전체(문화예술강좌를 하고 있는 곳만 제한:84개)의 69.0%정도였고 문화예술동호회가 아직 없는 곳도 31.0%나 되었고 특히 구민회관(56.3%)의 경우 동아리가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 구민회관보다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0> 문화예술강좌 수강생들의 동아리수

단위: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문화예술강좌 수강생들의 동아리수	없음	9(56.3)	2(9.5)	4(21.1)	11(39.3)	26(31.0)
	1-5 개	6(37.5)	14(66.7)	11(57.9)	13(46.4)	44(52.4)
	6-10개	-	3(14.3)	2(10.5)	3(10.7)	8(9.5)
	11-15개	1(6.3)	1(4.8)	2(10.5)	1(3.6)	5(6.0)
	16-20개	-	1(4.8)	-	-	1(1.2)
	전체	16(100.0)	21(100.0)	19(100.0)	28(100.0)	84(100.0)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91.2%로 거의 모든 문화복지시설에서 동아리를 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활동장소대여에 치중하고 있고 지도나 예산지원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동아리에서 요구 시에는 장소 외에도 학습지도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가장 시급히 확충이 필요한 시설로 공연장 다음으로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연습 공간이라는 응답이 나왔는데, 현재 이러한 공간에 대한 부족감을 문화복지시설운영자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공간 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구민회관의 경우 시설운영은 구민회관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구민회관에 상주하고 있지 않은 구청 가정복지과나 문화공보과 등에서 담당하여 이원체제라 적절하게 동아리 개설을 지도해줄 인력이나 지원도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곳도 다른 문화복지시설과 달리 장소대여 등으로 한정되어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동아리가 활성화되면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웃간의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최근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위와 같은 소규모 문화동아리를 육성해야 하며, 이러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집단행위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문화복지시설 및 지방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표 4-41> 동아리 지원 형태

단위: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동아리 지원 형태	활동지도	-	1(5.3)	-	1(5.9)	2(3.5)
	활동예산지원	-	2(10.5)	1(6.7)	1(5.9)	4(7.0)
	활동장소대여	4(66.7)	7(36.8)	11(73.3)	9(52.9)	31(54.4)
	활동장소 및 예산지원	-	6(31.6)	1(6.7)	-	7(12.3)
	활동장소지원 및 활동지도	-	1(5.3)	-	5(29.4)	6(10.5)
	세가지 모두	-	1(5.3)	-	1(5.9)	2(3.5)
	전혀하지 않음	2(33.3)	1(5.3)	2(13.3)	-	5(8.8)
	전체	6(100.0)	19(100.0)	15(100.0)	17(100.0)	57(100.0)

<표 4-42> 확장 및 확충이 필요한 시설

단위: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확장및 확충이 필요한 시설	공연장	4(18.2)	9(45.0)	1(5.3)	3(9.7)	17(18.5)
	강의실	2(9.1)	7(35.0)	3(15.8)	4(12.9)	16(17.4)
	전시공간	-	-	-	6(19.4)	6(6.5)
	주민들의 문화활동연습공간	7(31.8)	4(20.0)	1(5.3)	4(12.9)	16(17.4)
	열람실, 도서실	4(18.2)	-	3(15.8)	9(29.0)	16(17.4)
	휴게실 매점 등	-	-	-	1(3.2)	1(1.1)
	사무실	-	-	1(5.3)	-	1(1.1)
	기 타	-	-	5(26.3)	-	5(5.4)
	필요없다	5(22.7)	-	5(26.3)	4(12.9)	14(15.2)
	전 체	22(100.0)	20(100.0)	19(100.0)	31(100.0)	9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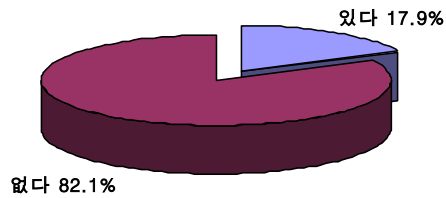
(3)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시설간의 교류강화

① 교류협의체 설립 지원

프로그램 내용과 대상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계층을 대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성화 미흡, 교육프로그램의 질 저하(아래의 표 참조), 초급 강좌의 편중으로 인한 지속적인 문화학습활동 저해,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문화복지시설마다 상위기관이 달라 서로 협력하기 힘들며, 정보공개에 대해서 꺼려하고,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체제의 미비 등이 정보교환 및 역할 분담을 어렵게 하여 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종시설뿐만 아니라 같은 자치구안에서 문화복지시설간의 연계와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 설립이 필요하다.

② 우수프로그램을 공동기획 및 순회공연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한 경우는 전체 문화복지시설의 17.9%에 지나지 않았지만, 향후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동기획 및 순회공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3.52점으로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림 4-19> 타기관과의 공동기획여부

<표 4-43> 다른 기관과 문화프로그램을 공동기획 여부

단위:빈도(%)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다른 기관과 문화프로그램을 공동기획여부	있다	-	9(42.9)	2(11.1)	4(14.3)	15(17.9)
	없다	17(100.0)	12(57.1)	16(88.9)	24(85.7)	69(82.1)
	전체	17(100.0)	21(100.0)	18(100.0)	28(100.0)	84(100.0)

$\chi^2 = 13.445$ Sig. = .004

<표 4-44> 우수한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순회공연의 필요성

단위: 평균(표준편차)

문항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전체	F	Sig.
우수한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순회공연의 필요성	3.30 (1.17)	3.67 (.97)	3.05 (.97)	3.87 (1.07)	3.52 (1.08)	2.760	.047

③ 공연 및 전시장소 협력적인 대어

공연장, 전시장, 주민연습공간 등 문화복지시설별로 공간의 부족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문화복지시설별로 이러한 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구내에 있는 문화복지시설간에서라도 서로 무상으로나 유상으로 공간을 빌려주어 부족한 문화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해야한다.

제 3 절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조사결과 요약

1)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 실태 평가

(1) 오프라인 네트워크 평가

① 동종기관의 오프라인 교류정도

- 동종기관간의 협회나 모임을 통한 교류와 시설·문화프로그램운영관련 정보교류 모두 문화원(4.29점, 3.57점)과 도서관(3.97점, 3.87점)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의집(2.32점, 2.37점), 구민회관(1.65점, 1.91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좀더 적극적인 교류방법인 시설·문화프로그램 운영관련 세미나나 교육을 통한 교류는 모든 문화복지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2.56점)으로 나타났다.

② 동종기관간의 교류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 '전화'(54.4%), '홈페이지·이메일'(32.2%)

③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교류의 구심체가 없어서'(38.9%), '교류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15.6%), '업무가 바빠서'(14.4%)순이었다.

(2) 온라인상 네트워크 평가

①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의 활용정도

- 구민회관을 제외한 문화복지시설은 동종기관협의회홈페이지를 갖고 있었는데, 문화원(3.67점), 도서관(4.06점)은 자주 홈페이지를 활용하지만, 문화의집은 대체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서관의 경우, 서울시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통합홈페이지(www.lib.seoul.kr)를 구축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 모든 서울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놓는 등 동종기관의 온라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기초가 구축되었다고 평가되며,
- 문화원과 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협의회가 존재하고 협의회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만, 문화원의 경우 비교적 잘 이용하고 있지만, 문화의 집의 경우는 현재 2명~3명의 인력으로 현상유지하는 데 급급해 하고 있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시설별 동종기관협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큰 이유는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55.0%)였고, 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41.7%)라는 이유도 많았다.

2) 자치구내 이중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 실태 평가

(1) 자치구내 이중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

- 시설별로 차이없이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협회나 모임에 전반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2.34점)으로, 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정보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것(2.52점)으로, 시설·문화프로그램 운영관련 세미나 교육을 통한 교류도 거의 없는 것(2.05점)으로 나타나 동종시설간의 교류보다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가 더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치구내 교류를 위한 주이용매체

- 자치구내 교류를 위한 주이용 매체는 전화(50.5%), 홈페이지·이메일(25.3%)가 가장 많았다.

(3)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의 필요성

- 문화복지시설 모두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가 필요하다(3.81점)는 입장을 보였고,
- 광진구, 송파구, 서초구의 경우 모든 시설에서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가 매우 필요하다(5.00점)고 응답하여 교류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자치구내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자치구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교류의 구심체가 없어서’(52.7%), ‘교류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18.3%), ‘업무가 바빠서’(10.8%) 순이었다.

3) 주민과 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 실태 평가

(1) 오프라인상 주민과 시설간의 네트워크 평가

① 주민과 시설간의 커뮤니케이션정도

- 주민과 시설간의 커뮤니케이션정도는 다소 활발한 편으로(3.63점) 평가할 수 있었는데, 도서관(4.10점)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구민회관(3.48점), 문화의집(3.37점), 문화원(3.33점)으로 다소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설문조사나 회의 실시여부

- 설문조사나 회의를 하는 기관은 67%였지만 구민회관과 문화의집의 약 반정도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온라인상 주민과 시설간의 네트워크 평가

① 온라인상 주민게시판의 유무

-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기관중 대부분이 주민의견게시판코너를 가지고 있고(90.7%), 자체홈페이지가 없는 기관도 구청홈페이지(67.4%)의 게시판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관들이 주민의견을 시설 및 프로그램운

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② 주민게시판의 활성화정도

- 전체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의 주민게시판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었지만(3.90점), 시설별로는 차이가 있어, 도서관(4.33점), 구민회관(4.33점)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문화원(3.10점), 문화의집(2.83점)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③ 온라인상 정보제공 및 교류가 주민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과 게시판 등 의견교류를 통해 주민참여도는 높아졌다(3.67점)는 결과가 나왔다.

4)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실태 평가

(1) 주민의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현황

- 문화강좌수강생들의 문화예술동아리활동은 아직 대체로 활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79점)

(2) 주민의 문화예술동아리에 대한 지원

- 문화복지시설은 현재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 모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3.33점) 나타났다.

(3) 온라인상 문화예술동호회활동 정도

- 홈페이지상의 문화강좌수강생을 중심으로 한 문화동호회란을 개설하고 있는 기관은 3개 기관밖에 되지 않아(3.6%) 문화기반을 중심으로 한 주민과 주민과의 온라인 네트워크는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된다.

5)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 및 증진방안

(1)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 및 증진방안

① 정보화현황 및 계획

- 정보화 기본현황
 - 컴퓨터보급률, 인터넷 환경 등 정보화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고, 직원의 기본적인 정보화능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된다.
 - 정보화환경면에서는 문화원이 가장 미비, 정보화능력은 구민회관과 문화의집이 다른 시설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현황
 - 도서관은 100% 구축, 문화원(57.1%), 문화의집(36.8%), 구민회관(17.4%) 구축
 - 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직접 서버관리(93.5%), 문화의집과 구민회관은 구청에서 서버관리, 문화원은 주로 외주에 맡기고 있었다.
 -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도서관의 경우 직접 관리, 문화의집은 기타(외주+자체운영)가 가장 많았고, 문화원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좀더 많았다.
- 홈페이지 운영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다른 업무와 겹하고 있어서(37.8%)’,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26.7%)’, ‘담당인력이 부족해서’(17.8%)로 나타났다.
- 홈페이지 운영관련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교육기회가 없어서’(32.6%), ‘일이 바빠서’(23.3%),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어서’(9.3%)였다.
- 홈페이지 운영시 필요한 지원사항은 ‘홈페이지나 디지털 기술에 관한 교육(4.66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화예산의 증액필요(4.60점)’, ‘홈페이지 서버관리·운영카운셀링 및 기술적 지원기관이 시나 구에 있었으면 함’(4.33점)순으로 타났다.
- 향후 홈페이지 구축계획과 구축하기 어려운 점
 - 홈페이지를 아직 구축하지 않은 문화복지시설들도 향후 ‘구축하고 싶다’(67.5%)고 응답한 시설이 더 많았다.
 - 구축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설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구민회관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홈페이지에서 구민회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축할 예

- 산이 없어서’, ‘굳이 구축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는 곳이 많았고,
 - 문화원의 경우는 ‘다른 업무에 바빠서’(44.4%), ‘구축할 예산이 없거나’(33.3%),
 문화의 집의 경우 ‘전문인력이나 기술이 없어서’(36.4%)라는 응답이 가장 많
 았다.

②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방향

- 문화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의 필요성과 참여여부
 - 문화복지시설 운영자들은 문화정보제공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더불어 문화활동관련자사이의 문화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4.40점)는 입장을 보였고.
 -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시설별로 큰 차이없이 ‘이용하겠다’(4.40 점)는 응답을 하였으며, 서울시 문화정보네트워크의 문화정보DB구축시 정보를 제공하는데 참여하겠다(4.23점)는 의사를 밝혔다.
-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방향
 - 문화복지시설 운영자는 서울시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시 서울시(43.6%)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며, 구축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종합적인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과 ‘문화시설단위별로 홈페이지 및 정보화환경 구축’이라는 2가지 과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온라인 문화네트워크의 콘텐츠 선호도
 - ‘문화프로그램 안내DB’(4.18점), ‘시설 및 프로그램 우수사례DB’(3.91점), ‘문화공간DB’(3.85점), ‘문화재원DB’(3.82점), ‘문화예술기관 커뮤니티항목’(3.78점), ‘문화자원봉사DB’(3.78점), ‘문화예술전문인력/단체DB’(3.76점), ‘사이버 갤러리·문학공간’(3.71점), ‘문화정책자료DB’(3.67점), ‘문화예술동호회항목’(3.62점)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③ 문화복지시설단위의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 문화복지시설단위의 온라인상 문화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인 ‘온라인상 멀티미디어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를 높이는 방안’(3.95점), ‘문화예술동호회란을 개설하는 방안’(3.67점), ‘인터넷상의 동영상강좌를 실시하는 방안’(3.76점), ‘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 도입’(3.90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다.

(2) 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 및 증진방안

① 프로그램 질 제고와 접근성 확대를 통한 주민과 시설간의 네트워크 강화

가.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전문기획능력, 절대적인 인력, 예산, 교육훈련기회 등 모든 면에서 문화복지시설은 상당히 한계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 문화복지시설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4.46점)이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며 (4.18점), 현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기획 전문교육(4.08점)이 필요하다
- 그러나 전문적인 외부인사채용의 필요성을(3.38점) 별로 느끼지 못하고 실무자들의 전문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문화복지시설의 시간적·공간적 접근성 제고를 통한 주민이용의 확대

- 시간적 접근성 제고
 - 현재의 낮시간 위주의 문화복지시설 운영시간과 야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3.39)을 보였다.
 - 직장인과 대학생 등 현재 공공문화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과 주5일제 이후에 늘어나는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주말과 야간시간대에도 문화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평일에 휴무를 실시하도록 휴무제를 개편하고 또 주말과 야간에 늘어나는 근무시간을 충당하기 위해 최소한 교대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필

요하다.

- 지방정부에서는 교대인력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단기적인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지역주민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 방안이 된다.

- 공간적 접근성 제고

- 문화복지시설의 교통의 편리함 정도(3.37점)는 상당히 낮은 평가를, 시설주변의 주민의 거주정도에 대해서도 그리 높지 않은 평가(3.79점)하여 공간적 접근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장소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복지시설 경유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시민은 물론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 주민의견반영을 위한 수시적인 설문조사나 회의

-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회의를 하는 기관은 전체기관 중 67%에 이르렀는데, 그 횟수는 도서관이 2.82회로 가장 많았고, 문화의 집이 1.82회로 가장 적었다.
-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의 횟수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충분치 않고, 문화복지시설운영자는 이러한 설문조사나 회의는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례적이면서도 반드시 조사 및 회의 결과를 다음번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②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지원을 통한 시설이용주민간의 공동체 형성

- 문화예술동아리가 결성되어 있는 곳은 69.0%정도였고 구민회관(56.3%)의 경우 동아리가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 구민회관보다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동아리가 활성화되면, 지역사회의 상호신

퇴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이 되어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시설간의 교류강화

가. 동종문화복지시설간 및 자치구단위의 이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협의체 설립지원이 필요하다.

나. 우수프로그램의 공동기획 및 순회공연 경험은 17.9%에 지나지 않았고 그 필요도는 3.52점으로 다소 긍정적이었다.

2. 조사결과의 정책시사점

첫째, 동종기관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교류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및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종기관간의 네트워크 정도는 문화원과 도서관의 경우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만, 구민회관과 문화의 집의 경우 그 교류의 정도가 거의 미미하다. 문화복지시설 운영자 중 동종기관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곳은 22.2%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교류의 구심체가 없어서’라는 점이 가장 많이 응답했다. 현재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의 경우 전국단위의 협의회가 있는데, 그중 문화원은 서울시 지회를 통해, 도서관은 온라인상의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와 비공식적인 사서모임 등의 교류기관을 통해 서로 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보교류가 타 기관보다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화의 집은 전국문화의집협의회 홈페이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곳이 많아 아직까지 실제적인 교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구민회관은 각각 다른 자치구에 소속되어 있어, 교류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교류할 매개체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교류를 매개하는 기관이 있어도 그 역할이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정보교류정도이고 시설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세미나나 교육, 우수작품 공동순회 공연 등 프로그램과 시설운영의 질을 적극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를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제고를 위해 서울시 소재에 있는 문화의집과 구민회관의 경우 교류를 매개하는 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문화원과 도서관의 경우 공동세미나나 교육, 우수작품 공동순회공연, 협회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등 동종기관간의 교류를 위한 협회사업의 지도 및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를 위해서 동종문화복지시설의 협의회처럼 상설협의회 설립을 지원하거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는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보다 훨씬 더 미미하며, 문화복지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는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화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에 대해서 ‘필요하다’(3.81점)는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운영의 효율성이나 우수프로그램을 통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가 없다. 즉, 이러한 교류의 부재속에서 전문적인 기획능력 없이 동일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구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이용자에 비해 공간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비해, 문화원과 문화의 집과 같은 경우 장소가 없어서 행사나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지역내 문화시설간에서라도 서로의 장소를 제공하고 기자재를 대여하고,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아닌 특화되고 심화된 문화프로그램 제공하는 등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상설협의회나 정기적인 회의 개설을 통한 정보 및 자원의 교류가 매우 필요하다.

셋째, 주민과 시설간의 네트워크면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상 등 정보제공처를 다원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상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민의 불편 및 개선요구사항을 받고, 또한 신속한 응답과 피드백으로 주민에게 항상 열려 있고, 항상 교류하는 시설로 나아가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회의를 하는 기관은 전체기관 중 67.0%에 이르렀고 주민과 시설간의 커뮤니케이션 평가점수도 3.63점으로 서로간의 의사소통은 대체로 활발한 편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도서관과 문화원은 설문조사나 회의를 하면서 주민의견과 욕구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민회관과 문화의 집은 약 반 정도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의 주민과의 정보교류를 보면, 홈페이지가 있는 기관의 90%정도는 게시판이 있었고 자체홈페이지가 없는 문화복지시설들 중 상당부분은 구청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청홈페이지의 주민게시판의 경우 여러 분야의 글이 올라오게 되어 주민과 구민회관운영자간에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별도로 주민게시판을 만들어 주민들이 별 어려움 없이도 쉽게 찾아내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나 프로그램의 개선요구사항 등을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고, 또한 시설운영자도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별도의 주민게시판이 필요하다. 이러한 게시판과 아울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고 홈페이지가 구축되기 전에는 구청홈페이지라도 별도의 게시판을 설치하는 방안도 단기적으로는 좋은 방안이다. 앞으로는 시설의 확충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다가가는 시설이 될 것인가 또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시설에서 주목해야 할 최대사안인 것이다.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면에서는 시, 자치구, 문화복지시설에서는 문화예술 강좌,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일회적 혜택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이며, 계속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의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주민의 계속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주민문화예술동아리를 온라인·오프라인상에서 지도 및 지원해야 한다. 문화예술활동 모임은 주민들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전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동아리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지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도부터 장소대여, 활동비지원까지 문화예술동호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상에 문화강좌수강생을 중심으로 한 문화동호회란을 개설하고 있는 기관은 3개 기관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3.6%) 온라인상 동호회코너는 오프라인상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앞으로의 오프라인의 동호회모임이나 오프라인 모임 약속이나 오프라인상의 동호회계획을 서로 논의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고, 온라인의 특징대로 시간, 비용,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어서 구성원간의 친밀함

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상 공간을 통한 친밀함과 빠른 의사결정은 오프라인의 활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혜택을 주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 문화복지시설은 온라인상 동호회란을 만드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第 V 章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 제 1 절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목표와 기본방향
- 제 2 절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 제 3 절 네트워크 구성주체별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 제 4 절 주요 행·재정적 지원방안

제 V 장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제 1 절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목표와 기본방향

본 연구의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현황은 극히 미진하기 이를 데 없다. 온라인 상에 운영되고 있는 ‘컬처넷’이나 ‘서울문화관광홈페이지’, ‘서울공공도서관 통합사이트’는 모두 인터넷의 특징인 상호작용성(interactivity)과 멀티미디어성을 살리지 못한 채 일방적인 정보제공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온라인 공동체의 형성기반이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온라인을 통한 문화강좌 및 문화서비스 제공 등에 실패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서비스는 온라인상의 정보제공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어, 문화복지시설과 연계된 실질적인 문화활동을 촉발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를 지방정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인 생활문화분야로 한정하였으므로 4장에서는 주로 문화복지시설과 시설간의 네트워크, 시설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어 네트워크 현황을 먼저 분석하고 현재의 네트워크를 저해하는 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재 문화복지시설은 인력, 공간, 예산, 정보화능력, 전문인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시설간의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나 시설과 시설간, 시설과 주민간, 주민간의 교류 또한 활발하지 못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복지시설 운영자 대부분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문화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서울시의 현재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문화복지의 향상, 문화공동체의 형성, 문화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구성 목표와 기본방향

서울 문화네트워크의 구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의 활성화라는 시민문화복지 증진에 있다. 즉 이런 목표를 위해 서울시 문화네트

워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문화자원의 정보화 및 네트워크화를 통한 문화자원이용의 효율화

우선 문화자원의 정보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문화정보화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는 ‘컬처 넷’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컬처 넷’의 경우 대상범역의 광역성으로 인해 단순한 정보검색 및 정보적인 차원에서 안내 기능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그보다 서울시는 정보제공을 통해 ‘하나의 생활문화권으로’ 문화자원-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문화자원의 정보제공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여 문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정보화 및 네트워크화를 통해 각 지역에 널려 있는 지역문화복지시설의 공간, 인력,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화정보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서울시 단위의 문화정보네트워크, 구단위의 문화정보네트워크, 문화복지시설단위의 문화정보네트워크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

2) 지역문화복지시설을 거점으로 문화네트워크 구성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지역문화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문화복지시설을 네트워크화 할 경우, 지역성에 기초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문화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문화프로그램 제공 및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진작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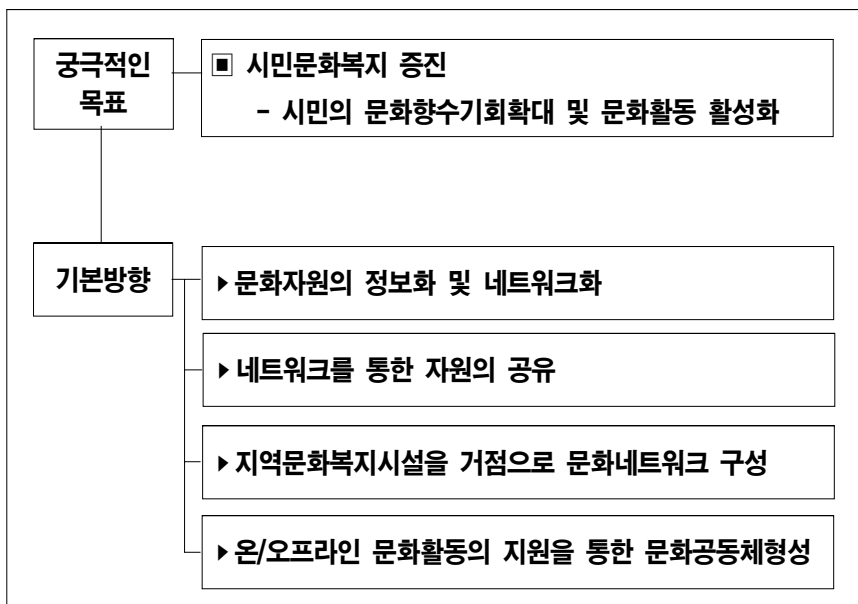
또한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지역문화복지시설의 내실화 및 실질적인 운영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본 것처럼 서울시 또한 현재 문화복지시설은 인력, 공간, 예산, 정보화능력, 전문인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시설간의 교류가 필요하다. 특히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사나 실질적인 운영진, 전문적인 기획능력을 지닌 문화전문가 등 인력 및 각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에 대한 정보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각 시설이 연계하여 부족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성은 지역문화복지시설

의 실질적인 운영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

3) 온/오프라인 문화활동의 적극지원을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결합되어 있는 수많은 문화활동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문화활동 단체가 결합한 주민간의 문화네트워크 즉 지역문화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동체에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 동호회공간을 지원한다면, 오프라인 상에서 지역문화복지시설을 개방하는 등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문화공동체 활동을 충분히 촉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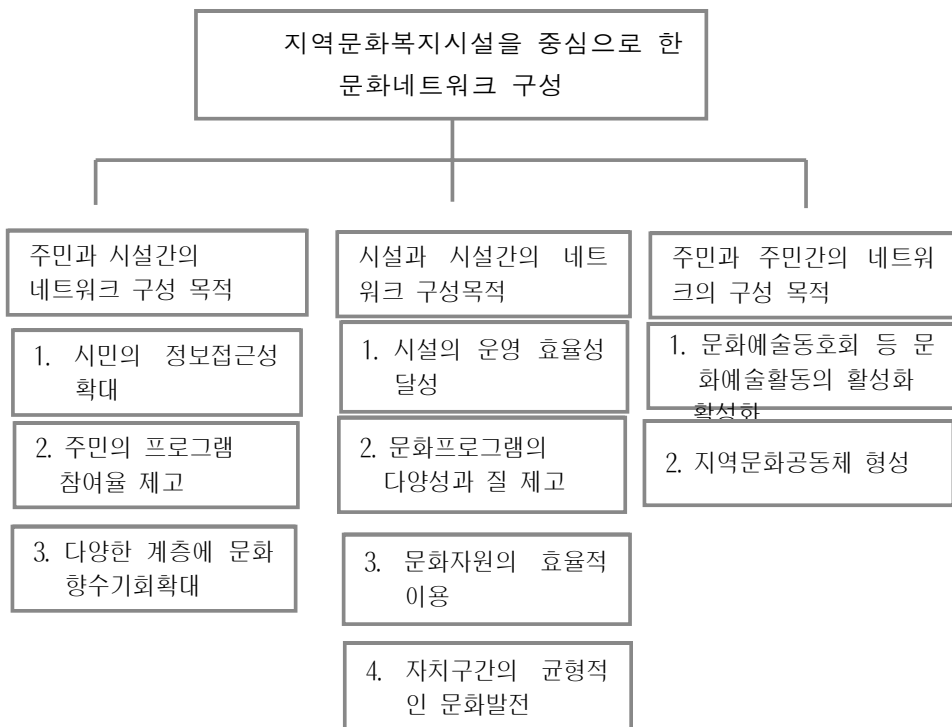
이러한 문화단체 및 공동체 활동을 촉진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하다. 즉 문화단체활동을 순회프로그램화하여 각각의 지역문화복지시설에 유치할 경우, 손쉽게 질 높은 문화프로그램 창출이 가능하며, 문화단체 및 공동체 활동에 지역문화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을 개방할 경우 실질적인 시설운영 및 문화공간화에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 전문가, 문화활동단체를 네트워크화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림 5-1>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구성주체별 문화네트워크 구성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생활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문화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문화네트워크의 구성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시민의 생활문화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주민과 시설간의 네트워크, 시설과 시설간,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 각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목표를 알아보면 주민과 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성 목적은 1. 시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2. 주민의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3. 다양한 계층에 문화향수기회확대이며, 시설과 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성목적은 1. 시설의 운영효율성 제고, 2. 시설의 프로그램 다양성과 질 제고, 3. 문화자원의 효율적 이용, 4. 자치구간의 균형적인 문화발전이며,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구성목적은 1. 문화예술동호회 등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2.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이다.



<그림 5-2> 네트워크 구성주체별 네트워크 구성의 목적

이하에서는 먼저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증진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어서 현실적인 구성단계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고,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구성주체 별로 문화복지시설과 시설간의 네트워크, 주민과 시설간의 네트워크,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등 3가지 네트워크 구성을 온라인 오프라인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제안하였다.

제 2 절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온라인 부문에서의 시설과 주민, 주민과 주민간, 시설과 시설간의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이라는 도구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즉, 온라인부문의 문화네트워크를 구성 및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온라인 문화네트워크를 구성 및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화정보사이트들을 개편 및 업데이트해야 한다.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정보제공과 시민의 문화커뮤니티 활동 촉진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개편 및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중심사이트로 서울시 문화관광사이트의 확대개편’, ‘자치구단위별로 자치구사이트에 링크하여 문화넷 페이지를 제작’, ‘문화복지시설의 홈페이지 구축 및 기술지원’ 등 3가지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1.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 주요 과제 1: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의 중심사이트로 서울 문화관광사이트의 확대개편

(1) 서울문화관광사이트의 확대개편의 방향

첫째, 서울시민의 문화향수기회확대를 위해서는 서울문화관광사이트는 종합적인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개편되어야 한다.

서울문화관광사이트는 서울시민의 문화향수기회확대 증진을 위해 정보접근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 문화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정보사이트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서울문화관광사이트의 문화행사란에서 문화행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로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이 될만한 중대규모 공연 예술시설·축제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지역문화복지시설인 문예회관, 구민회관, 도서관, 문화원 등 공공문화복지시설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중대규모공연예술전시시설의 경우 자체적인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망이 잘 구축되어 있지만, 지역문화복지시설의 행사는 시민에게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율이 10%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보면 개별적인 문화시설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것 보다 시민의 인지도가 높은 서울문화관광사이트에서 공공문화복지시설 행사를 홍보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며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따라서 향후 서울문화관광사이트는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문화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공문화복지시설, 국공립문화예술시설, 민간문화예술시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화정보접근성의 향상은 시설과 주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증진시켜 실제로 프로그램의 참여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향수확대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둘째, 공공문화복지시설 등의 문화시설의 운영자들에게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이트로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설운영·프로그램 우수사례DB는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설운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문화자원봉사DB, 문화재원DB, 문화예술단체DB 등도 문화자원봉사자와 시설, 기업과 시설, 문화전문가와 시설의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주어 문화복지시설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주민과 주민간, 주민과 시설간, 시설과 시설간의 문화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의 문화관광사이트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문화동호회 서비스, 문화예술기관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문화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서울문화관광사이트 확대개편의 궁극적인 필요성은 정보접근성의 확대, 커뮤니티 서비스 개설 등으로 문화시설과 시민, 시민과 시민간, 시설과 시설간의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 및 증진시키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네트워크형성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정보접근성의 확대, 커뮤니티의 개설은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참여율 증가,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 등 오프라인의 문화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확대개편의 내용

① 문화정보항목의 확대

가. 문화복지시설의 문화정보DB 선호도 반영

문화복지시설과 주민들이 선호하는 정보를 DB화해야 한다.²⁾ 본 연구에서는 문화복지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문화프로그램 안내(4.18점)’, ‘시설 및 프로그램 우수사례DB(3.91점)’, ‘문화공간DB(3.85점)’, ‘문화재원DB(3.82)’, ‘문화예술기관 커뮤니티항목’(3.78점), ‘문화자원봉사DB(3.78점)’, ‘문화예술전문인력/단체DB’(3.76점), ‘사이버 갤러리·문학공간’(3.71점), ‘문화정책자료DB’(3.67점), ‘문화예술동호회’(3.62점),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것은 ‘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3.54점)’, ‘사이버상 문화예술교육(3.52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DB나 서비스 모두 ‘필요하다’고 문화복지시설 운영자는 응답하였다. 따라서 위의 12가지 DB와 서비스를 기본으로 삼고 선호도가 높은 것부터 구축해야 한다.

2) 주민의 문화정보DB 선호도 또한 문화DB 구성시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은 연구의 시간적·예산적 한계로 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나. 문화관광부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의 표준문화분류체계 준수

문화정보DB 구축시에는 문화관광부의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³⁾ 분류체계를 따라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의 자료를 『서울문화관광홈페이지』에서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문화관광부의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 사업』은 전국 800개의 기관으로 확대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대한 정보를 『서울문화관광홈페이지』상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의 표준분류된 DB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서울시 문화정보 DB구축 자체의 효율성을 위해 문화정보DB를 구축시 문화관광부의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의 표준분류체계에 맞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아래 표의 내용은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의 문화정보DB구축시 이용하는 표준 분류체계이다.

<표 5-1>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의 표준문화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문화프로 그램DB	공연	연극, 국악, 서양음악, 대중음악/연예, 무용, 전통공연예술 등과 같은 공연프로그램 안내
	전시	현대미술, 전통미술, 디자인, 공예, 서예, 사진, 고고, 역사/민속, 과학/산업, 자연사, 어린이 등에 관한 전시프로그램 안내
	영상/뉴미디어	한국,외국영화를 비롯한 극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비디오, 인터넷/뉴미디어 등 영상물에 대한 안내
	문화교육	문화인문, 예술실기, 취미/교양 등을 위한 문화강좌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세미나/심포지엄, 워크샵과 같은 학술연구분야에 대한 안내
	축제/행사	전통문화축제/예술축제를 비롯하여, 기획이벤트, 각종 경연/대회에 대한 안내
	답사/체험/탐방	답사/체험/탐방 프로그램 안내
2) 문화공간 DB	공연시설	①국공립공연장 ②민간 운영의 공연장(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분류) ③위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공연시설에 대한 시설
	전시시설	①박물관 ②미술관 ③화랑 ④기타전시시설

3)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문화관련기관간의 정보교류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문화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27개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문화의집, 문예회관)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800여개 문화관련기관을 정보네트워크로 구축할 예정이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 문화공간 DB	문화복지시설	①문화원 ②전수회관 ③시·군·구민회관 ④기타
	도서관	①공공도서관 ②대학도서관 ③학교도서관 ④전문/특수도서관 ⑤문고 ⑥자료관 ⑦기타
	상영시설	①전용상영관 ②야외상영관 ③비상설상영관
	청소년시설	①청소년수련관 ②청소년문화의집 ③청소년수련원 ④청소년야영장 ⑤유스호스텔
3) 문화인물/ 단체DB	인물	총 17개 문화예술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경력, 주요작품, 저서 등 상세한 인물정보 제공
	단체	총 18개 분야와 관련동호회 등 문화예술관련단체에 대한 설립목적과 취지, 연혁, 주요활동 등 상세한 단체정보 제공
	업체	총 12개 분야 문화예술관련업체의 사업내용, 취급품목, 주 력상품정도 등 상세한 정보 제공
	기관	문화관광부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44개), 국내 언론기관, 문화관련 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관현황정보 제공
4) 문화재원DB	공공지원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문예진흥원 등 공공기관 및 단 체의 주요 문화예술지원사업과, 규모, 지원신청방법 등을 제공
	기업지원	기업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문예진흥원에 출연한 [조건부 기부금현황]과 기업의 문화예술선호도를 파악을 위한 [장 르별 문화예술지원현황]정보를 비롯한 각종 기업정보 제공
	재단지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한 [기업/기업재단의 사회공헌 백서]에 소개된 국내 기업재단 현황을 DB화 하여 제공
5) 문화자료DB	도서/문헌자료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헌자료 목록 제공, 일반 도서 이외에 행사기획서/평가보고서, 중장기기획서, 연례운 영보고서, 연구논문, 법규 등의 문헌자료 보유현황에 대한 상세 정보
	비도서/시청각자 료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 녹음, 컴퓨터자료 등의 비 도서/시청각자료 등의 상세 목록정보 제공
	홍보자료	각 기관에서 기획한 공연, 전시, 축제, 행사 등에 관련된 보도자료, 기사스크랩, 포스터, 전단 등 각종 홍보자료에 대한 현황 제공
	장비자료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연장비, 전시장비, 교육연수장 비 등 각종 장비들에 대한 목록정보 제공
	저작권 자료	저작권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외 저작권 관련사이트 소개

다. 확대되어야 할 문화정보서비스 항목

a. 문화프로그램안내DB

온라인상 문화정보네트워크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자치구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주민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기회를 넓히고, 문화복지시설에게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현재는 주로 중대규모공연예술시설 및 전시시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는데, 시민의 문화정보접근성 확대와 문화복지시설의 참여율 확대를 위해 문화복지시설의 프로그램정보를 DB화하여 시민에게 서비스하도록 해야 한다.

b.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우수사례DB

현재 문화원, 문화의집, 도서관, 구민회관은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우수사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시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프로그램 우수사례내용에는 준비단계, 운영단계, 평가단계의 상세한 지침을 담아야 한다. 또한 시설운영의 경우 예산, 조직운영, 인사운영, 고객만족방안 등 운영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 온라인상에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사례는 “(가칭)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이 사례를 모으는 일을 일정부분 담당해야하고, 나머지는 문화복지시설이 잘된 사례를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우수사례DB에 문화복지시설이 잘된 운영사례에 대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글쓰기 목록을 만들어 문화복지시설이 자기기관에 대한 자랑도 하고, 부족한 것은 물어보기도 하는 기관간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우수사례 정보교류는 문화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주민에게는 편리한 서비스와 만족감을 주고 이러한 서비스와 만족감은 시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을 보장해 주면서, 시설과 주민간의 끈끈한 네트워크 형성에 이르게 한다.

c. 문화공간DB

심층면접시 주민들이 연습할 공간이나 발표회를 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이 따른다

고 토로한 몇몇 기관이 있었는데, 특히 구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대규모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발표회장이나 공연장이 없는 문화의집이나 문화원과 같은 소규모 문화복지시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교류는 부족한 자원의 활용 측면 뿐만 아니라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증진 면에서도 더욱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공연장 대관정보, 이용방법, 교통정보 등 문화공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부족한 문화공간이라는 제약에서 문화복지시설간의 공간활용도를 높여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행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d. 문화자원봉사DB

문화복지시설은 인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어 홈페이지, 프로그램 진행 등 많은 분야에서 문화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문화자원봉사자정보 구축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e. 문화재원DB

본 연구의 문화복지시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했는데,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시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전반적인 문화복지시설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축기관은 기업메세나 정보 등 민간에서 지원하는 정보나 서울시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DB화해서 문화복지시설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f. 문화예술전문인력/단체DB

문화복지시설의 경우 Interview에서도 문화예술전문인력/단체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고, 특히 문화강좌강사DB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응답하는 곳이 많았는데, 수강과목, 경력 외에도 강사료, 수업능력 등 상세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했다. 강사정보의 경우 시설운영자 자문회의에서도 여러 시설운영자들이 매우 필요한 자료라는 응답을 해주었다. 대부분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 강의료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강의료에 맞는 우수강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강사정보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g. 문화정책자료DB

서울시 문화복지시설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문화정책,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 등에 관한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② 커뮤니티 서비스의 제공

서울문화관광사이트는 커뮤니티 기능강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자유게시판의 설치는 물론이며, 지방정부차원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동호회’, ‘문화예술기관 커뮤니티’ 등을 필수항목으로 개설해야 한다.

가. 문화예술기관 커뮤니티 항목

문화복지시설에서도 서로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기관 커뮤니티 항목을 구성시에는 동종기관별로 나누어 커뮤니티란을 만들어주고, 또 25개 구별로 나누어 커뮤니티란을 만들어 지역내에 있는 문화복지시설 및 공연예술시설 등 각종 문화시설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역내 문화복지시설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선정한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구민회관(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 구민체육센터, 마을문고, 청소년문화의집 등 다양한 시설도 점차 포함시키도록 해야겠다.

나. 문화예술동호회항목

문화예술동호회는 문화복지시설의 수강생이나 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 지역주민간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동호회는 시설 프로그램의 참여유발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지역사회전체측면에서 보면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다. 사이버 갤러리 및 문학공간

사이버 갤러리 및 문학공간은 인터넷상에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사이버 문화예술교육 도입

사이버문화예술교육을 도입하여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 중고등학생 등 현재 공공문화프로그램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들에게 서비스를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복지시설에서 현재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중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강좌부터 도입하도록 한다.

④ 확대개편 후 서울문화관광사이트의 사이트맵

문화관광사이트의 개편전과 개편 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개편전 사이트맵과 개편후 사이트맵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대폭개편 및 추가된 항목은 ‘문화예술정보검색’, ‘서

SITE MAP ▶ ▶ ▶		
서울소개	서울명소	문화행사/축제
위치	고궁	이달의 문화행사
기후와 하루	문화사적	정기축제/이벤트
서울의 역사	산과강	
서울이야기	테마파크	
	건축	
	공원/레포츠	
	근교명소	
여행정보	쇼핑정보	문화공간
관광프로그램	지역별(시장/거리)	박물관/기념관
교통	품목별	미술관/화랑
숙박	백화점	도서관
음식(점)	면세점	공연장
여행상식		영화관
		자치구문화원
		외국문화원
자료실	열린마당	기타메뉴
건축물미술장식품	새소식	서울600년사
서울문화상품전	내가 추천합니다	한국명소
사진갤러리	자유게시판	로마자표기검색
공개자료실		문화관광지도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그림 5-3> (개편전) 현재 서울문화관광사이트의 사이트맵

SITE MAP ▶ ▶ ▶

서울소개

- ▶ 위치
- ▶ 기후와 하루
- ▶ 서울의 역사
- ▶ 서울이야기

서울명소

- ▶ 고궁
- ▶ 문화사적
- ▶ 산과강
- ▶ 테마파크
- ▶ 건축
- ▶ 공원/레포츠
- ▶ 근교명소

여행정보

- ▶ 관광프로그램
- ▶ 교통
- ▶ 숙박
- ▶ 음식(점)
- ▶ 여행상식

문화예술정보검색

- ▶ 전체검색
- ▶ 문화프로그램 검색
 - 일일공연 · 전시일정
 - 2주간 일정
- ▶ 시설운영 · 프로그램우수사례DB
- ▶ 문화공간검색
 - 대관정보
- ▶ 문화자원봉사 검색
- ▶ 문화재원 검색
- ▶ 문화예술전문인력/단체 검색
- ▶ 문화정책자료 검색

서울문화커뮤니티

- ▶ 서울문화기관 커뮤니티
 - 자치구별 커뮤니티
 - 시설별 커뮤니티
 - 우수운영사례자료실
- ▶ 문화예술동호회
- ▶ 채팅서비스

쇼핑정보

- ▶ 지역별(시장/거리)
- ▶ 품목별
- ▶ 백화점
- ▶ 면세점

서울문화소식

- ▶ 이달의 문화예술가
- ▶ 서울문화소식지
- ▶ 문화예술서적

사이버 문화아카데미

- ▶ 온라인 전시 · 문학공간
- ▶ 사이버 문화아카데미
 - VOD 강좌서비스
- ▶ 온라인 수강신청 · 결제

자료실

- ▶ 건축미술장식품
- ▶ 서울문화상품전
- ▶ 사진갤러리
- ▶ 공개자료실

문화관광자원봉사자

- ▶ 자원봉사자 구함
- ▶ 자원봉사자 신청

열린마당

- ▶ 새소식
- ▶ 내가 추천합니다
- ▶ 자유게시판

기타메뉴

- ▶ 서울600년사
- ▶ 한국명소
- ▶ 로마자표기검색
- ▶ 문화관광지도
- ▶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그림 5-4> (개편후) 서울문화관광사이트의 사이트 맵

울문화커뮤니티’, ‘서울문화소식’, ‘사이버 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관광자원봉사자’항목이다.

2) 주요 과제2 : 자치구별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

(1) 자치구의 문화정보네트워크 수준평가 및 구 단위 문화넷 구축의 필요성

구 단위의 문화정보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구청 홈페이지인데, 주로 문화시설란에서 문화시설을 열거하여 간단한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 안내, 위치 안내 등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고(사례 예시: 강서구 홈페이지, 강북구 홈페이지) 문화행사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이나 해당문화시설에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게시판 또한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동호회, 문화예술기관 커뮤니티 등 주민과의 커뮤니티 공간은 거의 없었다.

층수	시설명	규모	문화프로그램	유형비
지층	체육실	132.29㎡ (40평)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15,000~25,000원
	식당·휴게	214.29㎡ (64.6평)	합창·악기·요리, 휴게공간	-
1층	대강당	677.68㎡ (205평, 754석)	영화상영 : 주3회(매월) 각종행사대관	입장료 1,000원
	전시실	105.18㎡ (30평)	작품전시	-
	관객실	49.59㎡ (15평)	회의, 세미나, 대관	-
2층	회의실 (선봉대기실, 휴게실)	280.98㎡ (85평)	합창·악기·요리·세라지·서화	-
			기타	-

<그림 5-5> 강서구 홈페이지의 문화정보관련페이지

네 번째는 구 문화넷에 문화예술동호회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는 구 문화넷에 문화예술기관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자치구내 이종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여섯 번째는 구 문화넷에 사이버 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직장인, 대학생 등 시간적·공간적 접근성 때문에 공공문화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2) 구 단위별 문화넷의 구축의 방향

첫째 구축방법은 별도로 도메인을 가진 형태가 아니라 구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부서별 홈페이지처럼 자치구홈페이지에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구축한다.

둘째, 서울시에서 구 단위별 문화넷 구축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한해의 3~4개 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구축은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한다. 먼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판단한다.

셋째, 구축대상의 범위는 구민회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등 공공문화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여성발전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먼저 포함하고 향후 민간문화시설까지도 포함시킨다.

넷째, 서울문화관광사이트의 문화정보DB와 전국문화인프라 정보네트워크의 문화정보DB와 연동되도록 표준문화분류체계와 파일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3) 구 단위별 문화넷의 사이트 맵(가이드라인)

아래의 그림은 가이드라인이므로 구 단위별로 디자인과 콘텐츠항목을 첨가내지 변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CULTURENET MAP ▶ ▶ ▶

문화예술정보검색

- ▶ 전체검색
- ▶ 문화프로그램 검색
 - 일일공연 · 전시일정
 - 2주간 일정
- ▶ 시설운영 · 프로그램우수사례DB
- ▶ 문화공간검색
 - 대관정보
- ▶ 문화자원봉사 검색
- ▶ 문화재원 검색
- ▶ 문화예술전문인력/단체 검색
- ▶ 문화정책자료 검색

사이버 문화아카데미

- ▶ 온라인 전시 · 문학공간
- ▶ 사이버 문화아카데미
 - VOD 강좌서비스
- ▶ 온라인 수강신청 · 결제

문화커뮤니티

- ▶ 문화기관 커뮤니티
 - 우수운영사례자료실
- ▶ 문화예술동호회
- ▶ 채팅서비스

관련사이트

- ▶ 자치구별 문화시설 사이트
- ▶ 시설별 문화시설 사이트

문화소식지

- ▶ 메일링 서비스 가입
- ▶ ○○구 문화소식지 신청

문화자원봉사자 신청

- ▶ 문화자원봉사자 구함
- ▶ 문화자원봉사자 신청

<그림 5-7> 구단위 문화넷 구성의 가이드라인

3) 주요 과제 3 : 지역문화복지시설 웹사이트 구축 및 기술지원

홈페이지 구축의 경우 도서관은 100% 완료되었다. 반면에 문화원은 반정도(42.9%), 구민회관은 82.6%, 문화의집 또한 63.2%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는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매년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대상을 선정하여 문화복지시설의 홈페이지를 구축 및 업데이트를 위한 재원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어야 한다.

<표 5-2> 문화복지시설의 홈페이지 구축유무

문항	응답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도서관	전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다.	있다	4(17.4)	12(57.1)	7(36.8)	31(100.0)	54(57.4)
	없다	19(82.6)	9(42.9)	12(63.2)	-	40(42.6)
	전체	23(100.0)	21(100.0)	19(100.0)	31(100.0)	94(100.0)

$\chi^2 = 41.359$ Sig. = .000

현재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다른 업무와 중복되어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등의 문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전산교육업체의 홈페이지 운영교육 및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거나 서울시 및 구청직원 중 전산담당 직원을 자치구내에 문화복지시설에 파견하여 컨설팅과 구축기술을 전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의집과 구민회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확대라는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일하는 문화원의 경우에도 구청에서 무료로 서버를 관리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추진단계 및 추진조직

1) 추진방향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수준의 역할분담의 조정

서울시의 문화정보DB 및 네트워크 구성 사업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의 중앙정부수준에서 역할의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온라인 사업의 경우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정보화사업’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은 정보화 구축대상기관과 구축정보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데 중앙정부수준에서 역할분담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즉 자칫 인력과 재원의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전조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기획단계나 실행단계중에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실시해야겠다.

현재 문화정보화사업은 문광부에서 하고,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중 시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의 정보화 및 네트워크사업은 향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재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그리고 문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는 전국적으로 구축내용의 중첩성이 없으며 통일성 있는 DB를 구축하도록 상호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전국적인 DB와 네트워크사업을 조정·지원하며 문광부는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정보DB 및 네트워크 구성 사업을 서울시는 문화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구축방향을 달리하여야겠다.

(2) 작은 단위 시범사업부터 추진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경우 3~4개 구 정도를 시범사업 실시기관으로 정하여 그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최적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문화의집,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도서관을 대상으로 문화정보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여성발전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으로 대상을 넓혀 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학교, 사설문화교육학원, 언론사문화센터, 대학교, 백화점 문화센터 등 민간문화시설로 사업을 넓혀가야 한다.

2) 추진단계

(1) 1단계: 자치구 단위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성

서울문화관광사이트를 확대개편하기 전에 3~4개 구 단위로 구단위 문화넷 구축 사업을 실시해본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계획서가 선정된 구에서 주도적으로 구축사업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구의 문화적 여건을 반영하여 구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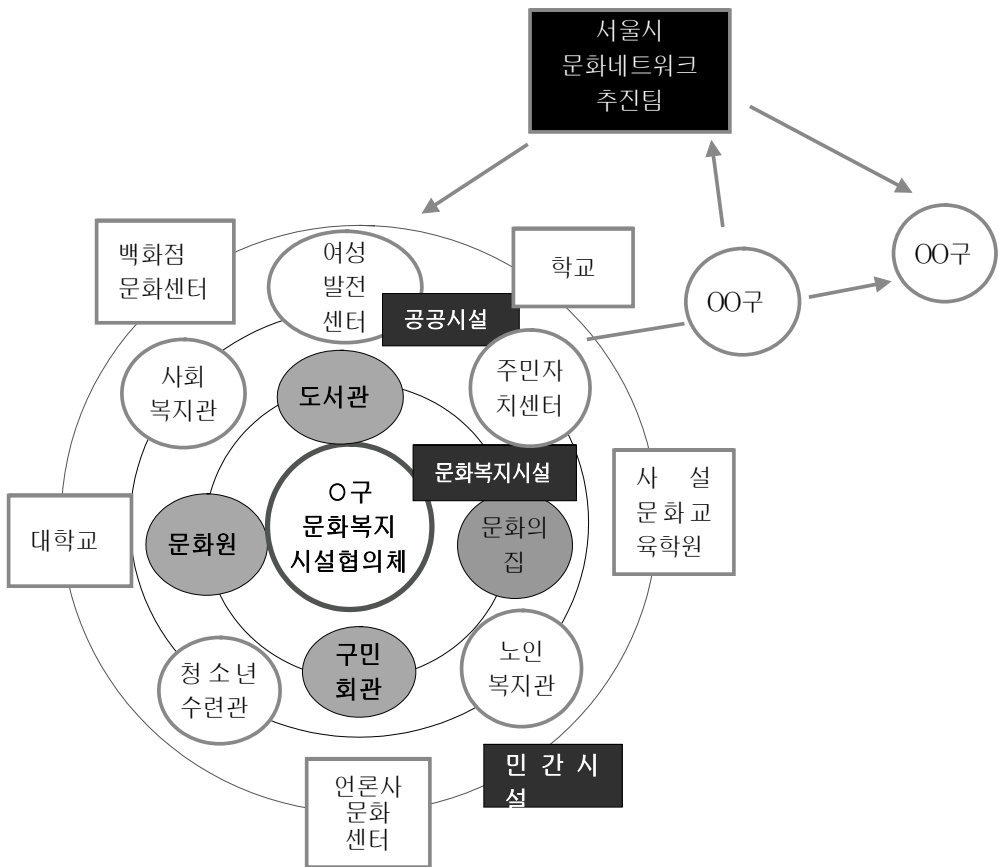
(2) 2단계: 서울문화관광사이트 확대개편

서울문화관광사이트를 확대개편하기 위해서는 문화정보DB를 구축해야하는데 이러한 정보DB 구축사업시는 ‘서울시’, ‘자치구’, ‘문화시설협회’ 모두 중심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문화정보를 DB화하는 작업은 민간부문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수익성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문화정보DB화하는 작업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틀을 구상하되, ‘서울시’가 ‘자치구’나 ‘문화시설협회’나 ‘문화복지시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청취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온라인 문화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치구’나 ‘문화시설협회’, ‘문화복지시설’이 참여나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즉 서울시는 현장의 문화복지시설의 정보를 모아 체계적으로 분류 및 통합하여 종합적인 정보DB를 구축하여 문화복지시설과 주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추진조직

현재 서울시 문화정보팀을 『(가칭)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으로 확장시켜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담당

현재 서울시 문화관광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과 문화정보팀”을 “(가칭)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으로 확장시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자치구간 및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의 교류를 위한 『자치구 문화복지시설협의체』의 설립도 필요하다. 이러한 『자치구 문화복지시설협의체』는 『구별 문화넷 구축』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자치구내의 문화복지시설의 교류가 거의 없어 문화자원의 이용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오프라인상의 문화복지시설의 자원교류,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설립이 매우 필요하다.



<그림 5-8>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추진체제

시범케이스로 선정된 구 단위별 문화넷을 구축시에는 “(가칭)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과 “(가칭)자치구 문화복지시설협의체”와 문화복지시설운영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먼저 문화의집,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도서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여성발전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으로 대상을 점차 넓혀 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학교, 사설문화교육학원, 언론사문화센터, 대학교, 백화점 문화센터 등 민간문화시설로 사업을 넓혀가야 한다.

제 3 절 네트워크 구성주체별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1. 주민과 문화복지시설간의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1) 구성전략

현재 문화복지시설은 예산·절대적 인력·전문인력·문화예술교육기회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동일복지시설마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야간이나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워 주로 초등학교생이나 주부 등 특정계층에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즉 시간적·공간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결과만을 가져와 전반적인 서울시민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과 시설간의 네트워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온라인 게시판, 동호회, 설문조사, 회의 등의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증진시키는 전략과 직장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과의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네트워크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중심으로 주민과 시설간의 네트워크를 구성 및 증진시켜야 한다.

전략 1 : 주민과의 문화네트워크 구성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단개발

(홈페이지 구축, 메일링 리스트, 게시판 등 지하철 홍보 등)

전략 2 : 직장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과의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네트워크 증진

2) 주요 정책과제

(1) 우수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시상제 도입

문화복지시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는 것이고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문화프로그램의 기획해야 하며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면 전남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페라 ‘춘희’ 자체제작, 5일간 10회 공연하여 10,000명의 시민들에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르인 오페라를 제공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단적으로 보듯이 새롭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면, 시민의 프로그램 참여는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이후 문화복지시설은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시민들을 위해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공문화프로그램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표 5-1> 주민과 문화복지시설간의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정책과제

주민과 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성목표	
1. 시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2. 주민의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3. 다양한 계층의 문화향수 기회확대	
정책네트워크(주체)	정책과제
문화복지시설 · 문화예술가 · 서울시 협력 과제	(1) 우수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시상제 도입
문화복지시설 주체 · 서울시 행정적 지원과제	(2) 야간 · 주말에 문화복지시설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노약자 ·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
문화복지시설 주력과제	(4) 서울문화정보지 제작 등 온라인 · 오프라인 정보제공 활성화
	(5) 사이버문화예술교육 도입
	(7) 정기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확대 -시민을 운영위원회에 포함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이용
	(8) 온라인 게시판 및 홈페이지의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9) 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 도입
	(10) 회원제 및 회원할인제 도입

또한 서울시는 문화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수 문화프로그램 사례를 공모·시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수의 기회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시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데 문화복지시설은 주력해야 하며, “(가칭)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은 이러한 자료를 『서울시 문화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에 DB화하거나 책자로 만들어 많은 복지시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한다.

<표 5-2> 문화복지시설 운영우수사례

지역명	문화예술회관명	우수 프로그램 및 운영사례
전남	순천문화예술회관	• 오페라 ‘춘희’ 자체제작, 5일간 10회 공연, 10,000명 관객동원 • 뮤지컬 사운드오브 뮤직을 제작
대구	대구종합문화예술회관	• 학예연구사 제도를 도입하여 ‘어린이 공연기획교실’을 운영
경남	문화예술회관	• 청소년동아리 활성화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둠
대구	남구 문화전당	• 앞산 아카데미, 밤에 별을 보는 행사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제주	제주문예회관	• 관악대회 개최
지역명	도서관명	우수프로그램 및 운영사례
경북	안동도서관	• 찾아가는 문화학교
인천	화도진도도서관	• 일일향토문화교실
인천	중앙도서관	• 움직이는 도서관
경기	과천도서관	• 인접시 이동도서관지원
경기	성남도서관	• 순회문고 및 독서캠프운영
경북	구미도서관	• 동화읽는 어른 모임과 동심타래
충남	부여도서관	• 비주얼 백제자료실, 백제문화탐방
대구	서부도서관	• 시민건강 한방강좌, 도서선정모니터제
전남	담양도서관	• 피서지로 찾아가는 도서관
경남	창원도서관	• 40일간의 독서여행, 숲속의 책나라
지역명	문화원명	우수 프로그램 및 운영사례
강원	강릉문화원	• 대규모의 강릉단오제 등 전통문화축제의 보존·전승에 심혈을 기울임 • 학술세미나와 유네스코 워크숍을 주관하는 등 국제적 문화교류에도 앞장섬
전남	영암문화원	• 영암 민속예술공연단을 운영 • 마을훈장제 시행, 향토사 연구

지역명	문화의집명	우수 프로그램 및 운영사례
강원도	강릉문화의집	문화환경프로그램, 문화욕구프로그램, 창작욕구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사업을 구체화
경남	밀양문화의집	- 강좌 수료후 소모임들간의 봉사활동을 함 -도배교실 소모임: 영세민 가정,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봉사 -꽃꽂이 봉사모임: 입원환자들을 위해 꽃을 꽂아줌 -단학교실 모임: 봉사자들은 노인학교를 찾아감 -기타교실봉사자: 신망원 등 고아원을 찾아가는 등 지역의 윤희유 역할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경남	진해문화의집	- 인근 농어촌 지역으로 찾아가는 소규모 프로그램개발 - 청소년상담실, 지역환경단체 등 협력관계를 맺으며 프로그램 전개
제주	제주 이도2동문화의집	- 부족한 인력을 공익요원 확보 350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이들에게 문화정보와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제공 - 소모임중 사진동우회는 독거노인들의 영정사진을 무료 촬영해 주는 봉사를 하고 있음

자료: 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년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연구』 자료 정리 및 재구성

(2) 야간·주말에도 자유로운 이용 여건 마련

① 일요일·야간시간에도 자유로운 이용여건 마련

② 자치구간 문화복지시설의 휴일 조정

지방문화원을 제외하고 문화복지시설의 현재 휴무요일이 격주 휴무거나 국경일만 휴무하는 곳이 많아 주말에 직장인들이나 가족단위로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지방문화원의 경우는 사단법인이라 그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주말에도 개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격주로 휴무하고 있어, 문화복지시설 운영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간적 접근성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잘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도서관의 경우 지금의 격주휴무제를 계속 지속하고, 인접지역간에 교대로 쉬도록 하여 주민에게 더 많은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인력은 적은데, 시간적 접근성 확대를 통한 문화향수의

기회확대라는 목적으로 국경일만 쉬고 있어, 담당직원의 업무능력과 사기가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 면접조사에서 여러 번 나타났다. 담당직원의 업무능력과 사기저하는 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질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 소규모 문화복지시설에서 일요일에도 개관하여 주5일제 이후 더욱 늘어나는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반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소한 교대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 인력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산과 인력에서 오는 부담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 된다. 문화복지시설측면에서는 예산과 인력 면에서 오는 부담도 줄일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 개인의 측면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자각할 수 있으며, 활동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

(3)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및 장소적 접근성 제고

본 조사에서도 문화복지시설의 교통편리함정도(3.37점)에는 상당히 낮은 평가를 해주었고, 시설주변의 주민의 거주정도에 대해서 그리 높지 않은 평가(3.70점)를 한 것을 보면 장소적 접근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문화복지시설운영 우수사례에서 보면, 장소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복지시설 경유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문화예술행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었다.¹⁾ 이러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장소적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더 효과적으로

<표 5-5> 장소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례

지역명	문화복지시설명	장소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례
울산	울주도서관	도서관 경유 셔틀버스 운영
경기	성남도서관	순회문고
경기	과천도서관	인접시 이동도서관 지원
경남	진해 문화의 집	인근 농어촌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남	창원도서관	숲속의 책나라
전남	담양도서관	피서지로 찾아가는 도서관

자료 : 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문화복지시설관리운영평가 연구』, p. 38

1) 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문화복지시설관리운영평가 연구』, p. 38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서울문화정보지 제작 등 온라인·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활성화

- ① 이메일, 인터넷 등 여러 가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정보제공
- ② 지하철, 버스 등 시민접근성이 높은 곳에 게시판 확대
- ③ 서울 문화정보지 제작

주민과 시설간의 네트워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표 5-6> 주민과 시설간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① 이메일(Email)	다수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정크메일, 스팸메일로 오용되기 쉬운 단점 있음.
② 이메일 뉴스레터 (Email Newsletters)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다수의 회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용한 뉴스레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과 구성이 간결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링크를 제공해야 함.
③ 온라인 컨퍼런스와 게시판 (Online conferencing & Bulletin Bord)	웹상에서 회원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비동시적으로 운영 됨.
④ 채팅(chat)	동시적(Synchronous) 상호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동시적인인 도구(게시판)과 함께 하면 좋은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될 수 있음. • 장점: 아주 저렴하게 실시간 미팅을 할 수 있다는 점 • 단점: 규모가 커지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어렵다는 점과 비동시적 도구에 비해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⑤ 인스턴트 메시징 (Instant Messaging)	ICQ, AOL Instant Messenger와 같은 인스턴트 메시징 도구를 활용하면 온라인상에 있는 사람의 확인 가능하고 원하는 회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즉석에서 채팅을 할 수 있음.
⑥ 인터넷 방송 (Internet Broadcasts)	리얼오디오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웹을 통한 간단한 방송이 가능함.

자료: (주) 이비즈그룹 사이버 커뮤니티 연구모임, 『사이버 커뮤니티 성공전략』, 해지원, p.56

이메일, 이메일 뉴스레터, 온라인 컨퍼런스와 게시판, 채팅, 인스턴트 메시징, 인터넷 방송국 등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서울문화관광사이트』, 『구단위 문화넷』, 『문화복지시설의 자체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게 문화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노인 등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는 지하철, 버스, 각 동의 게시판 등 시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게시판을 확대해야 하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METRO』를 만들어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서울시 문화정보네트워크 추진팀』과 『자치구 문화복지시설협의체』, 문화복지시설운영자들이 협력하여 『서울 문화정보지』를 제작하여 주1회 서울시 공공문화복지시설에서 열리는 문화행사프로그램을 모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정보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5) 시설간 연합하여 사이버 문화예술교육 실시

문화복지시설의 문화교육프로그램은 현재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직장인, 중학생, 고등학생 등의 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중학생, 고등학생 등 시간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이버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설의 이용률은 시민의 10%정도밖에 되지 않아 큰 문제로 나타났는데 사이버 문화예술교육의 시도는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에게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향수를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사이버 문화예술교육은 제작비용, 인력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화복지시설끼리 연계를 통하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사이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제작비용과 인력 등 행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서울문화관광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사이버 문화교실을 운영하도록 해야한다.

(6) 정례적인 설문조사와 회의를 통한 시민의 의견반영확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회의를 하는 기관은 전체기관 중 67.0%에 이르렀는데, 그 횟수는 연간 도서관이 2.82회로 가장 많았고 문화의집이 1.82회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의 횟수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만큼 많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문화복지시설은 시설이용을 하는 고객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회의를 하는 것은 일회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례적이면서도 반드시 주민이 지정한 내용을 파악하여 다음 번 사업으로 피드백 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시설 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만족도를 행사 후나 강좌의 분기가 끝난 후 평가하여 주민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주민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나 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7) 온라인상 주민의견게시판의 설치와 지속적인 관리

주민의견게시판은 주민의 의견을 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이다. 설문조사나 회의의 경우 일시적인 시간제약을 두고 행하는 것이지만, 주민게시판의 경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항상 주민에게 오픈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문화복지시설중 자체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홈페이지에 주민게시판을 만들고,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게시판판을 들어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체홈페이지가 없는 문화복지시설들 중 상당부분은 구청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청홈페이지의 주민게시판의 경우 여러 분야의 글이 올라오게 되어 주민과 구민회관운영자간에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별도로 주민게시판을 만들어 주민들이 별 어려움 없이도 쉽게 찾아내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나 프로그램의 개선요구사항 등을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고, 시설운영자도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별도의 주민게시판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게시판을 설치만 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초기단계가 중요한데, 초기에는 주민게시판을 만들었으니 이곳을 이용해 달라는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한다. 주민게시판을 만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지만, 주민들이 이용 안 할 경우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 초기단계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이 있어 이용해 달라는 문구를 시설 소식지, 시설내 게시판, 수강증 등 다양한 매체에 넣도록 하고 기대에 비해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답변을 적시에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무반응을 경험하고 더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막힘은 지속적으로 악순환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8) 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 도입

문화복지시설중 몇몇 시설은 자체홈페이지상 온라인상의 수강신청 및 확인이 가능한 곳이 있었는데, 온라인 결제까지는 가능하지 않은 상태였다. 홈페이지상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을 도입한 한 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해놓고 정작 지로입금을 안 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운영의 차질이 심해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지로입금보다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취소에 대한 규정을 명기해서 운영상의 차질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래의 민예총과 같은 민간문화예술단체에서는 이미 수강신청부터 결제까지 온라인상으로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있다.

문예아카데미 2002년 가을강좌

■ 결제할 금액
 [특별강좌] 일반시민과 대학생들 위한 문예아카데미와 학생들은사회 공동기획강좌
 <우리 시대 진보란 무엇인가? - 제3부
 결제할 총 금액 **₩50000**

■ 카드정보 입력 -
***한대, 써티카드는 결제시 국민카드로 보여집니다.잘못된 것만 아니니 알려 드립니다**

카드종류
 카드번호
 카드만기일 년 월
 신용카드 할부기간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용카드소유주의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나 사업
 자등록 번호를 입력하십시오.(공백없이 입력하여 주십시오)
 비밀번호 신용카드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를 입력하십시오.

■ 무통장입금 정보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 006-01-0707-444
 예금주
 입금자 성명
 입금 예정일 년 월 일

☒ 카드결제 ☐ 무통장은행 입금

<그림 5-2> 온라인 수강신청 결제시스템 사례: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9) 회원제 및 회원할인제 도입

문화복지시설은 회원제를 도입하여 매달 열리는 행사를 매일이나 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하고 국립발레단의 회원할인제나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이벤트를 실시하여 문화복지시설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사례 1: 국립발레단의 회원할인제

회원은 인터넷회원, 일반회원, 평생회원 등 3종류로 나누는데, 인터넷 회원은 국립발레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가입할 수 있고, 감상회, 단체관람 등 동호회내 모든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며, 이들 중 연회비 1만원을 낸 사람들로 1년중에 있는 국립발레단 공연을 약 20% 정도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회원 중 동호회 원년부터 활동한 사람들을 평생회원이 라고 해서 ‘예우’를 해주고 있다.²⁾

사례 2: 세종문화회관의 회원이벤트제

문화예술동호회의 오픈을 기념하여 행사기간 중에 동호회를 만들거나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서 100명에게 문화예술공연 초대권 등의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동호회 가입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림 5-3> 세종문화회관의 동호회개설기념 이벤트행사

2) 박은경, ‘국립발레단, 정익는 발레마을’, 『시티라이프』, 2002.3.22

2. 문화복지시설간의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1) 구성전략

현재 동종 문화복지시설 중에서는 도서관, 문화원정도가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치구내의 이종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는 어느 자치구는 마찬가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설간의 네트워크 전략은 첫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내의 이종문화복지시설간에는 자치구문화복지시설협의체를 설립하여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며, 둘째, 현재 동종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된 도서관이나 문화원의 경우 우수한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순회공연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세 번째로 시설간의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내의 문화예술전문가,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공동연수프로그램, 고급문화예술 교육과정 등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전략 1 : (가칭)자치구 문화복지시설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치구 문화복지시설네트워크를 형성

전략 2 : 현재 네트워크 형성이 된 곳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사업실시(우수한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순회공연)

전략 3 : 문화예술전문가와 자원봉사자 등 지역 싱크탱크와 함께 지역문화복지시설 및 지역의 발전을 모색(공동연수프로그램, 고급문화예술교육과정 추진)

2) 주요 정책과제

(1)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협의체 설립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정보교환 및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운영, 특성화 미흡, 교육프로그램의 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표 5-7> 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정책과제

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성목표	
	1. 시설의 운영효율성 제고 2. 시설의 프로그램 다양성과 질 제고 3. 문화자원의 효율적 이용 4. 자치구간의 균형적인 문화발전
정책네트워크(주체)	정책과제
서울시·자치구·문화복지 시설 협력과제	1)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협의체 설립과 지원
문화복지시설 및 문화전문가 주체·서울시 행·재정지원 과제	2) 우수한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순회공연 3) 공동연수프로그램 추진사업 4) 고급문화예술교육과정 추진
문화복지시설간의 협력과제	5) 문화자원의 효율적 이용 6) 공동 홍보 및 소식지 발간

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결과, 지역간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안에서도 문화복지시설간의 연계와 정보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류가 없는 이유를 교류의 구심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문화복지시설은 지적하였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칭)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을 설립한 후에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각 구별로 문화복지시설협의체를 설치하여 시 단위 및 구 단위의 정례적으로 모임을 활성화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효율화문제를 상의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나 각종 기자재나 정보교류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우수한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순회공연

현재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전국의 문예회관과 네트워크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동기획 및 순회공연하여 시민 문화향수권 기획확대라는 기본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³⁾ 많은 회원기관의 참여로 단기공연으로 그치는 공연을 장기공연(2002년 실적: 17개 공연/128회 공연)으로 만들어 제작비 절감입장료가 저렴해짐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일반대중에게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높은 호응과 관람으로 실질적인 문화향유인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즉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사업은 객석점유율이 평균 60%를 상회함으로써 공연장 평균 50%를 밀도는 여타공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3) 전국문예회관연합회 내부자료, 2002

이는 지원금(국고, 지방자치단체)과 장기공연에 의한 원가절감과 싼 입장료에 의해 소비자 부담을 줄인 결과이다. '96년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시 8개 회원기관(분담금 8백만원)중 오페라를 처음 공연한 문화예술회관이 6곳이나 되는 상황이었다. 2001년에는 총 17개 공연프로그램을 128회 공연(공동제작/10개 80회, 전국망/8개 48회)하였고, 1개 전시를 53일 전시하였고 장르별 프로그램으로 보면, 음악회 8건, 오페라 1건, 뮤지컬 3건, 연극 3건, 발레 2건, 전시 1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순회공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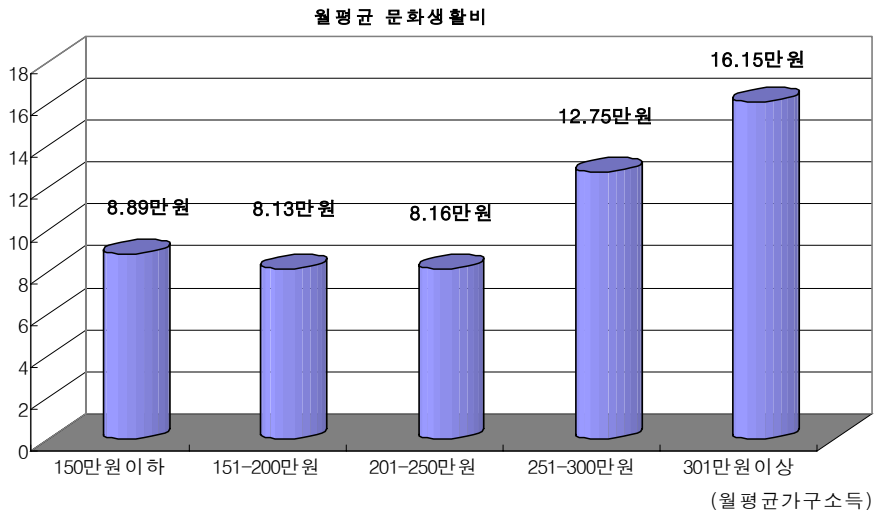
전국문화회관연합회 사례에서 본 것처럼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사업은 전국적인 문화공급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설측면에서는 낮은 분담금으로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무료 또는 낮은 가격의 입장료의 혜택을 주어 실질적인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를 통해 잠재적인 소비자를 실질적인 소비자로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도삼 외(2002)의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문화향유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251만원이상~300만원이하, 가구301만원이상의 가구가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적은 가구보다 월평균 문화생활비를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적은 경우 문화생활비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250만원이고 4인가구일 경우 한사람당 월평균 문화생활비는 2.04만원이 되는데 이러한 금액으로는 뮤지컬이나 클래식음악회, 무용공연, 연극 한편도 제대로 보기 힘든 비용이다. 또한 실제적으로도 연간 문화행사관람률이 영화(64.2%)를 제외하고는 10% 이하의 낮은 관람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용적인 부담을 주며 또한 관람시설 자체도 적은 무용공연, 클래식오페라 공연 등 분야는 상당히 관람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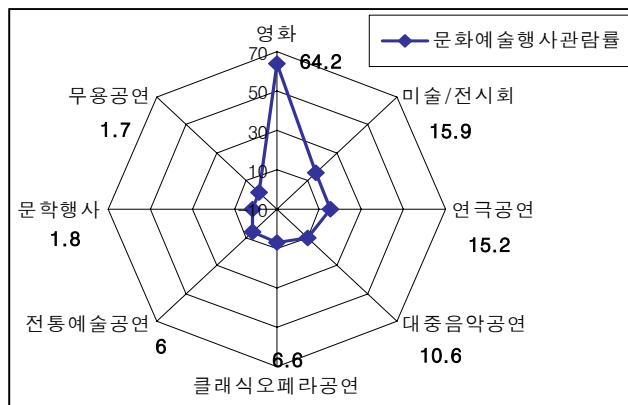
따라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화복지시설은 다양한 장르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그 관람비용 또한 민간문화시설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야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문화시설에서 수익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순회공연함으로써 개별시설에선 예산과 기획능력의 미비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시설의 부담금은 줄이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중산층 및 문화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국문화회관연합회 사례에서도 객석점유율이 평균

60%를 상회함으로써 시민들의 관람의욕과 호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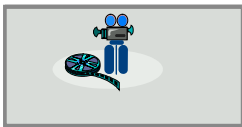
전국문화예술회관의 공동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사업은 국고지원과 매칭펀드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각 구별 문화복지시설 중심으로나 동종 문화복지시설 중심(예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지회, 서울도서관연구회 등)으로 이러한 공동프로그램 제작사업을 장려해야 하고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동문화프로그램의 제작 및 순회공연사업은 자치구간의 균형적인 문화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림 5-4> 월평균 가구소득별 월평균 문화생활비 비교



<그림 5-12> 문화예술행사관람경험률(1년간)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순회공연사례 -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사례 -

1. 공동프로그램 제작사업의 의의

- 개별성과에 기대하는 사회보다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시대에 맞는 사업임.
- 전국문예회관연합회는 한국최초로 전국 문화예술회관을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 사업을 통하여 문화보급기능과 네트워크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였음.
-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전국의 균형적인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임
- 전문연의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 사업은 지역문화회관의 최우선 유치사업이며, 낮은 부담금으로 무료 또는 낮은 가격의 입장료로 실질적인 문화소비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매칭펀드로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지방예산 문화부문 투자유인책에 기여함
- 지역문화예술회관이 정보제공과 우수프로그램 공급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 지역문화회관은 정보부족과 민간기획사의 영세성으로 확산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고 실제로 전무년을 통한 정보제공, 우수프로그램 공급의 확대를 회원기관이 요청하고 있으며, 전문연 사업을 통해 유통망 형성의 씨앗뿌리기가 가능할 것임

2. 공동프로그램 제작사업의 성과

- 제작비 절감효과 큼
- 많은 회원기관의 참여로 단기공연, 전시에 그치는 한국의 공연, 전시시장현황에서 장기 공연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제작비 절감효과로 이어짐으로서 입장료가 저렴해짐으로서, 또는 무료공연이 가능함으로서 이 혜택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 문화복지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낳는 것임.
- 매칭펀드 운영으로 정부정책의 기초와도 일맥상통하며 문화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자금이 매칭되어 집행되어 지역문화회관의 예산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외형이 큰 대규모 공연도 값싸게 유치가 가능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대형, 고품격 공연, 전시도 지방에서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였음.
- 실제로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군소도시에서의 오페라 공연은 많은 예산부담과 제작경비로 사실상 불가능 하였음.

- '96년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시 8개 회원기관(분담금 8백만원)중 오페라를 처음 공연한 문화예술회관이 6곳이나 되는 상황

- 높은 호응과 관람으로 실질적인 문화향유인구 확대에 기여하였고 문화교육기능을 수행하였음.

- 전국문화예술평의회 사업은 객석점유율 평균이 60%를 상회함으로써 공연장 평균 50%를 밀도는 여타공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이는 지원금에 의한 원가절감과 싼 입장료에 의해 소비자 부담을 줄인 결과인 동시에 소비자 양성 및 혜택이기도 함

3. 연도별 우수프로그램 사업현황

- 1995년 11월 창립이래 순천문화예술회관, 울산현대예술회관 등 전국 국공립문화예술회관 45개 문화예술회관이 회원기관임
- 전국적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순회프로그램 매년 개최하고 문예회관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개최, 우수프로그램 공급등 프로그램 공급기능과 문화예술회관 직원자질 향상, 문예회관 운영활성화와 질적 향상에 기여하여 왔음.

구분	1999	2000	2001
단위사업수 /공연회수 및 전시일수	총 4건 -3개 공연/66회 공연 -1개 전시/71일 전시	총 14건 -14개 공연/126회 공연 (공동제작/7개 109회 전국망/7개 17회)	총 18건 -17개 공연/128회 공연 (공동제작/10개 80회 전국망/8개 48회) -1개 전시/53일 전시
장르별 프로그램	-음악회:2건 -연극: 1건 -전시: 1건	-음악회:11건 -연극: 3건	-음악회: 8건 -오페라:1건 -뮤지컬: 3건 -연극: 3건 -발레: 2건 -전시: 1건
사업비예산 (단위:천원)	-총사업비:300,000 -지방비:196,000 -지원금:104,000 • 국고:75,000 • 진흥기금:29,000	-총사업비:480,550 -지방비:351,550 -지원금:125,000 • 국고:75,000 • 진흥기금: 20,000 • 마사회기금:30,000 -자체자금: 4,000	-총사업비:1,021,850 -지방비: 741,850 -지원금: 270,000 • 국고: 250,000 • 진흥기금:20,000 -자체자금:10,000

(3) 문화복지시설운영자의 공동연수프로그램 실시

서울시 단위나 몇 개의 자치구를 묶어서 다른 구의 문화복지시설운영자와 또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공동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이것은 상호간의 정보, 지식,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공동의 논의를 통해 프로그램기획 및 시설운영의 개선점을 찾아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이것이 향후의 교류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한다.

(4) 고급 문화예술교육과정의 공동추진

많은 문화복지시설에서는 시민수요가 많은 초급반을 대상으로 주로 문화예술교육 강좌를 열고 있어, 초급을 수강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수강을 하려해도 중급 및 고급강좌가 열려있지 않아 문화예술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고급강좌에 대한 시민수요가 적다면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 수강생을 모아 하나의 문화복지시설에서 고급강좌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고급 문화예술교육과정의 공동추진은 시민에게는 수준높은 문화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복지시설의 특성화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5) 문화자원의 효율적 이용 - 문화복지시설간의 기자재 및 장소의 공동 이용

문화복지시설 운영자는 공연장, 전시장, 주민연습공간 등 공간의 부족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구내에 있는 문화복지시설간에서라도 서로 무상으로나 유상으로 공간을 빌려주어 부족한 문화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장소의 대여는 초기에는 시설의 안전이나 관리 문제 등으로 해당시설의 관리자들의 반대가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주민의 문화활동을 증진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문화복지시설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자치구와 구별 문화복지시설협의회에서 중재하도록 한다.

또한 조명장치, 음향장치 등 공연에 필요한 기자재는 고가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복지시설에서 구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기존의 고가 기자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구매시에도 몇몇 시설의 자금을 합하여 공동으로 구매

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공동 홍보 및 소식지 발간

현재는 문화복지시설별로 정보지를 만들어 회원이나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치구안의 문화복지시설이 함께 공동 홍보 및 소식지를 발간한다면 시설교류의 차원 뿐만아니라 보다 많은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3. 주민과 주민간의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1) 구성전략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를 증진은 온라인·오프라인 동호회의 개설 및 활동지원 전략을 통해서 가능하며, 문화예술동호회의 자원봉사를 통해 더 넓은 차원에서의 주민간의 네트워크가 증진될 수 있다.

전략1 온라인·오프라인 동호회 개설 지원 및 활동지원

전략2 문화예술활동 동호회의 자원봉사활동 지도 및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의 기초 마련

2) 주요 정책과제

(1) 온라인 문화예술동호회 개설

현재 다음, 프리챌, 아이러브스쿨 등 수많은 포털사이트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중의 하나가 동호회코너이고 이러한 코너는 포털사이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온라인 동호회는 단순히 친목부터 학습활동, 시민운동, 문화예술활동 등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온라인의 특징대로 시간, 비용, 장소에

<표 5-9> 주민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효과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구성목표	
1. 문화예술동호회 등 주민문화활동의 활성화	
2. 지역문화공동체 형성	
정책네트워크(주체)	정책과제
서울시·자치구·문화복지 시설 협력과제	1) 오프라인 문화예술동아리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장소대여, 활동비 지원, 활동지도)
문화복지시설과 주민협력 과제	2) 문화예술동호회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문화복지시설의 주력 및 협 력과제	3) 자체홈페이지에 온라인 문화동호회 개설 4) 지역연합 주민발표회 지원

구애받지 않는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어서 구성원간의 친밀함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상 공간을 통한 친밀함과 빠른 의사결정은 오프라인의 활동을 더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즉 온라인상 동호회코너는 오프라인상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앞으로의 오프라인 모임약속이나 오프라인상의 동호회계획을 서로 논의하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 4)

현재 쉼넷21과 극소수의 문화복지시설사이트는 온라인 동호회를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문화예술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몇몇 문화복지시설운영자는 이러한 동호회코너의 개설이 필요없다고 지적하고 이미 다음이나 프리챌, 세이클럽 등 민간포털사이트에 동호회가 많이 개설되어 있어 이러한 동호회 개설이 필요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혜택을 주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 문화복지시설은 홈페이지에 온라인상 동호회코너를 개설해야 한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문화복지시설 홈페이지는 정보만 얻는 공간이 아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동호회 개설이 매우 필요하다. 문화동호회 개설은 현재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친목도모와 오프라인상의 활동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시설프로그램 참여제고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최근에는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커뮤니티를 온라인상에서 지원함으로써 오프라인의 노력과 시간을 단축하여 동호회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동창회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러브스쿨이나 종교인들간의 커뮤니티를 온라인상에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beliefnet.com이 대표적인 예이다. (주)이비즈그룹 사이버 커뮤니티 연구모임, 『사이버 커뮤니티 성공전략』, 2001, p.115

(2) 오프라인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의 적극적 지원

대부분 문화복지시설은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모든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민들이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하고자 해도 시민들이 연습할 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나마 있는 공간도 구민회관의 경우 관변단체가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연습 내지는 작품발표회를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 등의 공간은 민방위훈련장이나 결혼식 등의 문화예술활동이외의 다른 행사로 채워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화복지시설의 역할은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일회적 혜택을 주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이며, 발전적인 형태의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예술활동 모임이나 동아리는 시민들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전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문화예술동아리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지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며, 이웃과의 상호신뢰를 쌓고 이웃을 배려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동아리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 문화복지시설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문화예술동아리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문화복지시설에서는 활동지로부터 장소대여, 활동비지원까지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겠다. 현재 많은 문화복지시설에서 주민연습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우선 민방위훈련이나 관변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구민회관의 공간을 주민들의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나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다.

(3) 지역주민연합발표회 지원

문화복지시설에는 적극적으로 문화예술동아리를 결성하여 계속적으로 문화예술학습이나 공연·전시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들은 그들의 활동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나 비용이 없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복지시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른 문화복지시설과 함께 지역주민연합발표회장을 열어주어 계속적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발표

회장을 통해 지역주민은 좀더 이웃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은 지역커뮤니티 형성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4) 문화예술동아리의 봉사활동의 적극 지원

문화예술동아리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 봉사하는 사례가 몇몇 있었는데, 이러한 동아리활동은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문화복지시설에서는 주민들의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도 및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활동을 증진하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문화활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도 및 지원해야한다.

① 제주 이도 2동문화의집 사례

- 소모임중 사진동우회는 독거노인들의 영정사진을 무료촬영해 주는 봉사를 하고 있음

② 경남 밀양 문화의집 사례

- 도배교실 소모임: 영세민 가정,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봉사
- 꽃꽂이 봉사모임: 입원환자들을 위해 꽃을 꽂아줌
- 단학교실 모임: 봉사자들은 노인학교를 찾아감
- 기타교실봉사자: 신망원 등 고아원을 찾아가는 등 지역의 윤회유 역할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제 4 절 주요 행·재정적 지원방안

1.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의 설치

온라인·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담할 조직을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서울시 문화관광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과 문화정보팀”을 “(가칭)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으로 확장시켜 주도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담당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의

조직은 정보기술자문위원, 문화관련 전문가, 문화예술단체 운영자, 문화복지시설운영자 등 자문위원회와 문화정보팀 공무원, 정보기술 및 컴퓨터 기술자 등 실무진을 구성되어야 한다. 먼저 온라인·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화정보팀의 인력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칭)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은 중앙정부와 문화정보화 및 네트워크사업을 사전조율하고 “(가칭)자치구 문화복지시설협의체”와 조직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실제 수행시 비용의 절감과 전문적인 정보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이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선도적인 민간기업에 컨설팅을 받거나 민간기업에게 실제 구축사업을 용역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제2절과 제3절에서 언급했던 문화네트워크 구성사업중 “(가칭)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5-9>와 같다.

<표 5-10> 『(가칭)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의 주요사업

가. 중앙정부와 문화정보화 및 네트워크 사업 사전 조율 나.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DB화 및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다. 구별 문화넷 구축 예산지원 라. 문화복지시설 홈페이지 서버 무료 제공 마. 문화복지시설 홈페이지 구축상담 -단계별로 무료 구축내지는 구축상담제공 바. 문화복지시설관련 정보화 및 홈페이지 교육 실시(구단위별로) 사. 사이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 확대 -『서울문화관광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사이버 문화예술교육 실시	가. 구별 문화복지시설협의체 구성 지원 - 구 단위별 문화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참여의식 제고 나. 정기적인 문화네트워크 추진회의 개최 - 구별 문화복지시설협의체와 정기적인 시설 운영에 관한 회의 주관 다. 서울문화정보지 발간 - 온라인으로 DB화 한 자료를 주간정보지로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제공 마. 우수문화프로그램사례 공모·시상 - 우수문화프로그램 사례를 공모하고 시상하고 그 사례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각 문화복지시설에 배포하고 『서울문화관광사이트』에 DB화 함 바. 문화복지시설운영자·전문가·자원봉사자 교육 지원 사. 우수한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순회공연 지원 아. 시민의 문화복지시설 참여율과 만족도 조사 - 2~3년에 한번씩 실태와 참여율 조사
--	--

2. 자치구 문화복지시설협의체의 설치

서울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추진팀”의 설치와 더불어 각 자치구별로 문화복지시설협의체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같은 자치구안에서도 문화복지시설간의 연계와 정보, 프로그램, 인력공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시민문화복지증진을 위해서도 25개 자치구의 “자치구 문화복지시설협의체”의 설립은 매우 필요하다. 25개 자치구의 “자치구 문화복지시설협의체”는 “서울문화네트워크 추진팀”의 시단위의 온라인·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자치구내의 시민문화활동증진과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자치구내 정기적인 문화복지시설운영회의 개최, 공동문화프로그램의 기획 및 순회공연 지원, 부족한 공간 및 기자재를 공동 구매 및 공동사용 권장 및 예산지원, 자치구 문화넷 구축사업의 주도적인 참여, 문화예술동아리의 적극적인 지원 등의 자치구내 온라인·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표 5-11> “자치구 문화복지시설협의체”의 설립 필요성과 주요 역할

설립필요성	①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② 서울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함 ③ 자치구내 문화공간, 기자재 등 문화자원이용의 효율화 ④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및 순회공연 ⑤ 특색있는 문화시설로의 전환
설립·예산지원	① 자치구 ② 서울시
구성원	문화원, 문화의집,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운영자의 대표와 자치구 문화관련과 직원들로 구성
주요 역할	① 서울시 온라인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시 자치구내 문화정보제공 ② 자치구내 정기적인 문화복지시설운영회의 개최 ③ 공동문화프로그램의 기획 및 순회공연 지원 ④ 문화복지시설의 특색화를 위한 방안 모색 ⑤ 부족한 공간, 기자재를 공동 구매 및 공동사용 권장 및 예산지원 ⑥ 자치구 문화넷 구축사업의 주도적인 참여 ⑦ 문화예술동아리의 적극적인 지원

3. 전문인력 및 예산지원의 확대

문화복지시설과 주민간의 문화네트워크 구성 나아가서는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다시 말해 문화복지시설의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즉 예산 및 인력지원의 확대가 있어야 하며, 전문인력의 파견이나 시설운영자의 전문성 교육이 있어야 한다.

1) 예산지원의 확대

문화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문화복지시설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예산의 지원폭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현재 문화복지시설의 재정은 열악한 상태이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인력도 충원할 수 없고 필요한 기자재도, 행사도 기획할 수 없고, 정보화환경도 만들 수 없다. 그 만큼 예산의 증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문화원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경우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에 대한 예산의 지원폭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겠다. 면접조사결과에서 몇몇 문화복지시설 운영자는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대한 통제가 너무 심해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응답하는 곳도 있었다. ‘지원을 하되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문화지원의 ‘팔길이’원칙을 갖고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역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인력의 충원

문화복지시설에서도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서울시나 구차원에서는 문화복지시설의 문화프로그램 담당인력 증원시키거나 증원이 어렵다면 구청직원, 공익근무요원을 지원하여 문화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관련학과에 진학중이거나 문화예술관련 일을 해보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3)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전문인력의 채용

민예총아카데미, 한국문예진흥원, 다움아카데미 등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기획, 예술경영, 문화예술정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교육비를 제공하여 현재의 문화복지시설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자문회의시 몇몇 전문가들은 문화의 집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문화의집을 운영한 결과 운영성과가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초기에 기존직원과 외부채용인사간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문성과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외부채용인사를 채용하는 방안 또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第 VI 章

결 론

제 VI 장 결론

문화네트워크란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그 유형에 따라 온라인 네트워크와 오프라인 네트워크, 공공네트워크와 상업적 네트워크, 정보지향형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지향형 네트워크, 전문가 중심네트워크와 일반시민 중심 네트워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현재적 여건과 현황, 그리고 구성의 가능성 및 정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문화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모았다.

본 연구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구성에 연구의 초점을 모은 것은 시민의 문화활동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이기 때문이다. 즉 1990년대 이후 지역화·지방화 정책에 따라 각 자치구에는 이미 문화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설치목적 그대로 지역문화복지시설로서 지역 문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어떻게 하면 시설효용도를 높이는 한편, 문화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문화활동을 촉진할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을 모았다.

둘째, 다른 한편 서울시의 현재적 여건을 고려하였다. 문화네트워크란 말 그대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과 자원들의 ‘연결적’ 총합이다. 네트워크는 다만 이를 하나의 지점에 집적시키는 것이 아닌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목적에 따라 유기적으로 분산되고 종합되는 특성을 지닌다. 문화네트워크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발적인 문화활동 집단들과 요소들을 묶어내고 이를 유기적으로 유동시키는데 있다. 그렇기에 지역 주민과 문화전문가들의 유기적인 연결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가 문화네트워크의 최종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적 수준에서 그런 유기적 네트워크로 나가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각 시설 내에 웹사이트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각각의 시설과 시설, 주민과 주민, 전문가와 전문가의 네트워크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문화복지시설을 거점의 창구로서 지정, 지역 내 자발적인 문화창구로서 지역문화복지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모았다.

셋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건설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고려하였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할 것을 고려한 이유는 국내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접속점이 다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항시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온라인 강좌 및 온라인 결제 등 다양한 멀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었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우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구성에 주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시설 및 문화전문가,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시킨 다음,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개발시켜 실질적인 문화네트워크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혹자는 이것이 인위적 혹은 행정적인 차원으로 문화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지 모르지만,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정보제공사이트가 확산되어 있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경우, 서울시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적어도 문화복지시설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실질적인 문화의 거점으로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프리챌>이나 <다음> 등과 같은 커뮤니티형 포털사이트에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작 ‘만남’과 ‘활동’의 장소가 없다는 사실을 호소할 뿐 정작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생각도,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화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설이용정보를 제공, 시설의 이용도 및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했으며, 이를 다시 서울시 서버와 연결, <서울시 문화관광홈페이지>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 사이트 커뮤니티든, 서울시 커뮤니티 사이트든 어떤 커뮤니티든 관계없이 조건만 갖추면 시설이나 정보를 이용하도록 조정, 전반적인 문화활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넷째, 다음으로 본 연구는 문화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 서울시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였다.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문화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정보를 제공하며, 문화복지시설과 시설을 연계, 시민들이 가장 편한 장소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만의 특징을 보여주며, 서울에서 벌어지는 문화활동에 대해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단순한 홍보형 웹사이트가 아닌, 문화예술

에 대한 정보와 다수의 커뮤니티가 함께 융합하고 연결된 네트워크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의 확대개편을 제안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과 커뮤니티 활동 촉진을 위해 서울시가 나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가 나서서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순차적으로 각 시설에 순환시킴으로써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화활동 촉진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시와 시설운영자, 문화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네트워크로 나가야 함을 지적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화네트워크의 최종목표는 문화활동의 촉진 및 유발에 있다. 더불어 이러한 네트워크는 민간의 자발적 자원과 지역의 문화성을 받아들임으로써 활력을 띠어야 한다. 달리 말해 문화네트워크의 최종 목표는 지역 내 문화활동 촉진 및 문화공간화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문화네트워크는 지역문화 공간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 사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지역문화네트워크화 및 문화공간화의 문제를 얘기해야 했지만, 본 연구범위 성격 상, 또 서울시의 문화적 여건과 네트워크 발전 단계 특성 상,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다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와 각 지역문화복지시설에서 이들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의 형태는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문화활동을 촉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 상의 서버지원 및 웹사이트 제작, 웹사이트의 기술적 운영체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웹을 중심으로 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등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오프라인 상에서는 시설의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역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개최를 통한 지역문화공간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 문화네트워크는 강한 지역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다. 강한 커뮤니티성과 네트워크성, 그리고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네트워크화 할 것인가? 각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지역문화복지시설들은 이제 이러한 지역문화공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상의 위치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화복지시설들은 지역문화의 거점이자 관문(portal)으로서 위치한다. 즉 문화활동가와 문화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주민을 연

결하는 거점적 위치에 지역기반 문화복지시설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복지 시설들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 지역 주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문화공동체 형성 및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활동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우선 문화활동가와 지역주민을 연결해야 하며, 문화복지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연결해야 하며, 다양한 지역문화활동 등을 네트워크로 묶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을 거점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 문화복지시설들은 말 그대로 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이자 문화복지시설로서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자원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문화네트워크화 사업이야말로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위치함으로써 필요되는 중복적인 자원투자와 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막을 수 있는 길이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네트워크 사업은 독립적이고 분산적으로 널려 있는 시설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이다. 시설의 효용도 및 서비스의 차원을 높이는 것이 바로 지역문화복지시설들의 당면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경희대 정보사회연구소·삼성경제연구소, 『네트워크트렌트』, 1997
- 김희연 외,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지방정부와 사회복지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2.3, 통권 37호
- 대전발전연구원, 『지방자치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 지방자치 부활 10주년 및 대전발전연구원 창립기념 세미나』, 2001
- 라도삼 외,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 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라도삼 외,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과제-‘국민의정부’ 문화정책 평가와 대안』, 2002년 8월
- 문화관광부, 『2001년도 문화정보화사업 평가(안)』, 2001. 5.
- 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 연구』, p. 38
- 문화관광부, 『2002년도 문화정보화 촉진시행계획(안)』, 2001. 5
- 문화관광부, 『2002년도 문화정보화 평가 시행계획』, 2002. 1
- 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년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연구』, 2001.12
- 민예총 문예정보화팀, 『문예단체정보화 현황과 전망: 민예총 문예정보화포럼 자료집』, 2001.11
- 민예총,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개선방안: 2001년 12월 4-5일 포럼자료집』
- 박용관, 『네트워크론』,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박은경, ‘국립발레단, 정익는 발레마을’, 『시티라이프』, 2002.3.22
- 배현석 역, 『네트워크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심상민, 『콘텐츠비즈니스의 새흐름과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2

신경희, 『서울시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옥준현, “웹 GIS를 이용한 천안시 문화재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환경조경”, 상명대 대학원, 2001

유사라, 『정보화 사회와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나남신서, 1996

유승호,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 구축방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이기문 옮김, <킬러어플리케이션>, 국일증권경제연구소, 1999. L.Downes & C. Mui, Unleashing the Killer App: Digital Strategies for Market Dominance, Ha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8

이석재, 『문화정보화수준평가』, 한국전산원, 2000

이희수 외,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조권중, 『2000년대 서울 디지털도시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주)이비즈그룹 사이버 커뮤니티 연구모임, 『사이버 커뮤니티 성공전략』, 2001

최혜실, 『디지털시대의 문화예술』, 문학과 지성사, 2000

한국정보문화센터, 『일본 오이타현의 지역정보화계획』, 1992

황진구 외, 『청소년기관 정보화실태와 DB·네트워크 구축방안』, 2000

2.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http://www.kulturnet.dk/en>(덴마크 문화정보망)

<http://www.acn.net.au>(오스트레일리아 문화·레크레이션 포털 사이트)

<http://www.nmcn.org>(미국 뉴멕시코주 문화정보망)

<http://www.kocca.or.kr>(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http://www.kcaf.or.kr>(한국문화예술진흥원)

<http://www.kcpi.or.kr>(한국문화정책개발원)

<http://www.mct.go.kr>(문화관광부)

<http://www.kpaf.org>(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http://www.koda.or.kr>(문화기획자개발원)

<http://www.cncr.or.kr>(문화연대)

<http://www.visitseoul.net>(서울문화관광홈페이지)

<http://www.freechal.com>(프리챌 사이트)

<http://www.lib.seoul.kr>(서울공공도서관사이트)

<http://www.time.com/time/asia/magazine/2000/1211/cover1.html>(DN:2000.12)

부록 : 설문지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시 문화복지시설의 정보화실태와 네트워크 구축방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의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문화시설의 전반적인 정보화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자료 쓰일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로 쓰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정답은 없으므로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숫자화되어 통계적으로 분석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1. 귀 시설의 기본적인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	응답	항목	응답
1) 시설의 이용자수	월 명	4) 프로그램 주 이용계층	
2) 프로그램 수	분기당	5) 정보화관련 예산	만원
3) 프로그램 참여자수	분기당 명	6) 예산지원기관	
7) 소속기관		8) 기관의 형태	① 법인 ② 시립 ③ 구립 ④ 기타()
9) 정직원수	명	10) 정직원이외의 직원수	명
11) 총직원수	명	12) 인기 프로그램명	

2. 귀 시설의 정보화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정보화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해주시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 기관에 컴퓨터의 보급이 잘 되어 있다.	1	2	3	4	5
2) 귀 기관은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한다.	1	2	3	4	5
3) 직원들이 이메일을 이용할 줄 안다.	1	2	3	4	5
4) 랜선이나 pc통신 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항목	있다		없다		
5) 귀 기관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다.	O		X		
6) 귀 기관의 인트라넷이 구성되어 있다.	O		X		
7) 관련기관간의 전산망이 구성되어 있다.	O		X		

2-2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시는 란에 √표해주시시오.

항목	응답
1) 홈페이지 구축연도	()년
2) 홈페이지 구축비용	()만원
3) 홈페이지 운영비용	서버관리: 월 ()만원 운영관리: 월()만원
4) 홈페이지 구축기관	① 외주제작 ② 자체 ③ 시청 ④구청 ⑤ 기타()
5) 서버관리주체	① 외주제작 ② 자체 ③ 시청 ④구청 ⑤ 기타()
6) 운영관리주체	① 외주제작 ② 자체 ③ 시청 ④구청 ⑤ 기타()
7) 자체에서 운영하신다면 운영인력은 몇명입니까?	()명
8) 홈페이지 운영자의 전문성은 높은 편입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은 편임 ③ 보통임 ④ 높은 편임 ⑤ 매우 높음

항목	응답
9) 홈페이지 운영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업데이트하기 어려움 ② 업데이트하거나 운영할 비용이 없음 ③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아 운영할 의욕이 안 생김 ④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운영하기 어려움 ⑤ 다른 업무와 겹하고 있어서 운영하기가 힘들 ⑤ 기타()
10) 홈페이지 운영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회
11)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이 바빠서 ②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어 별로 도움이 안되서 ③ 교육기회가 없어서 ④ 관심이 없어서 ⑤ 비용이 부담되어서 ⑥ 기타()

(2) 홈페이지 운영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하시는 란에 √표해주시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홈페이지 서버관리 및 운영을 카운셀링과 기술적으로 지원해줄 기관이 시나 구에 있었으면 한다.	1	2	3	4	5
2) 홈페이지 서버관리 및 운영을 할 인력(공익근무요원 등)을 지원해주었으면 한다.	1	2	3	4	5
3) 홈페이지나 디지털기술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1	2	3	4	5
4)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화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1	2	3	4	5
5)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랜선이나 컴퓨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1	2	3	4	5

2-3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기관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응답
1) 귀 기관에서는 향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① 구축하고 싶다. ② 구축하고 싶지 않다.
2) 귀 기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구축할 예산이 없어서 ② 전문인력이나 기술이 없어서 ③ 구축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④ 다른 업무에 바빠서 ⑤ 기타()

3. 기관간의 네트워크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동종 기관간의 교류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동종 기관간의 협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1	2	3	4	5
2) 동종 기관간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정보 교류가 활발하다.	1	2	3	4	5
3) 동종 기관간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세미나나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4) 동종 기관간 교류를 한다면 주로 어떠한 매체를 가지고 교류하십니까?	① 전화 ② 홈페이지·이메일 ③ 팩스 ④ 직접 만나서 ⑤ 전혀 교류하지 않음				
5) 동종기관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업무가 바빠 교류를 할 시간이 없다 ② 교류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③ 교류의 구심체가 없어서 ④ 기관간의 지나친 경쟁의식이 있어서 ⑤ 기타()				
6) 동종 기관협의회(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문화의집 운영협의회, 도서관협회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u>※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만 응답해주세요.</u>	① 업무가 바빠서 ② 협회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서 ③ 협회 가입비가 비싸서 ④ 협회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⑥ 기타()				

3-2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협회나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1	2	3	4	5
2)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정보교류가 활발하다.	1	2	3	4	5
3)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세미나나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4) 자치구내의 문화복지시설간(문화의집, 도서관, 문화원,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에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5) 자치구내의 다른 문화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항목	응답
6) 현재 자치구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를 한다면 주로 어떠한 매체를 가지고 교류하십니까?	① 전화 ② 홈페이지·이메일 ③ 팩스 ④ 직접 만나서 ⑤ 전혀 교류하지 않음
7) 지역내 문화복지시설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업무가 바빠서 교류를 할 시간이 없어서 ② 교류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③ 교류의 구심체가 없어서 ④ 기관간의 지나친 경쟁의식이 있어서 ⑤ 기타() ⑥ 지역내 잘 이루어진다.
8) 현재 귀 기관에서는 이종시설 중 어떠한 시설과 정보교류 및 의견교류, 행사, 프로그램 공동수행 등의 교류내지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 고르십시오)	①구민회관 ②문화예술회관 ③문화의집 ④문화원 ⑤도서관 ⑥청소년수련시설 ⑦구민체육센터
9) 현재 귀 기관에서는 이종시설중 어떠한 시설과 가장 친밀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만 고르십시오)	①구민회관 ②문화예술회관 ③문화의집 ④문화원 ⑤도서관 ⑥청소년수련시설 ⑦구민체육센터

4. 온라인상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온라인상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의 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문화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련기관 및 전문가, 주민간에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 인터넷을 통해 문화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련기관 및 전문가, 주민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종 정보 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이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1	2	3	4	5
3) 인터넷을 통해 문화시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우수프로그램정보, 프로그램강사 인명록 등을 구성할 때 정보를 제공하거나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1	2	3	4	5

4-2 온라인상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시 선호하는 DB와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 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DB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쓰십시오. ()

<보기>

- ① 문화프로그램안내DB: 서울의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진 문화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실시간의 문화프로그램 정보와 리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 ② 문화공간DB: 서울의 문화시설에 대한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
- ③ 문화예술인력/단체DB: 국내 문화예술관련 인물, 단체, 기관, 업체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종합적 제공
- ④ 문화자원DB: 서울시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 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될 수 있는 각종 자원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
- ⑤ 문화정책자료DB: 국내 문화예술연구기관 및 관련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공
- ⑥ 문화프로그램기획DB: 프로그램 우수운영사례의 제공과 행사나 프로그램진행시 필요한 매뉴얼과 주의사항을 제시 등
- ⑦ 문화자원봉사DB: 홈페이지 관리 및 시설운영을 하기를 원하는 자원봉사자의 자료 제공
- ⑧ 문화예술동호회 항목: 문화시설의 수강자나 문화활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온라인 상 동호회
- ⑨ 문화예술기관 커뮤니티 항목: 문화예술시설에서 근무하는 운영자간의 상호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장
- ⑩ 사이버 갤러리·문학공간: 문화시설의 수강생들이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
- ⑪ 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 온라인상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결제할 수 있게 하여 주민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시스템

(2)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성시 필요한 콘텐츠에 관한 질문입니다. DB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해주시시오.

항목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는 편임	보통임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1) 문화프로그램안내DB	1	2	3	4	5
2) 문화공간안내DB	1	2	3	4	5
3) 문화예술인력/단체DB	1	2	3	4	5
4) 문화자원DB(자원 제공기관)	1	2	3	4	5
5) 문화정책자료DB	1	2	3	4	5
6) 문화프로그램기획자료DB	1	2	3	4	5
7) 문화자원봉사DB	1	2	3	4	5
8) 문화예술동호회(주민대상) 항목	1	2	3	4	5
9) 문화예술기관 커뮤니티(시설대상) 항목	1	2	3	4	5
10) 사이버 갤러리·문학공간	1	2	3	4	5
11) 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	1	2	3	4	5

(3) (도서관만 응답) 도서관 정보화현황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항목	응답
1) 귀기관은 도서검색DB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① 구축되어 있음 ② 구축되어 있지 않음
2) 귀 기관 홈페이지에서 도서검색을 할 수 있습니까?	① 검색할 수 있음 ② 검색할 수 없음
3) 다른 기관의 도서까지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까?	① 검색할 수 있음 ② 검색할 수 없음

4-3. 서울시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에 중심이 되어야 할 기관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서울시
- 2) 자치구
- 3) 문화시설협회(전국문화원협의회, 전국문화의집운영협의회, 도서관협의회)
- 4) 기타()

4-4. 서울시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의 대상은 어떠한 대상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동종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구축
- 2) 자치구의 지역시설을 중심으로 구축
- 3) 기타()

4-5. 서울시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의 방향은 어떠한 것을 우선 순위에 놓고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상 문화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 2) 문화시설단위별로 홈페이지를 먼저 구축해주고 정보화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3) 구단위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상 문화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4-6.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할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 필요없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필요한 편이다
- 5) 매우 필요하다.

5. 주민과의 네트워크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5-1. 주민과의 네트워크 정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해주십시오.

(2) 홈페이지상의 게시판은 현재 주민들과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러한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3)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과 게시판을 통한 의견교류를 통해 주민의 참여도는 예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차이가 없다. 2) 차이가 없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참여도가 높아졌다 5) 매우 참여가 활발해졌다.

(4) 주민과 주민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커뮤니티의 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홈페이지상에 문화강좌 수강생을 중심으로 한 문화동호회란을 개설해주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필요없다 2) 필요없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조금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5) 멀티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이용하여 주민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필요없다 2) 거의 필요없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6) 직장인, 고등학생 등 시간이 없는 사람이나 거동이 불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사이버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필요없다 2) 필요없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7) 온라인상에서 문화강좌수강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까?

- 1) 가능하다 2) 가능하지 않다.

(8) 앞으로 주민에게 편리함을 주는 온라인상의 수강신청, 확인, 결제기능을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필요없다 2) 필요없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6. 귀 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울시 및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구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6-1. 시설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항목	응답
1) 귀기관의 연간 총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연간 총예산: ()만원
2) 시나 구에서 자원받는 비율과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귀 기관께서 자원받는 기관 모두 골라 비율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① 자체 부담률:()% ② 문광부지원비율: ()% ③ 시지원비율:()% ④ 구지원비율:()% ⑤ 교육청지원비율:()% ⑥ 민간기업지원비율:()% ⑦ 기타()%
3) 귀 기관의 인력구성은 어떠합니까?(강사제외) (예: 문화의집의 경우: 원장1명, 사무국장: 1명 직원:2명, 구청 파견직원: 1명, 공공근로 1명, 공익근무요원: 1명)	
4)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행사나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분은 실질적으로 몇분이나 됩니까?(정직원만 해당됨)	() 명
5) 귀 기관에서는 어떠한 시설의 확장이나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연장 ② 강의실 ③ 사무실 ④ 휴게실 매점 등 ⑤ 열람실·도서실 ⑥ 기타() ⑦ 필요없다
6) 귀 기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는 편입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귀 기관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편입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귀 기관에서 가장 빈번히 열리는 행사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① 공연 ② 전시 ③ 문화예술강좌 ④ 민방위 교육 ⑤ 기타()

6-2. 프로그램 및 행사기획시 서울시 및 자치구에 지원요구사항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1	2	3	4	5
2)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기에는 실무자의 전문적인 기획능력이 부족하다.	1	2	3	4	5
3)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기에는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다.	1	2	3	4	5
4)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위한 실무자들의 재 교육 및 연수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1	2	3	4	5
5)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주민참여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여러 문화시설이 공동으로 제작하여 순회공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실무자들의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을 위해 현재 보다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십니까?	1	2	3	4	5
7) 전문적인 문화행사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이 귀 기관에 필요하십니까?	1	2	3	4	5
8)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9) 예산의 지원이 더 필요하십니까?	1	2	3	4	5
10) (주관식)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종류의 교육이 필요하십니까?					
11) 다른 기관과 교류하여 행사나 프로그램을 공동기획 하신적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기관과 어떠한 행사를 하셨습니까?	① 있다, 기관명() 행사명() ② 없다.				

7. 응답자의 속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 (1) 귀 기관의 공식명칭은 무엇입니까?()
- (2) 귀 기관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구 () 동
- (3) 응답에 응해주신 귀하가 귀 기관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무엇입니까?
- ① 기관장 ② 중간관리자 ③ 실무자 ④ 기타

※ 지금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정언 2002-R-30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발 행 인	백 용 호
발 행 일	2002년 7월 31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57 FAX:(02) 2149-1289

ISBN 89-8052-297-5-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